

사람과 은혜가 충만한 하나님 아버지, 영광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이름을 찬양합니다. 자연재해들로 인해 세계 곳곳에서 고통받는 이들에게도 여전히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께 우리의 삶을 맡겨 드립니다. 언제나 주의 손길로 지켜주시고, 영원토록 주를 찬양하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라 그러므로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에 빠지든지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놀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흔들릴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사시: 바른신학 바른교회 바른생활 바른선교

www.chpress.net

주후 2023년 8월 19일 (토) 제 1933 호

□ L.A. : 611 S. Catalina St. #305 Los Angeles, CA 90005 Tel. 323-665-0009, 213-674-7982 Email: lachpress@gmail.com □ N.Y. : 143-17 Franklin Ave. 5Fl. Flushing, NY 11355 Tel. 718-886-4400 Email: nychpress@gmail.com

### 통일에 무관심한 한국의 젊은 그리스도인들

“평생 교회에서 남북한 통일이나 평화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을 들어본 적이 없다.”

김술가 씨는 어린 시절부터 “우리의 소원은 통일”을 부르며 자랐다.

가사의 일부는 다음과 같다: “이 정성 다해서 통일을 이루자 / 이 겨레 살리는 통일” 그러나 남북한의 평화와 통일을 간절히 염원하는 이 곡은 오늘날 한국 교회가 자주 부르는 노래는 아닌 것 같다.

인천에 사는 김 모 교사는 “한국에서 성경에 나오는 ‘평화’는 개인 내면의 평화로 번역되는 경우가 많고, 교회에서 성경의 평화를 남북 관계와 연결해 설교하는 경우는 드물다”고 말했다. 그는 “평생 교회에서 남북한 통일이냐 평화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을 들어본 적이 없다”고 말했다.

남북한은 1953년 7월 27일 한국전쟁이 끝나고 모든 군사력을 철수하고 적대 행위를 중단하며 전쟁 포로를 송환하는 휴전 협정이 체결된 이후 분단되어 있다. 그러나 남북한은 평화협정을 체결한 적이 없으며 엄밀히 말하면 여전히 전쟁 중이다.

올해는 정전협정 70주년이 되는 해이다. 그러나 오늘날 한국의 젊은 세대들은 통일된 한국의 일원이 되는 것에 점점 더 무관심해지면서 통일은 허황된 꿈처럼 보인다.

CT의 인터뷰와 설문조사에 따르면 한국의 기독교인들은 대체로 통일을 지지하지만, 통일을 이루는 방법에 대해서는 서로 다른 생각을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Z세대와 밀레니얼 세대 기독교인(한국에서는 MZ세대라고도 함)은 사회적, 경제적 압박으로 인해 통일에 대한 지지가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 교회 역시 성도들의 주요 관심사인 통일을 위한 지속적인 노력과 인식이 부족하다.



그러나 일부 기독교인들은 언어 통합을 추구하거나 젊은이들에게 한민족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교육하는 창의적인 교육 방식을 제공하는 등 오랜 꿈을 향해 구체적인 발걸음을 내딛고 있다.

#### 젊은 세대의 정서

2020년 설문조사에 따르면, 한국의 Z세대는 통일에 대해 “상대적으로 무관심”하고 북한 주민에 대한 호감도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북한을 긍정적으로 바라보는 비율은 12%에 불과했다. 2021년 조사에 따르면 20대

의 거의 절반(47.1%)이 통일이 “필요하지 않다”고 답한 반면, 40대는 23.8%에 그쳤다.

CT가 국내 크리스천 채팅 그룹에 설문지를 보내 통일에 대한 Z세대의 생각을 물었을 때, 15세 서윤진 양은 “통일이 필요하지 않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통일이 되면 문화적으로는 좋겠지만 경제적, 이념적 대립으로 인해 많은 갈등이 예상된다”라고 답했다.

“오히려 남한과 북한이 전쟁을 끝내고 분단되면 두 나라 관계가 더 좋아질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남북한의 완전한 분단이 이상적인 결과라고 생각하는 청소년은 서 씨뿐만이 아니다. 많은 한국 젊은이들은 북한은 ‘가난하고 전체주의 국가’인 반면 남한은 ‘부유하고 민주적’이라고 생각하며, 이러한 경제적 격차가 잘 해결

되지 않을 것이라 생각한다.

통일에 대한 기독교인의 태도에 대한 데이터는 없지만, 한국침례신학대학교의 성서신학 교수인 신인철 교수는 통일을 지지하는 MZ 기독교인의 비율을 약 20~25%로 추정하고 있다. 신 교수는 이 비율이 계속 줄어든 것으로 보고 있으며, 그 원인으로 통일을 위한 교회의 투자가 부족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한다.

“저는 지금 57살입니다. 한 때 교회는 통일이 필요하고 남북한은 하나의 국가라는 것을 강력하게 교육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교회가 통일에 관심이 없습니다.”라고 그는 말했다.

네번재강 청년교육국 남상득 국장은 이전 세대의 한국인은 통일을 민족적, 경제적, 정신적 의미가 담긴 과업이라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3면으로 계속)



### 하와이 산발: 사망자 93명으로 늘어나...

BBC, 주지사 ‘사망자수 더 많이 늘어날 수도’

하와이 마우이섬의 유서 깊은 지역인 라하이아를 초토화한 이번 산발로 12일 기준 93명이 사망한 것으로 확인되면서 미국 역사상 100년 만의 최악의 산발로 기록되게 됐다.

조시 그린 하와이 주지사는 12일 사망자 신원 확인을 위한 범의 학 조사가 계속되고 있다면서 사망자가 “상당히” 늘어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수백 명은 불길을 피해 마우이 전역에 흩어진 대피소로 이동했으나, 행방이 묘연한 주민도 수백 명에 이른다. 그린 주지사는 “믿기지 않는 날”이라면서 이번 화재가 “하와이 역사상 최악의 자연재해로 기록될 것임이 분명하다”고 설명했다.

“현재 당국은 생존자들을 기다리고 지원하는 일밖에 할 수 없습니다. 현재 우리는 서로 헤어졌던 주민들을 다시 만나게 해주고, 이들에게 살 곳과 의료 서비스를 제공한 후 (터전을) 재건하는 일에 초점을 두고 있습니다.”

한편 조기 경보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했는지는 불분명한 상태로, 많은 주민들이 BBC와의 인터뷰에서 화재 경고를 미리 받지 못했다고 전했다.

하와이주 검찰총장은 이번 산발에 대한 당국의 대응 방식에 대해 “전면적으로 검토” 중이다.

질 토크다 하와이주 하원의원은 지난 13일 BBC 월드 서비스 ‘뉴스 아워’와의 인터뷰에서 해결되어야 하는 “진정한 질문”들이 있다고 설명했다. “모든 이들이 분노할 만한 상황”이며 “우리 모두는 답을 원한다”는 지적이다. 아울러 토크다 의원은 지난주 라하이아 지역을 방문했다면서 “정말로 가슴 아팠다”고 언급했다.

(6면으로 계속)



발행인/편집장 김성국 목사



시론 최해근 목사



푸른초장 장경호 목사

**월드미션대학교**  
신학/상담학/음악학/예배학/간호학/사회복지학  
**캠 퍼 스 | 온 라 인**  
www.wmu.edu | 500 Shatto Pl., Los Angeles | (213)388-1000

**윤새롬 치과**  
Nouvelle Dental  
Lily Yoon DMD / 원장 윤새롬  
T. 917-908-0075  
154-08 Northern Blvd 2H, Flushing, NY 11354  
YOON.DENTAL154@gmail.com | WWW.LILYMD.COM

**Sharing Bread for Soul (SBS)**  
생명의 빵 나누기 운동  
말씀과 빵을 나누며 영혼을 살립니다  
문의 강태광 목사 (323)578-7933

www.laguesthouse.com  
**LA 호텔식 하숙**  
GUEST HOUSE  
쾌적하고 안전한 환경 (김스전기양)  
TEL. 213-663-9181  
965 Fedora St. L.A., CA 90006  
Email: laguesthouse@live.com

## 열린문교회 설립 42주년

### 원로목사 추대 및 담임목사 위임예배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로 교회 설립 제 42주년을 맞이하여 원로목사 추대 및 담임목사 위임 예배를 아래와 같이 드리기를 원하오니 오셔서 함께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기쁨을 같이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원로목사 추대: 유재일 목사  
담임목사 위임: 함성주 목사

일시 주후 2023년 8월 31일 (목) 오후 6시

장소 앵커리지 열린문 교회

8220 Briarwood Street, Anchorage AK 99518 Tel: 907-344-6446, www.kopcak.org



미주한인예수교장로회

열린문교회 교우일동

가미노회위임국장 천영일 목사

발행인 칼럼

수련회 단상 (斷想)



김성국 목사 (퀸즈장로교회 담임)

구름인가 안개인가. 넓은 호수를 감싸고 있는 산들이 구름인지 안개인지 아무튼 집 없이 떠도는 그들이 애처로운 듯 잠시라도 편히 머물다 가라고 살포시 품어 주고 있었다. 막 세수를 끝낸 듯한 푸르른 호수 위를 오리 한 마리가 길고 하얀 물보라를 자기 뒤로 남기며 조용히 헤엄치고 거위 한 마리는 엄마를 찾는 울음인지 '꺼억 꺼억' 소리 내면서 어디론가 날았다. 나무는 우리 모두가 잠든 밤에도 놀지도 졸지도 않다가 변함없이 자리 내린 깊은 뿌리 위에 서서 자기 옆의 나무들과 지나가는 바람에게 '굿모닝'하듯 반가이 손을 흔들었다. 그리고 보니 길옆에 작은 바위도 길 위에 작은 돌들도 나도 보고 지나가려는 듯 살짝 시위하고 있었다. 며칠 전 노회 수련회에 참석했다가 새벽 기도회 후 수련회 장소 주변을 산책하면서 보았던 풍경이다.

“괴롭히는 성도라도 있었으면 좋겠어요” 수련회 중에 ‘나를 붙들신 말씀’이라는 프로그램이 있었다. 그 시간은 수련회 참석하신 목사님과 사모님들이 자기를 지금까지 붙잡아 준 말씀을 소개하고 그와 연관된 이야기를 짧게 나누는 시간이 있었다. 그때 어느 사모님이 하신 말씀이었다. 팬데믹 기간에 교회를 개척하고 3년이 되었지만, 아직 네명 이상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있다고 했다. 성도가 너무 없더니 괴롭히는 성도라도 있으면 좋겠다고 하셨다. 그 이야기를 듣고 있던 많은 이들의 눈시울이 붉어졌다. “네, 가요” 다른 사모님은 친정어머니가 한국에서 마지막 숨을 거두며 주님을 향해 그렇게 외치셨다는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사모님이 예수님을 믿지 않는 친정어머니에게 예수님을 믿고 꼭 천국 가야 한다고 마지막 순간까지 전하고 또 전하셨는데 마침내 그 마지막에 “네, 가요”를 외치셨다는 것이다. 복음을 전할 때는 마지막까지 낙심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을 다시 깨닫고, 그렇게 하겠노라 다시 다짐하는 시간이 되었다.

‘우리 우리 주님은 사랑의 주님/ 나보다 나를 더 사랑하시는 주님/ 우리 우리 주님은 임마누엘의 주님/ 우리와 함께 계시는 임마누엘의 주님/ 그는 살아 계신 분 너무나 좋으신 분/ 나의 이름 부르며 다시 오실 우리 우리 주님은 사랑의 주님——’ 수련회 찬양의 시간에 여러 찬양을 함께 불렀다. 그 찬양 가운데서 나보다 나를 더 사랑하시는 주님, 나와 함께 계시는 주님을 다시 생각하게 하는 찬양이 있었다. 하나님이 나보다 나를 더 사랑하시고,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다면 무엇이 내 삶에서 문제이겠는가. 어떤 것이 나를 힘들게 할 수 있겠는가.

수련회에서 말씀을 전하였다. 제목은 “목적의 불명확했던 바울”이었다. 본문은 빌립보서 1장 20절에서 24절까지였다. 바울은 많은 상처가 있었으나 상처를 크게 보지 않고 사명을 크게 보았다고 했다. 바울에게는 자기가 원하는 삶이 있었다. 빨리 천국 가는 것이었다. 그러나 그는 자기가 원하는 삶을 좇지 않았다. 그는 사명을 위해 살았다. 그의 사명은 살든지 죽든지 그리스도를 존귀하게 하려는 것이요, 다른 사람들에게 더 유익한 것을 위해 사는 것이었다. 다른 사람, 모든 사람에게 시급하고 유익하고 필요한 것이 복음 외에 다른 무엇이 있었는가. 말씀을 가지고 우리의 사명 회복을 위한 토론회와 기도회를 이어가겠다. 여름을 정리해야 하는 시간에 펼쳐진 짧은 수련회는 지쳐있던 목사님들과 사모님들을 일으키어 하나님 앞으로 더 가까이 이끌어 준 아름다운 시간이었다. 누구에게나 잠시라도 일상을 벗어난 특별한 시간이 필요하다. 이를테면 수련회 또는 여행 같은.

‘진보’ 기독교는 내가 떠났던 복음주의보다 더 알팍하다

요한복음 6장을 보면 어려운 예수님의 말씀 때문에 적지 않은 사람들이 떠난다. 그리고 예수님은 남은 제자들에게 “너희도 가려느냐?”라고 묻는다(요 6:67). 그러자 내가 추측하기로 많은 사람이 자기 주님이라고 부르는 예수님을 떠나는 데에 마음이 상하고 민망했던 베드로가 대답한다. “주님,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겠습니까? 선생님께서 영생의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는, 선생님이 하나님의 거룩한 분이심을 믿고, 또 알았습니다”(요 6:68-69).

이게 바로 내 이야기이다. 나는 두 가지 신발을 신고 걸었다. 예수님을 버린 사람들의 신발과 아무리 힘들어도 예수님을 떠날 수 없었던 베드로의 신발. 나는 ‘진보 기독교’를 위해 젊은 시절의 신앙을 버린 경험이 있는, 소위 말하는 전직 복음주의자(#exvangelical)였다. 그런 다음에 다시 돌아왔다. 다음은 다시 재복음주의자(#revangelical)가 된 나의 이야기이다.

내 신앙이 어떻게 무너졌는가

내가 자라고 배운 기독교 전통은 많은 장점에도 불구하고 초고속 인터넷에 접속하는 우리 세대에 대한 준비가 전혀 되어 있지 않았다. 온라인에서 발



소리가 아닌가?

이런 질문은 내가 어렸을 때부터 듣고 자랐던 성경의 권위를 조금씩 갇아먹기 시작했다. 문제는 단지 성경에 대한 질문으로 끝나지 않았다. 내 신앙이 추구하는 정치 문화와 성경을 어떻게 일치시켜야 하는가에 관한 과제도 있었다.

- 우리나라의 정책이 가난하고 소외된 지역사회에 특히 더 불이익을 주는 것처럼 보이는 이유는 무엇인가?
• 내가 자란 텍사스 마을에서 더 잘 살겠다고 노력하는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다면서 동시에 이민자들의 삶을 더 악화시키는 사

은혜의 수단이 아니라 피하거나 억제해야 할 대상이었다.

이처럼 성경, 정치, 그리고 고통에 관한 삼각형 질문은 내가 진보 기독교를 탐구하도록 만드는 토대가 되었다.

재건 없는 해체

나는 랍 벨이 쓴 'Velvet Elvis'와 '사랑이 이긴다'를 읽었다. 도널드 밀러의 '재즈처럼 하나님은'도 읽었다. 아직도 나는 전에 경험하지 못한 은혜의 세계만이 아니라 정통 교리에서 자유로운 세계로 나를 인도한 재즈처럼 하나님

“오직 예수” 라는 길 외에는 참된 행복과 영생으로 인도하는 길이 없다. 우리는 빛 속에서 신학을 한다. 그래야 어둠을 만났을 때 신학이라는 발판 위에 설 수 있다.

견한 성경 비평이 새로운 것은 아니었지만, 세상이 달라졌고 복음주의 거품 속에서 자란 호기심 많은 사람들의 손끝에 모든 정보가 기다리고 있었다. 내가 바로 그런 사람이었다. 구글 검색이나 유튜브 영상에서 만나는 진지한 비판에 비해서 교회가 주는 답은 알팍하게만 보였다.

- 특정 성경 이야기에서 발견하는 모순과 비과학적 내용은 어떻게 된 것인가?
• 이스라엘에게 그들의 원수와 자녀까지 다 죽이라고 명령하는 하나님을 보면서 어떻게 우리는 단지 어깨만 으쓱하면서 넘어갈 수 있었는가?
• 어떻게 사랑의 하나님이 사랑하는 피조물을 영원한 고통으로 정죄할 수 있는가? 다른 종교는 어떤가? 그들도 따지고 보면 모두 다 기본적으로 같은

레가 그토록 많은 것을 어떻게 이해해야 하는가?

- 출산 후에 고통받는 사람들에게도 낙태에 신경 쓰는 것만큼 마음을 쏟는 게 당연하겠지?
나는 성경이 알려주는 이야기보다 이 세상의 현실이 훨씬 더 복잡하다는 사실을 도무지 부정할 수가 없었다. 그래서 결국 믿음을 완전히 버렸다. 예수님 또는 교회와 아무 상관 없이 살고 싶었다.
흥미롭게도 하나님이 다시 내 삶에 들어오기 시작한 때는 나와 소원했던 어머니가 돌아가셨다는 사실을 알고 슬퍼하던 즈음이었다. 그러나 내가 익숙한 복음주의 환경에서는 고난에 대한 실질적인 신학이 빠져 있었다. 고통은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은의 한 단락을 기억한다. 마이클 경거의 팬으로서 나는 그가 새로 시작한 팟캐스트 The Liturgists를 듣기 시작했다.

내가 새롭게 만난 광경은 감동적이었다. 성경 때문에 굳이 과학을 버리지 않아도 되었다! 기도가 동전 던지거처럼 느껴졌을 때, 신비주의는 하나님을 만나는 새로운 방법을 제공했다! 믿음은 소외된 집단까지 돌보도록 정치에까지 영감을 줄 수 있었다! 가장 중요한 것은 경거와 “Science Mike” 맥하그(McHargue)의 해체 이야기에 나의 스토리가 담겨 있었다는 사실이다. 나는 마침내 믿음을 해체하고 다시 처음부터 재건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이해하는 사람들을 찾아냈다. (9면으로 계속)

미주크리스천신문 The Korean Christian Press
발행인 겸 편집인: 김성국 ■ 편집국장: 김재상 ■ LA지사장: 이성자
L.A. Office: 611 S. Catalina St. #305 Los Angeles, CA 90005
N.Y. Office: 143-17 Franklin Ave. 5th Fl. Flushing, NY. 11355

가톨릭서적센터 The Christian Book Center
각종 행사 기념품 전문 제작
성화, 성구약자, 크리스탈강대상, 성가대·목사까운
(323) 737-7699
www.lachristianbookcenter.com

교회인쇄물·헌금봉투·배너
Order Online 30% LOW PRICE
in2printing.com
인투인쇄 T. 718-425-8505

8.15 해방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이용규 목사
성경 강해 설교집을 보내드립니다.
(1973년도에 LA에서 동부장로교회 개척, 43년간 시무, 2016년 소천)
설교집 웹사이트 www.easternpresbyterian.church
설교집 책을 받아보기 원하는 개인, 교회, 학교, 도서관 등 미국과 한국의 어느 곳에도 무료 우송해 드리오니 많은 신청 바랍니다.
설교집 신청 LA 동부장로교회
담당: 유명아 전도사 (213)505-7831
신청 이메일 427030@gmail.com
강해 설교집 목록
제1권 주의 길을 예비하라 제22권 승리의 신앙생활
제2권 아가서 강해 제23권 선한 목자와 양
제3권 너희 구원을 이루라 제24권 위대한 믿음의 유산
제4권 주의 재림을 준비하라 제25권 피할 수 없는 하나님
제5권 썩지 않는 면류관 제26권 빌립보서 강해
제6권 스기라서 강해설교 제27권 영원히 남는 생활
제7권 위가름이기는 길 제28권 시온으로 가는 큰 길
제8권 하나님의 주권과 인생 제29권 베드로전후서 강해
제9권 뭇기서 강해 제30권 택함받은 백성의 축복
제10권 새천년에 할 일 제31권 우리 가운데 계신 하나님
제11권 후회함이 없는 삶 제32권 간추린 신학
제12권 구원 얻는 자의 할 일 제33권 장차 올 영구한 도성
제13권 일어나 빛을 발하라 제34권 위대한 사랑
제14권 감추인 보화와 진주 제35권 대살로니기전후서 강해
제15권 하늘의 시민권 제36권 큰 산이 평지가 되라
제16권 진정한 평화 제37권 견고한 신앙생활
제17권 하나님의 약속 제38권 옛적 선한 길로 행하라
제18권 십자가의 도 제39권 그리스도의 승리
제19권 새벽을 깨우라 제40권 감정의 영감
제20권 인간의 복된 시명 제41권 세미한 소리를 들으라
제21권 인생의 바른 길 제42권 그리스도인의 영원한 해방
제 1권부터 제 42권까지의 방대한 설교를 색인으로 정리하여 찾아보기 쉽게 하였습니다.
즉,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1,000여 편의 설교에 대한 INDEX를 소책자로 출판하였기에 함께 보내드립니다.

통일에 무관심한 한국의 젊은...

(1면에서 계속)

그러나 현 세대는 여러 가지 이유로 남북한 통일을 위기로 여길 수 있다고 남 대표는 말한다. 첫째, 많은 한국 젊은 이들은 신앙을 사회에 영향을 미치는 방법이 아닌 하나님과의 개인적인 관계로 여긴다. 둘째, 기성세대는 공산주의 국가에 고향이 있는 반면, 이들은 대부분 북한에 발을 디딘 적이 없고 탈북자를 통해 북한을 접해보았을 뿐이다. 셋째, 교회의 일관성 없는 메시지로 인해 통일은 종교적 이슈가 아닌 정치적 이슈로 인식되고 있다.

CT가 인터뷰한 MZ 기독교인들은 남북한이 통일되기를 희망한다고 말하지만, 또래들 사이에 광범위한 무관심과 개인주의 성향이 존재하며 이는 지지층의 공허함을 반영하는 것일 수 있다고 인정한다.

한양대학교 경영학과를 졸업한 27세 신 교수의 아들 동민 씨는 CT에 보낸 이메일에서 “통일에 대한 생각은 그저 생각 속에 머물러 있거나 대화 중에 가끔 언급될 뿐이며, 결국에는 ‘감사해야 한다’, ‘그들을 위해 기도해야 한다’, ‘통일은 중요한 문제다’라는 식으로 끝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고 말했다.

“대부분의 남한 젊은이들도 비신도들과 마찬가지로 남한 사회의 바쁜 삶과 치열한 경쟁에서 살아남기 위해 희생양이 되는 것 같아요.”

서울 유니온장로교회에 출석하는 영화감독 김진우 씨(27세)는 “주변 한국 젊은이들은 통일에 대해 큰 틀의 관심을 고려하기보다 개인의 필요를 먼저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고 말했다.

서울대 정치학과 강원택 교수는 “높은 실업률과 치솟는 부동산 가격 등의 문제로 생계가 벼랑 끝으로 내몰린 20대에 통일 담론은 사치처럼 느껴질 수 있다”고 말했다.

평화를 위해

기독교 신앙은 역사적으로 휴전 후에도 한국인을 계속 이어주는 유대감 중 하나였다. 크리스챤티 투데이는 1972년에 이렇게 기록했다:

분단 이전에는 한국 기독교인의 3분의 2가 북한인이었으며, 한국에서 가장 큰 교회 중 일부는 난민 교회였다. 피난민 중 가장 잘 알려진 사람 중 한 명인 서울 영락장로교회의 한경직 목사는 한국전쟁이 북쪽의 성공적인 해방으로 이어졌다면 북쪽의 1,500만 명 중 80%가 그리스도교로 돌아왔을 것이라고 말했다. 1988년과 1992년 사이에 한국인들은 평양에 두 개의 교회 건물을 도왔고, 2008년에는 교회 중 한 곳의 재건과 확장을 위한 자금을 지원했다고 세바스찬 김과 커스틴 김은 한국 기독교의 역사에 기록했다.

통일을 지지하는 가장 유명한 복음주의자 중 한 명은 성경을 한국어로 번역한 장로교 목사이자 신학자인 문익환

목사이다. “나는 평양에 가겠다”라는 유명한 시를 쓴 문익환은 실제로 평양에 갔다가 귀국 후 체포되어 남한 정치인들을 격분하게 했다.

많은 북한 출신인 나이든 기독교 지도자들은 공산주의 북한과의 관계에 회의적이었고, 김 목사 부부의 말을 빌리자면 “북한과의 어떤 타협도 강력히 반대했으며, 적극적 반공주의자였다”고 한다. 그러나 북한 정부에 대한 이들의 혐오는 국민들을 향하지는 않았다. 1980년대 말과 90년대 중반 북한에서 식량 부족과 기근이 발생했을 때 보수 기독교인들과 오순절주의자들은 북한에 수백만 달러의 원조를 보냈다.

1988년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가 발표한 ‘민족의 통일과 평화를 위한 선언’을 계기로 ‘화해하는 기독교’ 운동이 시작되었다. 이 선언에서 1995년을 ‘희년의 해’로 선포한 것은 “통일 문제를 전면에서 인도주의적 사업과 평화 만들기로 전환하도록 도전했다.”라고 기록한다.

“또한 희년은 토지 재분배에 대한 요청으로서 민주와 이후 복음주의 교회뿐만 아니라 진보적 교회의 관심사가 된 가난한 사람들을 위한 정의를 위한 지속적인 투쟁과 연결되었다.”

한국 기독교의 역사가 밝히고 있듯이, 평화를 향한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한국 기독교인들은 통일을 어떻게 이룰 수 있을지에 대해 여전히 분열되어 있다:

통일에 대한 기독교의 접근 방식은 반공 캠페인과 선교 의제의 일환으로서의 통일(보수 기독교인), 남북한 간의 대화 촉진(진보 기독교인), 인도주의적 지원과 나눔 캠페인 참여(일부 보수 기독교인)와 대부분의 진보 기독교인의 세 가지 입장으로 요약할 수 있다. 한국에서 태어나고 자랐으며 현재 캐나다 밴쿠버에 살고 있는 30대 후반의 송승훈 목사는 통일이 군사력이나 전쟁에 의해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북한이 파산해 갑자기 남한에 항복하는 동화 통일도 56년 동안 분단된 두 나라가 성공적으로 통일을 이룰 수 있을 거라고 기대하는 것은 ‘비현실적’이며, 가능하지 않다고 생각한다.

통일은 평화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한 송 대표는 에베소서 2장 14절을 남북한 사이의 ‘장벽’을 허무는 방법에 대한 지침 구절로 인용했다: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돌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 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CT가 인터뷰한 다른 한국 기독교인들도 통일을 추구하기 위해서는 평화에 대한 성경적 이해가 필요하다는 데 동의했다. 성서신학 교수인 신 목사는 마태복음에 나오는 예수님의 가르침은 포용과 용서, 사랑을 통한 평화주의의 힘을 묘사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인터뷰한 일부 한국 기독교인들은 남성이 의무적으로 군대에 가야 하는 오늘날의 상황에서 북한을 적으로 간주하는 법을 배우기 때문에 평화 통일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이 어려울 수 있다고 말한다.

그러나 신 목사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보여주는 것이 남북한 사이의 적대감과 증오심을 극복하는 한 가지 방법이라고 확신한다. “원수를 사랑하라는 예수님의 가르침의 목적이 동족을 사랑하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면 대결과 갈등의 고통을 반복하는 남북한 주민들에게 정서적 이데올로기가 될 수 있다.”라고 2020년에 발표한 논문에 기록했다.

미래 구상하기

한국의 일부 기독교인과 교회에게 통일은 먼 미래의 꿈이 아니라 매일 노력하는 현실이다.

여의도순복음교회는 탈북민들이 남한 사회에 통합될 수 있도록 돕는 ‘통일교구’를 운영하며 탈북민들을 섬기고 있다. 한국이나 한인 디아스포라 출신 선교사들은 북한 국경과 가까운 중국에 거주하며 탈북민을 대상으로 사역하고 복음을 전하고 있다. 캐나다에서 한국 목사로 사역하는 송 목사는 북한에 기독교 메시지를 라디오 방송으로 송출하는 극동방송에서 근무한 적이 있다.

인천의 김 교사는 남한 교회가 북한 이웃에게 복음을 전하는 방식에 대해 대부분 부정적인 이야기를 들었다고 한다. 남한에 있는 탈북민들은 종종 기독교인이 되어 교회에서 간증을 나누도록 권유받는다. 그렇게 함으로써 그들은 “금전적 보상”을 받기도 한다.

“탈북민들이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만남이 아닌 경제적 거래를 통해 교회와 관계를 맺는 것은 매우 유감스러운 일”이라고 말했다.

교회 밖에서는 일부 기독교인들은 자신의 영향력을 발휘하는 영역에서 통일을 옹호하기로 결심했다. 강보선 씨는 대구대학교 한국어교육과 조교수로 근무하며 남북한의 언어 차이와 통합을 연구하고 있다. 남북한의 경제적, 사회적 격차 외에도 언어 차이는 문화적 이질감을 더욱 심화시킨다.

예를 들어 남한에서 가장 많이 사용되는 성경 번역본은 개역개정판이지만, 북한은 1977년 남한의 개신교와 천주교가 함께 만든 성경전서를 사용한다.

“예를 들어 ‘God’이라는 단어는 남한에서는 하나님으로 표기되지만 북한 성경에서는 하느님으로 표기된다.”라고 강 대표는 말한다.

강 대표는 자신의 작업이 언어 통합을 위한 남과 북의 ‘분단’을 해결할 수 있는 하나님이 주신 비전이라고 생각한다. 그는 남북한 학자들과 협력하여 남북한 언어로 된 공동 용어 사전을 만들었는데, 이 아이디어는 한국 성경 번역가 문익환 목사의 제안으로 시작되었다. 이 사전은 2013년에 출판될 예정이었지만, 남북 관계 악화와 팬데믹으로 인해 현재 프로젝트가 보류된 상태라고 강 목사는 말한다.

이러한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강 대표는 남한 학생들이 학교에서 남북 언어 차이를 체계적으로 배울 수 있는 교육 방법을 연구하고 있다.

(4면으로 계속)

시론

‘K-pop’에서 ‘K-pol’로



최해근 목사 (몽고메리교회)

지난 8월 1일부터 12일까지 전북 새만금에서 세계스카우트 연맹에서 매 4년마다 개최하는 청소년 야영캠프인 제25회 세계 잼버리대회가 ‘Draw Your Dream(“나의 꿈을 펼쳐라!)’라는 주제로 있었습니다. ‘잼버리’라는 말은 북미 인디언의 말로 ‘유평한 잔치’ 혹은 ‘즐거운 놀이’라는 뜻으로 캠프를 치고 야영을 하며 전 지구촌에서 모인 청소년들이 국경을 넘어 교제하는 행사입니다.

1991년 강원도 고성에서 제17회 잼버리대회를 개최한 경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번 잼버리대회에서 한국의 이미지는 형편없이 추락하였습니다. 이번 행사에 참여하는 스카우트 멤버들이 대략 4만 3천명에다 자원봉사자들이 8천여 명, 전체 5만 명 이상의 사람들이 함께 숙식하며 행사를 이어가는 큰 행사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다른 행사들, 예컨대 월드컵 축구와 같은 것은 경기 장소와 숙식 장소가 다르지만 잼버리 행사는 숙식하는 장소에서 많은 행사가 진행된다는 점이 차이가 납니다.

이 행사의 참가비는 국적과 관계없이 일 인당 한화로 103만원이지만 한국까지 오는 비행기 표는 개인이 구매해야 합니다. 영국은 1인당 586만원(3,495파운드), 미국은 1인당 793만원(6,100불), 호주는 1인당 500만원(5,800불)이라는 거금을 내고 참여했다는 사실은 이 행사 참여를 위해 상당한 재정적인 지출이 있었다는 증거입니다.

한국은 2017년 개최지로 선정된 후에 바다를 막아 육지로 조성한 새만금을 야영지로 정하고 지난 6년 가까이 준비해 왔지만, 막상 뚜껑을 열고 보니 너무 엉성하였을 뿐만 아니라 여러 번 지적되었던 문제들이 하나도 해결되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예컨대 바다를 막아 육지로 조성했기 때문에 나무 그늘이 거의 없는 곳이라 여름의 더위를 피할 수 있는 그늘이 없다는 약점입니다. 2022년 10월 25일 국정감사에서 야당 국회의원이 여성가족부장관에게 아주 분명하게 ‘폭염과 폭우, 감염 그리고 해충 방역’에 대해 진지하게 지적하고 부탁했지만 하나도 해결된 것이 없었습니다. 국가 예산 1,100억을 소모하는 행사였지만 화상실이 여겨워 사용할 수 없었다고 합니다.

누구의 잘못인가? 지금 집권하고 있는 여당은 이전 정부에서 제대로 추진하지 않아서 문제가 일어났다고 말하고 야당은 정권이 바뀐 지가 벌써 1년이 지났을 뿐만 아니라 1,100억의 예산 중 617억이 2023년에 집행된 사실에 근거하여 현 정권이 책임을 져야 한다고 말합니다. 서로에게 손가락을 보내고 있는 모양새입니다.

행사를 준비하다 보면 짧은 기간 안에 완성되는 부분도 있고 어떤 것은 더 긴 시간을 요하는 것도 있습니다. 지금 정부가 출범한 지 정확히 15개월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넉넉잡아 2년 이상의 기간을 요구하는 준비작업은 이전 정부에게 더 큰 책임이 있을 것이고, 준비기간 1년 미만을 요구하는 영역은 현 정부에게 더 큰 책임이 있을 것입니다. 이번에 국제적인 망신을 초래한 화상실이나 샤워실 그리고 더위를 피할 공간과 같은 부분은 공사 시작부터 계획되어 야영장이 개장되는 그 날까지 유지하고 점검하고 확인해야 하는 핵심영역이라는 점을 고려해 본다면 책임의 소재는 이전정부 및 현 정부 모두에게 있습니다. 사실 이런 큰 국가적 행사는 이전 정부와 현 정부가 함께 손을 잡고 추진해야 하고 실패하면 함께 짐을 지는 것이 옳습니다.

이렇게 서로에게 손가락질하며 실패의 책임을 떠맡길 때 다행히도 K-pop이 등장하여 조금이나마 손실을 줄이고 참가자들의 마음을 위로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이야기들이 들리기도 합니다. 정치인 수를 줄이고 K-pop을 늘려야 지금보다 더 나은 수준의 국가로 나갈 수 있다(?). K-pop이 한 곡을 완성하기 위해 쏟아붓는 땀과 노력만큼 정치인들이 자신들의 활동무대에서 똑같은 양의 땀과 노력을 뿌린다면 대한민국 정치 또한 K-pol(politician)이 되고도 남음이 있습니다. K-pop과 더불어 K-pol이 지구촌에서 사랑받고 존경받는 대한민국을 기대하며.....

hankschoi@gmail.com



세계로 뻗어가는 교회

기타지역 교회

Table listing various churches and their contact information. Columns include: 갈보리장로교회, 다민족교회, 몽고메리교회, 벅스카운티장로교회, 벨렐교회, 보스턴장로교회, 센터빌한인장로교회(PCA), 알칸사 제자들교회, 앵커리지열린문교회, 영생장로교회, 킬린은누리교회, 워싱턴메시야장로교회, 타코마한인장로교회, 미주크리스천신문 과 함께할 후원교회를 찾습니다, 미주크리스천신문 과 함께할 후원교회를 찾습니다, 미주크리스천신문 과 함께할 후원교회를 찾습니다, 미주크리스천신문 과 함께할 후원교회를 찾습니다.



# 목장일기



김재열 목사 (뉴욕 센트럴교회)

## 뉴욕 실버 선교회를 오픈합니다

20년 전에 교우들과 함께 아프리카 케냐 마을을 방문했다. 교회가 파송한 선교사의 사역현장을 둘러보기 위함이었다. 일행 중에 세탁소를 운영하는 집사님이 동행했었다. 언제나 바쁜 가게 일에 매어 평생 휴가도 없이 지내던 분이 웬일로 시간을 냈을까? 아프리카 여행에 호기심이 있나?

그분은 시간을 내어 한 주간을 비울 수 있는 분이 아니었다. 속으로 궁금했지만 직접 묻지는 않았다. 그러나 궁금증이 오래 가질 못했다. 답을 기다리면서 물었다. '집사님! 어떻게 바쁜 시간을 내셨어요?' '목사님! 이제 저도 은퇴 시기가 가까이 오지 않습니까? 평생 세탁소만 할 수 없지

않습니까? 은퇴 후에 하나님이 기뻐하실 일들을 찾아보려고요...' 그때 머릿속에 스치는 생각이 떠올랐다. 대부분의 지역교회들이 젊은이들 보다는 나이 드신 어르신들만 남아 있는데... 교회가 딱히 거기에 맞작 일주일에 하루 만나질 정도 상륙수 대학 운영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실버 파워들이 갖고있는 무진장한 노하우를 재생산으로 이어야겠다는 생각에 사로잡혔다.

이를 계기로 곧장 교회 안에 실버 선교 위원회를 조직하고 기본 운영과 훈련 과정들로 자체 무장을 시켰다. 꺼진 불이 다시 일어났다. 삶의 활혼을 하나님 나라 확장에 온전히 투자하기 시작했다. 소망이 넘쳤다. 곧장 뉴욕의 담임 목사들에게 회신을 돌렸다. 좀처럼 보이지 않는 목사가들이 20여명이 모였다. 모두들 발등에 떨어진 노인 목회 처방이 있다는 회람을 보고 함께 모여들었다.

그래서 시작된 것이 뉴욕 실버 선교회가 창립이 되었다. 이사 정관에 몇 가지 운영규칙을 세웠다. 첫째는 실버 선교회는 이사 교회들로 돌아가면서 교육과 훈련을 한다. 어느 특정한 교회의 사역이 아닌 것을 확실히 했다. 둘째 모든 훈련과 교육은 각 이사 목사들이 담당한다. 셋째 중강하면 반드시 한 주간 선교지에 가서 단기 현장 실습을 한다. 넷째 소명을 받아 중장기 선교사로 나

갈 수 있도록 본회가 파송하고 후원하도록 한다. 이렇게 시작된 뉴욕 실버 선교회가 20년 만에 사료잡혔다.

그동안 봄, 가을로 많게는 60명에서 작게는 10여 명까지 매 학기마다 교육과 훈련이 끊어지지 않았다. 코비드 기간에도 온라인 영상으로 실버 선교의 비전은 이어져 왔다. 이런 결과로 그 동안 뉴욕 실버 선교교회를 이수한 동문들이 1,000여명을 넘는다. 특히 단기 선교지에 참여한 실버들이 연인원 1,300여명이나 된다. 일단 단기선교지에 참여한 실버들에게 하나님께서 소명을 주신다. 그래서 실버 선교사로 평생 사역하는 분들이 현재 14개국에서 30여명이 찬란한 석양의 선교 사명을 다하고 있다.

뉴욕 실버 선교회는 소일거리 없어 무력하게 지내던 뉴욕의 실버들을 선교지로 보냈다. 주님의 강력한 부르심을 듣고 은퇴했던 실버들이 일어나기 시작했다. 30여명의 뉴욕 실버 선교사들은 자신들이 젊어서 섬겨왔던 재능과 평생의 노하

우를 그대로 살려서 선교지에서 점목하고 있다. 학교 사역, 침술 사역, 농장 사역과 교회 개척 사역, 현지 여행사 운영을 통해서 한국과 교류계 함으로 무슬림의 젊은이들에게 세계를 보게 하고 있다. 코메리칸 실버 선교사들은 산전수전 공중전까지 겪은 인생의 베테랑들이다. 맨손으로 미국 땅에서 오늘을 개척한 성공자(파이오니어)이다. 일선에서 접었던 날개들을 실버 선교를 통해서 활짝 펼칠 수 있다. 제 3세계 선교사들도 이제는 대체적으로 연륜이 깊어지면서 실버세대로 돌입하고 있다. 이제라도 모든 지역교회가 현장에서 은퇴한 실버 파워들을 일깨워 사명자로 무장시켜야 한다. 아침에 솟는 태양도 힘차고 보이지만 온 천지를 황홀하게 물들이는 저녁노을은 오직 셋셋만이 가능하다. 이제 곧 오픈하는 36기 가을학기 개강 준비를 서둘러야 한다.

jykim47@gmail.com

# 푸/른/초/장

장경호 목사 (Only One Church)



어떤 그리스도인이 친구들과 함께 대화를 나누는 가운데 친구로부터 이런 질문을 받았습다. "만약에 외판 섬에서 홀로 남게 된다면 그리고 오직 한 가지의 책만을 가질 수 있다면 어떤 책을 선택하겠나?" 그러자 그리스도인의 친구가 옆에 있다가 "분명히 성경책일거야"라고 하자 그리스도인은 고개를 저으며 "아니"라고 답했습니다. 그러자 다른 친구가 "그럼 재미있는 소설책을 고르겠구만" 하자 다시 고개를 저으며 "아니"라고 답하며 "만약에 내가 태평양의 외판 섬에 혼자만 있게 되고 단 한 권의 책을 선택해야 한다면 나에게 필요한 책은 '배를 만드는 방법'이란 책이야"

이같이 하나님의 생각과 판단은 우리와 다르며 그것은 우리의 약함을 사용하시어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는 데서 잘 나타냅니다. 물론 하나님은 바울의 지성, 삼손의 용맹, 모세의 지도력과 같은 강함을 사용하시기도 하지만 기본적으로 하나님은 우리의 약함을 통해서 역사하신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고린도전서 1:27에 "하나님께서 세상의 미련한 것들을 택하시지

사무엘이 다윗을 기름 부을 때 도저히 왕이 되기 어려워 보이는 보잘 것 없는 어린 아이였으며 이새의 아들 가운데서도 막내인 그를 선택하셨고, 사사기에 나오는 기드온도 가장 약한 지파에서 선택되어 미디안 십삼만오천 군사를 삼백명의 군사로 물리치시게 하시는 것에서도 이를 잘 알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 쓰임 받은 많은 믿음의 조상 가운데는 정말 보잘것없고

도 하고, 불안정한 인간관계일 수도 있으며, 가축일 수도 있습니다. 내 의지로 바꿀 수 없는 이러한 것들을 우리는 먼저 하나님께 내어놓아야 합니다.

많은 사람은 자신의 약점을 은폐하려고 하는 바 이것은 자신의 약점을 공개할 때 남들에게 진다는 적자생존의 논리 때문입니다. 그러나 믿음의 자녀들인 우리들은 이러한 우리의 약점을 밝히고 공개할 때 비로소 강해질 수 있습니다. 그 이유는 우리가 비록 질 그릇에 불과하지만, 그 속에 놀라운 하나님의 보배를 담고 있기 때문입니다. 능력의 심히 낮은 것이 내 안에 있지 않고 하나님께 있는 것을 알기 때문에 우리의 약함을 인정하고 드러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약하고 부족하고 아

닙니다. 오히려 이것을 통하여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도록 하는 통로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람은 자신의 약함을 인정할 때 기도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기도는 교만할 때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기도하지 않는 것은 기도를 할 줄 모르기 때문이 아니라 교만하기 때문이라는 말을 읽었습니다. 하나님을 필요로 하지 않고 나 혼자서도 잘 살 수 있다는 교만이 있기에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다. 오히려 기도할 때가 언제입니까?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가 아닙니까? 바로 우리의 약함과 부족함을 인정할 때가 아닙니까? 기도한다는 것은 바로 우리의 약함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본능적으로 약함을

구성될 때 최강팀이 될 수 있다고 합니다. 나 혼자 모든 것을 채울 수 없음을 인정하고 남을 도우고 섬길 때 큰 힘을 발휘할 수 있습니다. 강함은 나눌 때 경쟁심이 생기나 약함은 나눌 때 공감대가 형성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함을 주시는 이유는 서로가 공동체라는 의식을 가지고 서로 섬기게 하기 위해서라고 생각합니다.

이제는 고인이 되셨지만 개신교의 유명한 신학자며 전도자인 존 스토트 목사가 아르헨티나에서 현지인 목회자 세미나 개최했는데 참석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때, 여러 가지 아르헨티나의 사회적 문제를 논의하다가 어떻게 하면 기독교인들이 이와 같이 부정과 부패가 심한 사회를 개혁시킬 수 있는가를 물었습니다. 그때 존 스토트 목사는 이와 같이 답변하셨습니다. "저는 혼자입니다. 그러나 세상 사람들 가운데 한 사람입니다. 저는 모든 것을 다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어떤 일들은 할 수 있습니다.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내가 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할 일을 할 때는 하나님의 은혜로서 하겠습니다"

여러분은 교회를 위하여 무엇을 할 수 있으십니까? 두 손을 놓고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라는 푸념을 하나님은 원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두 손을 모으고 "나는 아무것도 할 줄 모르나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을 하나님의 은혜로 행하게 하시옵소서"라고 기도하시길 원하십니다.

고정관념을 깨고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은혜와 우리를 통하여 이루실 크고 놀라운 일들을 기대하며 기도로 우리들의 약함을 하나님께 드리는 성도 여러분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chkho69@gmail.com

# 하나님께 쓰임 받는 비결

### 고린도후서 12:1-10

헤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의 약한 것들을 택하시어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라는 말씀 하시며 얼마나 우리 인간들의 생각과 다른지를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우리 같으면 강한 자를 찾고, 지혜있는 자를 찾는 것이 순리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처럼 하시지 않으시고 우리들의 생각과는 달리 약한 자를 택하십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왜 하나님께서 이와같이 약한 자를 사용하시는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저는 그 이유가 하나님의 능력을 약한 자를 통하여 드러내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특별한 목적이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연약한 자들을 들어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자들에게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사용하실 때 이들은 순종하였습다. 하나님의 뜻에 따라 헌신하며 충성하였습다.

그러면 어떻게 연약한 우리가 하나님께 쓰임을 받을 수 있었습니까?

1. 첫 번째 단계 : 우리의 약함을 인정해야 합니다.

약함이란 우리의 삶 가운데 선천적으로 가지고 있는 것을 의미할 수 있습니다. 즉, 개인에 따라 신체적 조건일 수도 있고, 때로는 부족한 지성이기

무것도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의 복음을 전할 수 있다면 더 큰 은혜가 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쓰임 받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의 약함을 인정하여야 합니다. 이것은 바로 우리들의 자존심을 하나님 앞에 내놓는 것입니다. 우리들의 열등감을 내놓는 것입니다. 우리들의 부끄러움을 내놓는 것입니다. 두 손을 들고 하나님께 나는 아무것도 아님을 인정하는 겸손한 모습입니다.

2. 두 번째 단계 : 약함 가운데 하나님의 도움을 구해야 합니다.

약하다는 것이 다 나쁜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우리들의 모든 단점이 약한 것이 아

갑추나 사도 바울은 평생 자신의 약함 때문에 기도했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쓰임을 받기 위해 바울과 같이 우리의 약함 가운데 하나님의 도움을 구해야 합니다.

3. 세 번째 단계 : 다른 사람의 장점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잘난 사람은 다른 사람에게 독선과 교만을 나타내 보임으로 인해 많은 사람에게 상처를 줍니다. 그러나 약함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동역할 줄 알고 남을 품어줄 줄 압니다. 최강의 농구팀은 5명 전부 최상의 선수로 구성된 팀이 아니라 최상의 선수 몇 명과 뛰어난지 않은 나머지 선수로

## 통일에 무관심한 한국의 젊은...

(3면에서 계속)

그는 "남북한 언어 차이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통합해야만 남북한 주민들 간의 정확한 소통이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젊은이들을 교육하고 개혁하는 것 또한 네번째강의 청소년 교육 책임자인 남 대표가 우선 순위로 삼고 있는 일이다. 남 대표는 현재 남한 학생과 탈북 청

소년을 대상으로 캠프와 견학을 진행하는 '삼수령 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지금까지 약 1,000명의 12세에서 18세 사이의 청소년들이 이 센터를 방문했으며, 공립학교와 해외 거주 청소년들의 방문이 증가하고 있다고 남 이사는 말했다.

학생들은 그곳에서 "한반도의 역사와 아픔"에 대해 이야기하고, "이 땅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은 분단된 땅이 아니라 통일된 땅이며, 이는 회복을 말한다"

고 남 대표는 말한다. 또한 북한에서 사역했거나 북한을 방문한 선교사들을 만나 함께 기도 산행을 하기도 한다.

남 대표는 통일을 위한 사역을 하면서 몇 가지 도전에 직면하고 있다. "Z세대와 밀레니얼 세대의 한국 크리스천들은 시간이 없습니다. 기독교와 교회에서 진행되는 통일 교육은 대부분 행사 위주입니다. 그리고 그 행사도 대부분 정보 전달이나 설교 위주의 집회입니다."

2020년 문을 닫은 네번째강 사업의 '생명의 강' 학교 출신 탈북학생과 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캠프를 운영하던 중, 한 탈북 학생은 자신이 어디에서 왔고 어떻게 남한에 오게 되었는지 아무도 물어보지 않아 당황스러워했다. 생명의 강 학교의 한 학생은 "궁금하긴 한데, 그냥 여기 온 것만으로도 충분해요!"라고 대답했다.

"생명의 강 학교 학생들의 태도는 매우 감동적이었습니다.

탈북민이라는 특정한 시각으로 바라보지 않고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며 서로에게 마음을 열었습니다."라고 남 대표는 말했다. "에스겔서 37장에는 통일한국이 되기 위해 전제되어야 할 조건에 대해 설명되어 있다. 즉 마른 뼈가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통일을 이루기 위해서는 마른 뼈와 같은 나와 내 가족, 교회가 영적 부흥이 필요한 것은 "그러므로 통일을 위해 우리

가 준비해야 할 것은 기도와 사랑이 충만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영화감독 김선우 씨를 비롯한 남한 크리스천들도 남 대표의 희망에 찬 신념에 공감했다. "우리가 성령을 의지하고 성령을 통해 일하기로 선택한다면 성공적인 통일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믿습니다."라고 그는 말했다.

"한 영혼이 한 나라의 경제보다 더 소중하다고 믿습니다."

By Isabel Ong, CT



새라김 사모 (TVNG 설립자, TVNEXT.org)



### 학부모의 권리를 차단 및 통제하는 악법들을 막는 새크라멘토 집회에 초청합니다!

8월 21일, 딱 하루만 자녀를 보호하기 위해 최~고 영향력 있는 시간투자를 하세요!



더 이상 방관, 조심, 낙관이 아닌, 행동과 실천으로 자녀들을 보호해 주세요!

디트리히 본회퍼는 "실천은 생각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책임질 준비를 하는 데서 나온다"라고 이야기 했습니다. 참으로 맞는 말이라고 믿습니다. 다음 세대인 우리 자녀들의 미래를 책임질 준비는 부모들의 실천을 통해서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이번에 그런 기회를 다시 한번 만들었습니다. 전체 스케줄 오전 9시 - 4시 장소: 새크라멘토 주청사 앞 시간: 등록 & Training 오전 9-10:40 (Sheraton Hotel) 집회: 오전 11시 (주청사앞) 두번째 Training & 의원 만나기: 2시 - 4시

시간이 없습니다. 지금 막지 않으면 캘리포니아와 미국은 사사기 시대보다 더 패

우리들의 메시지는 분명합니다. 캘리포니아 주정부가 공립교육과 자녀들의 미래인 사회 문화를 통제하며, 1)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우리 자녀들의 정체성을 무너뜨릴 뿐 아니라, 2) 하나님의 창조질서를 모독하고, 3) 하나님의 원리원칙을 무시하고 죄를 정당하는 악법을 합법화 시키며, 4) 자녀들을 가장 잘 알고, 사랑하는 학부모들의 "자녀 정체성 보호 권리"를, 캘리포니아 시민들이 뽑아준 의회의원들이 법적으로 부모들의 권리를 보호해야 한다는 메시지입니다!

학부모의 권리를 차단시키고, 통제, 불이익을 받게하는 악법들 반대 모임! A.B.665: 주정부가 완전히 통제하게 되는 자녀 정체성 교육에 대한 "학부모권리 차단" A.B.957: 자녀 양육권에 있어서, 트랜스 자녀를 인정하는 부모편만 들어야 하는 주정부 판사의 의무. A.B.1078: 지역 교육 위원회(Local School Boards)에 대한 주정부의 통제 - 즉, 성경적 가치관을 가진 학부모나 성경적 성경체성을 지지하는 학교 교육 위원회를 주정부가 통제하는 발의안.

지금 캘리포니아 전체적으로 가까이는 우리가 살고있는 커뮤니티, 더 나아가 공공장소들, 공공 사회가 우리 자녀들에게 더 안전해졌는지, 더 위험해졌는지 둘러보시기를 바랍니다.

한때 온세계가 부러워하고 오고 싶었던 캘리포니아에 있는 최고의 여행 도시들인 샌프란시스코 같은 곳이 지금 어떻게 변했는지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이미 지난 10년간 우리 자녀들의 공교육에 있어서 교사들과 학교들로 하여금, "학부모들이 알 필요가 없다" "학부모에게 알릴 필요가 없다" "학부모들에게 알리지 마라" "학부모의 허락이 필요없다" 라는 악법들이 차근차근, 계속 통과 되어 왔습니다.

따라서, 이미 Minor Consent (미성년자의 권리)라는 이름아래, 십대들의 임신, 낙태, 백신접종, 성교육, 사회정치교육 등에서 "학부모권리"는 야금야금... 조금씩, 정부 공교육에 빼앗긴 상태입니다.

또한, 작년에 통과된 AB101 Pupil instruction: high school graduation requirements: ethnic studies,는 이름은 "Ethnic studies - 인종공부"라고 소개되었지만 매우 왜곡되고 반기독교적인 사회 정치 내용을 들어야만 고등학교 졸업장을 받을 수 있게 합니다.

성교육에 있어서 SB48(2010년), AB329(2015년), CA Health & Sex Edu.(2019년) 그리고 2014년 Youth & Health Minor Consent 부터 시작하여 수많은 학부모들의 권리를 차단시키는 Minor Consent 법안들이 통과되면서, 학부모가 교육내용을 미리 알 권리, 교육내용을 거부할 권리, 이미 교육내용으로 고통받는 자녀에 대해 학교에 항의할 권리 등등이 계속 무너져 왔습니다. 왜냐하면, 항의를 하면 돌아올 불이익에 두려움을 갖게 하는 악법들이 동시에 통과되어 왔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번에 막아야 할, 위에 알려드린 법안들은 마지막 남은 한 가닥의 "학부모 권리" 까지 차단할 뿐 아니라, 대놓고 정부가 직접 통제하게 되는 발의안 들입니다. 학부모들에게 두려움을 더 조성하게 할 것입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TVNEXT.org 에 가시면 포스터와 자세한 내용을 보실 수 있습니다. 오실 수 있는분들은 TVNEXT.org@gmail.com 으로 연락주세요.



역해지고 죄의 결과물로 여러분의 자녀들, 차세대는 치명적인 고통을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참고로, 저희 TVNEXT (다음세대 가치관 정립 & 보호)단체는 캘리포니아와 미전역에서 지난 13년간 반기독교(Anti-Christian), 반가정(Anti-Family), 반생명(Ant-Life), 반민주주의(Anti-Freedom), 반성경적인(Anti-Biblical Values) 악법들을 막는 일에 앞장서왔습니다. 이 선한 일에 TVNEXT 보다 먼저 시작한 미국단체들과 연합하여 이번에 또 한번 학부모의 권리를 차단시키는 악법들을 막기위한 Lobby Day 와 집회를 새크라멘토에서 갖습니다.

A.B.5: LGBTQ 를 인정하지 않는 학부모들의 profile을 만들게 하는 "교사 훈련" 의무화. 즉, 동성애를 인정하지 않는 학부모를 교사들로 하여금 검색/정보에 리포트 하게 하는 것입니다.

학부모들은 육적(영적) 부모들입니다. 학부모가 자녀들 정체성 양육, 성교육, 의료에 대한 최종 결정권을 가지고 있으며, 정치인들이 학부모를 대신하여, 자녀교육 결정에 간섭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겠다고, 확실한 메시지를 알려야 할 때입니다.

더 이상, 잠잠히 구경만 하고, "관찰하지 겠지"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계시다면, 그렇게 생각하고 지냈던 지난 13년간, 캘리포니아가 더 좋아졌는지, 아니면 험악해졌는지를 둘러보시기 바랍니다.

Q&A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신앙상담 이정현 목사 설비치사랑교회 / (310)749-0577 TLspc0316@gmail.com

Q: 목사님, 앞으로 2주 후에는 저의 아버지가 돌아가신 지 1주기를 맞이하게 됩니다. 그래서 가족들이 모여 가정예배에서 추도예배를 드리려고 하는데, 용어 사용에 있어 추도예배라고 해야 하는지요. 아니면 추모예배라고 하는 것이 좋은지요? 그리고 어떤 방식으로 예배를 드리는 것이 좋은지요? - 다이아몬드에서 Kim 집사가

### 추도예배인가, 추모예배인가

A: 돌아가신 부모님의 기일이면 그날 가정예배는 추모예배가 되는 것입니다. 추도(追悼)라는 용어보다 추모(追慕)라는 용어가 더 성경적으로 옳다고 봅니다. 추도(追悼)라는 말은 어원상 애도(哀悼) 등과 같이 슬퍼한다는 것에 강조점을 주는 단어입니다. 물론 그리스도인이 돌아가신 부모님을 생각할 때 사랑하는 분을 눈앞에서 볼 수 없으므로 슬픈 마음이 든다는 것은 지극히 자연스러운 일이지만 그리스도인들은 소망없는 불신자들처럼 지나치게 슬퍼하여서는 안 됩니다. "형제들이 자는 자들에 관하여는 너희가 알지 못함을 원치 아니하노니 이는 소망 없는 다른 이와 같이 슬퍼하지 않게 하려함이라"(살전 4:13) 그러므로 추도라는 단어보다 추모라는 단어를 사용하는 것이 옳다고 봅니다.

한국의 조직신학자인 이승구 교수의 "교회 그 그리운 이름"이라는 책을 보면 추도라는 단어보다 역시 추모가 좋다고 밝혔습니다. (P.345) 추모예배에는 돌아가신 고인의 신앙과 성품과 평소의 아름다웠던 삶을 기억하면서 그것을 추모(追慕), 추억(追憶)하며 기린다는 뜻으로 추모라는 용어를 확산하는 것이 좋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예배는 삼위일체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가 중심이 되어야 하므로 추모 예배도 이 모임의 중심이 추모의 대상이 아니라 우리들의 예배를 받으시는 삼위일체 하나님이 되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므로 추모예배는 1부로 삼위일체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로 드리고 찬송, 사도신경, 기도, 성경봉독, 설교, 주기도문 등으로 예배를 인도합니다. 그리고 제 2부로 추모식으로서 어른 중에 한 분이 추모대상자의 약력을 소개하고 추모대상자의 신앙과 인품과 삶 가운데 기억할 만한 이야기를 나누는 것으로 진행되어져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1부가 예배이고 2부가 추모식이라는 말입니다. 추도식을 통해 주님 품에 계신 분의 신앙을 다시 회고하며 생전에 교훈을 되돌아보고 후손들이 그렇게 살 것을 다짐하며 주님이 다시 오시는 날까지 말씀대로 올바르게 살아가도록 은혜를 구하는 것이 자연스럽고 아름다운 일입니다.

추모 예배 시에는 사진을 준비하는 일은 있을 수 있으나 촛불을 켜거나 향을 피우는 일은 삼가해야 합니다. 음식을 차릴 때 예배 전에 차려놓는 것을 금해야 하며 음식은 예배 후에 가족들과 함께 나누는 것이 좋습니다. 시간도 제사처럼 밤늦게 정하는 것도 피하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그리고 죽은 분의 부인이 되는 분을 미망인(未亡人) 일고 부르지 말아야 합니다. 예수 믿고 돌아가신 분은 고인이라고 부르는 것도 좋지만 "하늘의 부르심을 입으신, 혹은 주님의 부르심을 입으신, 하늘에 계신 하나님과 함께 있는" 등으로 풀어 쓰는 것이 좋다고 봅니다.

## 세계한인기독언론협회 주최

# 제9회 신앙도서 독후감 모집

해외 한인 크리스천들이 양질의 신앙도서를 읽고 믿음과 삶, 그리고 사역이 보다 영적으로 성숙해 가기를 바라는 취지에서 본 언론협회는 제9회 신앙도서 독후감 공모를 아래와 같이 실시합니다. 많이 참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 1. 대상: 한국을 제외한 해외 거주 한인 평신도, 목회자, 선교사, 사모 등
2. 방법: 추천도서 6권중 한권을 선택하여 읽은 후 독후감을 제출하되 분량은 레터사이즈 3페이지(글자크기 10포인트, 줄간격 160%)이며 제출 마감은 2023년 10월 31일(오후 5시) (미 서부시간 기준)
3. 제출처: 이메일 wkcmmailbox@gmail.com으로 제출하되 응모자의 이름, 직분, 출석교회, 전화번호, 거주지 주소를 꼭 명기해 주십시오
4. 시상: 심사위원회를 거쳐 선정된 최우수상 1명, 우수상 2명, 장려상 3명을 11월 15일경 발표합니다. 이들에게는 상장과 함께 각각 US \$500, \$300, \$200씩의 부상이 전달되며 선정된 독후감은 본 협회 회원사들의 지면 및 인터넷 신문과 방송을 통해 발표됩니다. 시상식은 12월 초에 로스앤젤레스에서 열립니다.
\* 참가자 전원에게는 참가상이 주어집니다
\* 이미 수상 경력이 있으신 분은 3년 동안 수상대상에서 제외됨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천 도서

Grid of book covers including 'The Prodigal God', '새와 백합에게 배우라', '목상과 기도', '인음을 묻는 딸에게, 아버가', '사랑하노라 힘든 당신에게', '특별한 부르심 특별한 이름'.

회원사

남미복음신문(상파울, 브라질), 미주기독신문(시애틀, 미국), 미주기독교방송(LA, 미국), 미주복음방송(애나하임, 미국), 미주크리스천신문(뉴욕, 미국), 아멘넷(뉴욕, 미국), 크리스찬 투데이(LA, 미국), 크리스천 리뷰(시드니, 호주), 크리스천 미디어(시애틀, 미국), 크리스천 위클리(LA, 미국), 크리스천 타임스(샌프란시스코, 미국), CHTV 크리스천 헤럴드(LA, 미국), 크리스찬 저널(시카고, 미국).

후원

기독교서적 323-737-7699 www.koramdeo.com 북음사 562-865-4949
도서구입처 두란노서원 213-382-5400 www.duranno.us 도르가 서점 714-636-7430
말씀사 714-530-2211 www.lifebook.co.kr

주최: 세계한인기독언론협회 (회장 이영선목사) World Korean Christian Media Association

사/모/단/상



송정임 사모 (버지니아 St. John's UMC)

'그' 길로 걷다

정기구독으로 매 월 받아 읽는 한국 웹 매거진은 여성월간지 특성에 맞게 다양한 패션, 뷰티, 인테리어, 자녀교육 등의 내용들과 여성건강에 대한 유익하고 흥미로운 글과 기사가 많다. 특히 요즘 많이 느끼게 되는 것은 건강에 관한 글과 기사들이 예전에는 암이나 노화로 인한 신체적 질환에 관한 기사가 많았다면, 요즘에는 우울증, 불면증과 같은 정신적 질환을 위한 예방과 치료 도움 방법을 많이 실고 있다는 것이다. 이번 달 잡지를 읽는데 걷기

가 주는 건강유익에 관한 글이 있었다. 하루 만보걷기가 주는 유익은 이미 많이 알고 있고 직접 실천하는 사람들도 주위에 많다. 걷기는 관절에 부담이 적은 운동이고, 고강도의 운동과 비교하여 관절에 가해지는 충격이 적어 부상의 위험이 낮다고 한다. 그래서 다른 운동에 비해 모든 연령층과 체력 수준의 사람들에게 적합한 운동이다. 심폐 건강 향상, 근육과 관절 강화, 체중 관리와 다이어트, 스트레스 해소와 정신 건강 증진, 관절 부담이 적어 많은 혜택을 얻을 수 있다.

이렇게 접근하기 쉽고 효과적인 운동방법 걷기를 통해 건강한 라이프스타일을 유지해볼라고 독자들을 독려했다. 글을 읽는 중 오랫동안 나의 눈과 마음을 멈추게 한 사진과 글이 있었다. 눈부시게 하얀 눈으로 가득 덮인 광활한 북극땅을 지팡이 한 개와 함께 걸어가는 한 에스키모인의 뒷모습 사진과 <에스키모인들이 화를 식이는 방법>이란 글이었다.

'에스키모 인들은 화가 나면 무작정 걷는다고 한다. 아무 말 없이 화가 풀릴 때까지 얼음 평원을 걷고 또 걷는다고 한다. 그렇게 한참을 걷고 또 걸어 화가 다 풀리면 그때 비로소 멈춰 서서 지금까지 걸어온 길을 다시 걸어 되돌아온다고 한다. 그래서 돌아오는 길은 뉘우침과 이해와 용서의 길이라고 한다.'

빠르게 변화하고 진화하는 사회와 일상 속에 타인으로 인해 또 나 스스로에게 얼마나 화가 나는 일이 많은지 모르겠다. 가정에서, 직장에서, 학교와 교회에서 운전하면서, 심지어 습하고 더운 날씨로 인해...

나 또한 요즘 작은 것에 쉽게 짜증과 화를 내는 나의 모습에 놀라고 후회를 할 때가 많다. 어디까지 걷고 돌아온다는 목표지점이 있는 걷기가 아니다. 자신의 화가 다 풀릴 때까지 걷고, 또 걷다가, 돌아오는 길엔 뉘우침과 이해와 용서의 길을 걷는 에스키모인들의 걷기가 우리 모두에게 필요한 시대이다.

그렇게 걷기에 대한 생각을 하다 보니, 그 누구보다 그 삶 전체를 통해 걷고 또 걸으신 <예수님>이 계시다. 성경에 예수님 시대에 이용하던 말과 마차, 수레 등을 예수님께서 이용하셨다는 구절은 없다. 바다에서 제자들과 함께 사용하신 교통수단 배와 생의 마지막 길을 위해 잠시 빌려 뒀던 어린 나귀 한 마리 외에 땅에서 행하신 모든 만남과 말씀과 기적은 모두 예수님께서 흘길과 사막길, 군중이 가득한 도시길, 조용한 산길과 갈릴리 바다까지 걸으실 때 나타났었다. 이렇게 모든 예수님의 생애는 걷기였다. 성경의 수많은 구절은 우리의 삶이 예수님과 함께 걷

고 있다면 새 소망과 영혼의 기쁨이 넘치는 사랑과 감사가 충만한 길이라고 얘기한다. 우리의 길을 이미 아시고 그 길을 예비하시는 주님과 함께

하는 한걸음! 한걸음! 우리 삶이 승리의 결승점에 다다를 그 때까지 예수! 그 길로 걸어가리! songjeongim@gmail.com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찬송가 430장

주와 같이 길가는 것 즐거움 일 아닌가 우리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밟겠네 한걸음 한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어린이가 같은 우리 미련하고 약하나 주의 손에 이끌리어 생명 길로 가겠네 한걸음 한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꽃이 피는 들핀이나 험한 골짜기라도 주가 인도 하는 대로 주와 같이 가겠네 한걸음 한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옛 선지자 예녹같이 우리들도 천국에 들려올라 갈 때 까지 주와 같이 걸겠네 한걸음 한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인터넷 뉴스

Internet News

산불로 교회 잃었지만, 그들은 예배를 멈추지 않았다

마을 전체를 초토화한 화재로 교회 건물은 불타 없어졌지만, 예배는 멈추지 않았다. 교회는 건물이나 사람이 모이는 곳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듯 말이다. 하와이 마우이섬의 그레이스침례교회의 산불 화재 이후 첫 주일 예배 이야기다.

미국 뉴욕타임스는 하와이의 마우이섬을 휩쓴 최악의 산불 이후 첫 주일인 13일 리하이나의 그레이스침례교회에서 37여km 떨어진 와일루쿠의 한 커피숍에서 마련된 임시 강단에서 드려진 이 교회 예배 모습을 14일 상세히 보도했다. 리하이나는 산불 피해가 집중된 마우이섬 북서쪽 해안 도시다. 이날 예배가 열린 커피숍에는 간이 강단이 있고, 그 옆에는 기저귀와 먹거리, 세면도구 등 기부 물품이 쌓여있었다. 교회는 쓰나미나 허리케인 경보가 있던 과거 재난-위기 상황에서 지역 주민의 피난처 역할을 해왔다. 그러나 이번 화재로 50년이 된 건물은 잿더미로 변했다.

아르자 브라운 그레이스침례교회의 담임목사는 이날 예배 설교에서 시련을 거둬들여 겪은 성경 인물 읊을 인용했다. 그는 "하나님은 결코 실수하지 않으십니다. 저는 오늘 그것을 믿습니다"고 말하면서도 하나님의 뜻을 아직 헤아릴 수 없다는 취지의 말도 덧붙였다. 이번 화재로 집마저 잃은 브라운 목사는 "교회는 건물이 아닌 사람이 모이는 곳"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성도들이 나 같은 죄인 살리신(Amazing Grace) '복의 근원 강림하시(Come, Thou Fount of Every Blessing)'등을 찬양했고, 시편을 낭독했다. 예배 중 눈물을 흘리는 이도 있었다고 뉴욕타임스는 전했다. 성도들은 화재 당일 목숨을 잃을 뻔했던

경험을 나누며 하나같이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고 입을 모았다.

이 교회에서 30년간 사역한 해리 티민스 부목사는 교회 건물에 재건되기 이전 성도들은 마을로 돌아가서 교회 인근에서 텐트를 치고 예배를 드리게 될 것이라고 뉴욕타임스에 전했다.

'루블화 폭락' 러시아, 기준금리 12% 인상... '추가 인상 가능'

러시아 중앙은행이 기준금리를 8.5%에서 12%로 인상했다. 인플레이션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최근 폭락하는 러시아 루블화 가치를 방어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15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 등에 따르면 러시아 중앙은행은 이날 물가 안정에 위협을 제거하기 위해 이같은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기준금리를 3.5%포인트 인상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러시아 기준금리는 8.5%에서 12%로 상승했다. 러시아 중앙은행은 성명에서 "인플레이션 압력이 커지고 있다"며 "루블화 가치 하락이 물가로 전이되는 속도가 빨라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러시아 중앙은행은 인플레이션을 고려해 기준금리를 추가로 인상할 수 있다고 밝혔다. 러시아 중앙은행은 다음달 15일 회의를 열고 기준금리 추가 인상안을 논의할 방침이다.

이번 결정은 최근 러시아 루블화 대비 달러 환율이 달러당 102루블로 약세를 보이는 가운데 나왔다. 금리 결정 이후 루블화는 달러 대비 약세를 보이며 96.83까지 하락했다.

캐피털 이코노믹스(CE)의 리암 피치 선임 신흥시장 이코노미스트는 "이번 금리 인상은 러시아의

출혈을 일시적으로 늦출 뿐"이라며 "러시아는 자본 유입을 유지하기 위해 고군분투할 것"이라고 로이터에 말했다.

광복절에 태극기 게양한 뉴욕시장... "한인, 뉴욕 발전의 근간"

세계 금융의 중심지인 미국 뉴욕 한복판에 태극기가 게양됐다. 광복 78주년을 맞아 한인 청년들과 태극기 게양식을 연 에릭 애덤스 뉴욕시장은 14일(현지시간) "뉴욕은 미국의 서울"이라며 "한인 커뮤니티는 누구보다 지역 사회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고 말했다.



뉴욕시에 따르면 애덤스 시장은 이날 맨해튼 볼링그린파크 내 '돌진하는 황소상' 앞에서 "한인들은 뉴욕시를 발전시키는 데 헌신을 아끼지 않았다"며 "세계의 금융 수도인 맨해튼, 특히 볼링그린파크에 국기를 게양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전 세계인에게 메시지를 보내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자신의 문화를 잃지 않으며 새로운 문화를 받아들이는 포용성이 이 도시에서 실천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한국계인 케빈 김 뉴욕시 중소기업청장은 "뉴욕 경제의 많은 부분이 한인 소유의 24시간 연중무휴 영업에 의존하고 있다는 것을 공식적으로 확인한 순간"이라며 의미를 부여했다. 한인 청년 단체 재미차세대협의회(AAYC)는 2021년부터 3년 연속 황소상 앞에 태극기를 게양했다.

중, 유엔 안보리 '북한인권회의' 개최 반대

한·미·일 3국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 북한 인권회의의 개최를 요청한 것과 관련해 중국이 반대 의사를 밝혔다. 한·미·일 3국은 그러나 안



건 채택에 찬성하는 다른 이사국을 충분히 확보해 회의 개최가 가능할 것으로 전망했다. 중국 유엔대표부 대변인은 14일 "중국은 안보리가 그런 회의를 여는 데에 부가가치가 없다고 본다. 이에 반대할 것"이라며 "안보리의 의무는 인권이 아닌 국제 평화와 안보의 유지"라고 밝혔다. 로이터통신이 보도했다.

중국 측은 "북한 인권에 관한 안보리 회의는 권한 밖의 일"이라며 "인권 문제를 정치화하고, 대립과 적대감을 심화하는 역할을 할 뿐"이라고 주장했다. 앞서 한·미·일 3국과 알바니아는 북한 인권 관련 회의를 오는 17일 개최할 것을 유엔 안보리에 요청했다. 린다 토머스-그린필드 유엔 주재 미국 대사는 지난 10일 뉴욕 유엔본부에서 기자들과 만나 "북한의 인권탄압 문제는 국제 평화와 안보 문제에 밀접하게 연관됐다"며 "우리는 북한 정권의 인권 탄압과 침해가 불법적인 대량살상무기와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의 발전을 촉진함을 알고 있다"고 말했다.

북한인권회의의 개최 여부는 절차투표를 거쳐 결정될 것으로 예상된다. 절차투표에서는 상임이사국의 거부권이 없고, 이사국 15개국 중 9개국 이상이 찬성하면 안건 채택이 가능하다. 러시아도 반대할 가능성이 크지만, 한·미·일 측은 추진에 필요한 최소 9개의 투표권을 이미 확보한 것으로 확인하고 있다고 미 고위 관리는 설명했다.

황준국 유엔주재 대사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북한이 대화와 협상에 응하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인권 문제의 안보리 공식 의제화는 북한의 정책과 행동을 바꿔나가기 위한 압력을 행사하는 유일한 방법"이라며 "우리에게 북한 인권 문제는 안보 문제이기도 하다"고 말했다.

안보리에서 북한 인권회의가 열리는 건 2017년 12월 이후 약 6년 만이다. 황 대사는 "공식 회의가 개최된다고 하더라도 결과물을 내기 어려울 것"이라며 "북한 실상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고 많은 나라가 규탄에 동참하도록 하는 게 지금 상황에서 북한 인권 개선을 위해 우리가 할 수 있는 거의 유일한 방법"이라고 말했다.

하와이 산불사망: 사망자 93명

(1면에서 계속)

"라하이나는 수많은 추억을 품고 있는 곳입니다. 우리의 가족, 친구들은 모든 것을 잃었거나 여전히 (실종된) 사랑하는 이들을 찾고 있습니다."

지난 8일 시작된 산불은 건조한 여름과 하와이 인근 해상에서 허리케인이 이동하면서 들이닥친 강풍으로 순식간에 번져나갔다.

그린 주지사에 따르면 허리케인으로 인한 돌풍은 시속 130km의 속도에 달해 화염이 분당 1마일(약 1.6km)씩 이동하도록 부채질했고, 이로 인해 사람들이 탈출할 시간이 거의 부족했다.

현재 상당 부분 산불이 진압된 가운데, 초토화된 라하이나 지역을 포함한 일부 지역에서 여전히 불씨를 완전히 진화하기 위한 작업이 이어지고 있다.

현재 당국은 훈련받은 탐지견을 동원해 해안 지역을 살살이

뒤지며 잔해 밑에서 사망자를 찾고자 애쓰고 있다. 존 펠레티어 마우이 경찰서장은 감정이 격해진 목소리로 현재 전체 수색 지역의 3%만이 작업이 완료됐다면서 "그 누구도 이 크기를 이해하지 못한다"고 언급했다.

한편 미 '연방 재난 관리청(FEMA)'의 고위 관료인 제레미 그린버그는 BBC와의 인터뷰에서 도시 수색 및 생존자 구조, 화재 진압 등에 필요한 추가 지원이 이어지고 있다면서 "생존자의 안전이야말로 단연 최우선 과제"라고 설명했다. 그린버그는 아직 연락이 닿지 않는 이들이 1000명이 가깝다면서도, 이중엔 안전하게 몸을 피했으나 여러 가지 이유로 연락이 닿지 않는 이들도 있다고 언급했다.

한편 마우이 '전쟁 기념관' 관내 주차장에 마련된 긴급 대피소에선 지난 12일 피난민 수백 명이 자원봉사자들로부터 음식, 세면도구, 의료 서비스 등을 지원 받았다.

자원봉사자 수는 계속 늘어나는 추세다.

현황이 적힌 대형 화이트보드의 공지에 따르면 가장 필요한 물품은 배터리, 물, 발전기이며, 의무는 더 이상 필요하지 않다고 한다. 이곳 긴급 대피소의 키아포 비센 책임자는 시간이 지나면서 가족의 실종을 신고하거나, 혹은 찾았다는 신고가 이어지면서 실종자 수 명단은 계속 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곳 주차장에서도 많은 이들이 가족과 다시 만났다"는 비센 책임자는 "이러한 가족 상봉은 현재 이 상황에서 긍정적인 부분"이라고 언급했다. 한편 이번 산불로 파괴된 것으로 추정되는 건물 2000여 채 중 대부분이 라하이나 지역의 주택일 것으로 보인다.

라하이바로 가는 주요 도로인 호노아필라니 고속도로는 12일 주민들에게 잠시 개방됐다가 다시 빠르게 폐쇄됐다. 그런데도 라하이바 주민 수백 명은 고속도

로에 줄 서서 통과되기를 바라고 있다. 해당 고속도로에서 줄을 서고 있는 주민 리즈 제르만 스키는 이러한 당국의 반응에 화가 난다고 했다. 자신도 이번엔 집을 잃었다는 제르만 스키는 "정부는 사람들을 돕는 데 방해가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다른 도로인 카헤켈리 고속도로는 개방돼 있으나, 지역 주민들은 이곳은 운전하기엔 너무 위험하다고 했다. 카헤켈리 고속도로는 라하이바 지역으로 가는 "뒷길" 정도로 알려진 곳으로, 겨우 차 한 대가 지나갈 수 있을 정도로 좁으며, 도로가 구불구불하고 경사가 가파르다는 설명이다. 마찬가지로 남아 있는 가족들에게 보급품을 가져다주려다 현재 호노아필라니 고속도로에서 통과되기를 기다리고 있는 주민 루스 리는 "트럭으로는 카헤켈리 고속도로를 지나갈 수 없다. 그곳은 절벽"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미 태평양재해센터(PDC)'와 워싱턴에서 하와이로의 구조 작업을 지휘하고 있는 FEMA에

따르면 이번 화재로 인한 마우이 섬의 재건 비용은 55억달러(약 7조3000억원)에 이를 것으로 보인다.

마우이 상공을 비행했던 헬기 조종사 리처드 울스텐은 BBC와의 인터뷰에서 항공에 정박 중이던 보트 대부분이 불에 탔으며, "역사적인 건물, 교회, 선교 건물 등도 모두 불타버렸다"고 전했다.

"상점과 레스토랑이 모여있던 주요 관광지인 역사적인 프론트 스트리트 등 모든 것이 다 잿더미로 변했습니다."

한편 마우이 카홀루이시에서 인쇄소를 운영하는 주민 펠리시 아 존슨은 이번 산불 피해자들을 돕기 위해 대규모 주민 대응팀을 조직하고 있다. 가족이 라하이바 지역 출신이라는 존슨은 수백 파운드에 달하는 기부 물품을 모았으나, 정부 검문소를 통과할 수 없었다고 설명했다.

존슨은 기부 물품을 전하면서 마주하는 참상보다도 당국에 기부 물품을 반입할 수 있게 해달

라고 간청해야 하는 부분이 감정적으로 너무 힘들다고 토로했다. "마음이 무너집니다. 왜 사람들에게 먹을 것을 주고 싶다고, 통사켜달라고 간청해야 하는 것일까요?"

존슨은 이 지역은 대부분 부두가 너무 심하게 파손돼 배로는 물자를 들여올 수 없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일부는 수영으로 해안까지 물자를 실어 나르기도 했다. 한편 존슨과 함께 물품 지원을 돕는 몇몇 청년들 또한 정부의 잘못된 관리와 관료주의를 지적했다.

브라다 영(25)은 "죽자는 너무 많은데 전사는 부족한 꼴"이라고 지적했다. 또 다른 남성은 "모두가 책임자이지만, 그 누구도 움직이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존슨과 자원봉사자 팀은 검문소를 통과할 수 있길 바라는 마음으로 다시 차에 올랐다. 한 남성은 취재진에게 하와이의 전통 인사법인 시카를 건넸다.

# 선교 안국 그 역사를 찾아서

## -8.15 해방 전 한인 선교사

손상웅 목사  
(한미교회사연구소 소장)



### 174. 조광원 (1897-1972)

조광원(趙光元)은 1897년 10월 21일에 강화도 온수리에서 성공회 교인이었던 아버지 조예복과 어머니 헤레나 사이에서 태어났다. 그는 막 N. 트롤로프(조마가) 영국 성공회 선교사에게서 강화도 온수리 성 안드레아 성공회 성당에서 영세 받고 영세명을 노아로 한 것 같다. 그 후 인천상업학교를 졸업한 후 은행원으로 직장생활을 하였고, '우리의 의기와 책임'이라는 제하의 글을 통해 기독교인으로서 감당해야 할 역사적 책임 의식을 강조하면서 민족의식을 잃지 않았다. 서울로 이주하면서 그는 서울 정동 성공회 성당에서 교리 문답 교사로서 활동했다. 1921년 4월에 정동 성공회 성당에서 열린 제3회 전도구 연합회에서 전도 계획 수립과 민주적인 성당 운영 그리고 평신도의 참여를 결정하였을 때 조광원은 전도 장려부 설치를 위한 기초 위원으로 선임되었고, 경성전도대를 조직하여 전국적으로 사경회와 전도 집회를 개최하여 성공회 성장의 새로운 단초를 마련하였다.



페이스와 화동이 함께 하여 최근 가장 멋있는 한국인 행사였고, 결혼식 후 학교 강당에서 축하 파티가 있었다. 그들은 성 누가 성공회 성당의 성가대원으로서 가장 열심히 전도인이었다.

성 누가 성공회 교인들은 대부분 가난하였지만 할 수 있는 한 헌금을 많이 하였다. 1925년 3월에 그들이 드린 헌금은 11달러 75센트였고, 성매리 성공회 성당 교인이 드린 7달러나 성 마가 성공회 성당 교인이 드린 6달러에 비하면 많았다.

조광원은 직전 평신도 지도자였던 조병오와 함께 교인들이 헌금한 건축헌금 1,800달러와 미국 성공회가 보조한 700달러로 1925년 5월 3일에 팔라마 지방의 '카노아 레인' 길에 새 예배당을 건축하고 입당 예배를 드렸다. 그리고 한국에 거주하는 한국인을 보조했고, 한국에 있는 교아원에 기부했다.

조광원은 신축한 성 누가 성공회 성당 안에 1906년부터 문을 열었던 국어학반을 세워 한국인 2세에게 국어를 가르쳐 민족의식을 고취했다. 이 국어학반은 1941년까지 계속되었다.

미국 위스콘신주 나쇼타에 있는 나쇼타 성공회 신학대학에서 신학

수업을 마친 조광원은 1928년 6월에 하와이 호놀룰루에서 존 D. 라모디 주교로부터 집사 신부 곧 부제 성직 안수를 받아 해외에서 성직을 받은 최초의 한국 성공회 사제가 되었다.

1930년 8월에 이승만 등이 호놀룰루에 '국어문화 및 역사 위원회'를 발기하였을 때 조광원은 민찬호 등과 함께 참여하였다.

조광원은 1931년 5월에 하와이 호놀룰루에서 S.H. 리틀 주교에게서 장로 신부 곧 사제성직을 받아 존 박 신부에 이어 미국에서 두 번째로 정회원 신부가 되었다.

그해 9월에 호놀룰루에 거주하는 인사들이 김유탉 의사의 집에 모여 한인 청년운동을 대대적으로 펼치기로 하고 임시 임원을 선정하였는데 조광원은 흥한식 등과 함께 이사원으로 선정되었다. 이 무렵 조광원은 성공회 성당을 중심으로 독립운동자금을 모금하여 임시정부를 지원했고, 박용만이 설립한 조선독립단에 가입하여 하와이 총지부 위원으로 활동하면서 태평양시사를 간행하였으며, 국민회에 가입하여 국민보 간행에 참여하였고, 1941년에는 한인 자위단을 조직하여 일본인 첩자를 색출하였으며, 독립자금을 모금하였다.

세계 제2차 대전이 한창이던 1944년 9월에 조광원은 미국 해병대 중군신부로 지원하여 2개월간 사이판 전투에 참전하여 대일 선전공작에 참여하여 통역관으로 복무하였으며, 일본군에 강제 징용된 한국인을 구출하였다. 짐 루카스 중군 기지는 그의 활약을 성조신문 전면에 실었다. 당시 사이판에는 한국인이 1,400명이 있었고, 인군 티니안에는 1,000명이 거주하였는데 이 중에 천주교 신자가 7명이었고, 개신교 신자가 6명이 있었으며, 독일이 지배한 적도 있었는데 루터교 신자는 한 사람도 없었고, 마젤란이 이곳에 온 후 가톨릭 성당은 있었는데 일본이 점령하면서 기독교 활동을 전면 중단하였다. 그는 매우 청명하고 조용한 그해 7월 2일 아침에 사이판에서 한국인들이 만든 강단에서 최초로 성공회 예배를 인도했다. 부상 당한 남녀 성인과 그들의 자녀들이 출석한 가운데 성찬식을 하였고, 짧게 복음을 전했다. 그리고 한국과 세계의 정세를 소개했다. 그는 북을 전파뿐만 아니라 일본군에 강제 징용된 한국인을 구출하는 활동도 하였다. 많은 한국이 울면서 그에게 함께 거주하면서 복음을 가르쳐 달라고 애걸하였지만, 사이판을 떠날 수밖에 없었다. 사이판을 떠난 그는 호놀룰루로 돌아와 성 누가 한인 성공회 성당 신부로 복귀했다.

1938년부터 성 누가 성공회 교인들이 새 성전을 건축하기 위하여 건



사이판에서 만난 두 한국 주부



성 누가 성공회 성당

축헌금을 모금하였다. 종일 일한 부인들이 저녁에 성당에 모여 음식을 만들었고, 젊은 사람들은 주중에 친구나 성당 교인들에게 팔았다. 하루에 초라한 한 끼만 먹으면서 건축헌금으로 450달러를 헌금한 CH홍은 조광원에게 '아시는 대로 제가 다리를 절여 자선을 받아야 할 처지인데 먹지 않고 하나님의 돈을 저축하여 하나님의 새집을 짓는데 헌금합니다'라고 말했다. 조광원이 은퇴한 다음 해인 1951년까지 성 누가 성공회 성당 교인들은 15,000달러를 헌금하여 1952년에 '가나티 레인' 길에 교당과 신부 주택을 건축하고 그해 7월 13일에 낙성식을 거행했을 때 홍교인의 헌금으로 성당 종을 마련하여 성당에 달았다. 그런데 조광원의 뜻에 따라 그가 어린 시절에 다녔던 강화도 온수리 성 안드레아 성공회 성당 비슷하게 성 누가 성공회 성당이 지어졌다.

1945년 8월에 조광원은 미군 군중신부로 한국에 파견되어 미군정 통위부의 미군 책임자 고문으로 2년간 활동했다. 한국에 간 지 다음 해 2월

에 전후한국구제회가 조직되었을 때 그는 고문으로 추대되었다. 1947년에 그는 다시 성 누가 성공회 성당으로 복귀하였다가 27년간의 시무를 끝으로 1950년에 은퇴했고, 이듬해 김은태 사제가 조광원의 사목을 이었다.

6.25전쟁이 나자 조광원은 한국으로 귀국했다. 그런데 일본 성공회의 초청으로 고베 교구 사제가 되어 1957년까지 사목하다가 그해 고향으로 돌아와 고향 온수리 성당 관할 사제로 시무하였다. 1960년 2월에 대한 성공회가 NCC에 가입하면서 그는 에큐메니컬 운동을 전개했고, 이듬해 9월에 성 미가엘 신학원이 성직 후보자 교육을 시작했을 때 가르쳤고, 이때 신자의 생활과 성인들의 생애 등을 출판했다.

조광원은 1972년 10월 7일에 향년 75세로 소천했다. 대한민국 정부는 1999년에 그의 독립운동을 기념하여 대한민국 건국훈장 애족장을 추서했다.

damien.sohn@gmail.com

## 세계로 뻗어가는 교회

# 서부(CA)교회안내

<p><b>감사한인교회</b></p> <p>담임목사: 구봉주</p> <p>주일 1부예배: 오전 7:30 주일 2부예배: 오전 9:30 주일 3부예배: 오전 11:30 한국대학생예배: 오후 2:00 금요찬양예배: 오후 7:30 새벽기도회: 오전 5:30(월-금), 오전 6:00(토) 영어예배: 오전 9:30, 11:30</p> <p>Tel: (714)521-0991, www.thankingchurch.com 6859 Knott Ave., Buena Park, CA 90620</p>	<p><b>나성순복음교회</b></p> <p>담임목사: 진유철</p> <p>주일 1부예배: 오전 7:30 주일 2부예배: 오전 9:30 주일 3부예배: 오전 11:30 주일 4부예배: 오후 1:30(영성) 주일영양예배: 오전 11:30 주일영양예배: 오후 7:30 수-금요일예배: 오후 7:30 새벽기도회: 오전 5:30(월-토)</p> <p>telgusa@yahoo.com / www.lbcg.com Tel: (323)913-4499, 1750 N. Edgemont St., L.A., CA 90027</p>	<p><b>남가주든든교회</b></p> <p>담임목사: 김현인</p> <p>주일 1부예배: 오전 9:0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E.M. Youth: 오전 11:00 주일 학교: 오전 11:00 금요찬양예배: 오후 7:30 새벽기도회: 오전 6:00(월-금)</p> <p>Tel: (213)481-2779 / facebook.com/srscsa 1645 Beverly Blvd., Los Angeles, CA 90026</p>	<p><b>남가주사랑의교회</b></p> <p>담임목사: 노창수</p> <p>주일 1부예배: 오전 7:20 주일 2부예배: 오전 9:20 주일 3부예배: 오전 11:20 주일 학교: 오전 1:20 영어권 (장소: KDC, 캠퍼드림센터) 1부: 오전 9:20 2부: 오전 11:20</p> <p>Tel: (714)772-7777, Fax: (714)772-0777 1111 N. Brookhurst St., Anaheim, CA 92801</p>	<p><b>대흥장로교회</b></p> <p>담임목사: 김정훈</p> <p>주일 1부예배: 오전 8:3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주일영양예배: 오전 9:30, 11:00 새벽기도회: 오전 6:00(월-토) 금요찬양예배: 저녁 7:30</p> <p>Tel: (310)719-2244, www.dkcoc.org 1511 N. Gadenia St., Gadena CA 90248</p>	<p><b>디아스포라선교회</b></p> <p>Korean Diaspora Mission Center</p> <p>대표: 전영자 목사</p> <p>"세계속에 흩어져 있는 우리의 동족을 위해 일하는 선교회"</p> <p>주일예배: 오후 2:30</p> <p>Tel: (213)559-7728 (전화 팩스 전용), Tel: (213)210-6890 2333 Beverly Blvd., L.A., CA 90057</p>
<p><b>미주양곡교회</b></p> <p>담임목사: 지용덕</p> <p>주일 1부예배: 오전 8:3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주일 3부예배: 오전 11:30 수요예배: 오후 7:00 새벽기도회: 오전 5:30(매일)</p> <p>Tel: (213)380-9377, 9079 519 S. Western Ave., L.A., CA 90020</p>	<p><b>미주평안교회</b></p> <p>담임목사: 임승진</p> <p>주일 1부: 오전 8:30 주일 2부: 오전 9:45 3부: 오전 11:00 (청년부) 4부: 오후 1:45 새벽기도회(화-토): 오전 6:00</p> <p>Tel: (213)381-2202, www.mpcsa.org 170 Birmin Pl., Los Angeles, CA 90004</p>	<p><b>복음장로교회</b></p> <p>담임목사: 이광형</p> <p>주일 1부예배: 오전 9:0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영양예배: 오전 2:00(대학부) 금요일예배: 오후 7:30</p> <p>Tel: (562)694-6214 1751 W. La Habra Bl., La Habra, CA 90631</p>	<p><b>베델한인교회</b></p> <p>담임목사: 김한오</p> <p>주일 1부예배: 오전 7:15 주일 2부예배: 오전 9:15 주일 3부예배: 오전 11:30 영양예배: 오후 2:00 성인영양예배: 오전 9:15, 11:30 금요일예배: 오후 7:30(대학부) 일일예배: 오후 1:30(수영예배), 오후 7:30 주일학교: 오전 9:15, 11:30</p> <p>Tel: (949)854-4010 / bible@bdc.org / www.bdc.org 18700 Harvard Ave., #A Irvine, CA 92612</p>	<p><b>세계세망교회</b></p> <p>담임목사: 오세훈</p> <p>주일 1부예배: 오전 8:3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주일 3부예배: 오전 1:30 수요예배: 오후 7:30 금요일예배: 오후 8:00 새벽기도회: 오전 5:30(월-토)</p> <p>Tel: (213)-225-7691 824 W. Valencia Blvd., L.A., CA 90015</p>	<p><b>세계선교회</b></p> <p>담임목사: 김장섭</p> <p>주일 1부예배: 오전 8:0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교회학교예배: 오전 11:00 E.M. 예배: 오전 11:00 금요일예배: 오후 7:30(대학부) 새벽예배: 오전 6:00(월-토)</p> <p>Tel: (213) 388-1927 / www.wmccsa.com / webmissionchurch32@gmail.com 927 Menlo Ave., Los Angeles, CA 90006</p>
<p><b>실비치 사랑교회</b> (Seal Beach Se-Feng Church)</p> <p>담임목사: 이정현</p> <p>주일예배: 오전 11:00 수요예배: 오후 6:30</p> <p>Tel: (310)749-4756 실비치 리저널드 Clubhouse 3 Lobby/우일 Clubhouse 3 room (1F)</p>	<p><b>열매교회</b></p> <p>담임목사: 김요섭</p> <p>주일 1부예배: 오전 8:30 주일 2부예배: 오전 11:30 수요예배: 오후 7:00 새벽예배: 오전 6:00(화-토)</p> <p>Tel: (323)737-3009, Cell: (213)215-8523 1938 S. Western Ave., Los Angeles, CA 90018</p>	<p><b>엘피스지역원</b></p> <p>원장: 박순송 목사 (LA복음연합장로교회총무이사)</p> <p>성경사목: (월-금) 오전 9:45(분당) 사역대상: 1. 여성사역자 2. 교회 평신도 여성리더</p> <p>사역: 1. 목회상담 2. 가정사역세미나 3. 알뜰사역 4. 네트워킹사역</p> <p>www.elpisfamily.org Tel: (562)694-9828 1200 S. Manhattan Pl., L.A. CA 90019</p>	<p><b>은혜한인교회</b></p> <p>담임목사: 한기홍</p> <p>주일 1부예배: 오전 7:30 주일 2부예배: 오전 9:20 주일 3부예배: 오전 11:30 주일 4부예배: 오후 2:00 금요성경강화: 오후 8:00 새벽기도회: 오전 5:30(월-금), 6:00(토) 문화예배: 오후 7:30(대학부) 문화예배: 오후 7:30(대학부)</p> <p>Tel: (714)446-6202, www.groceim.org 1645 W. Valencia Dr., Fullerton, CA 92833</p>	<p><b>주님세운교회</b></p> <p>담임목사: 박성규</p> <p>주일 1부예배: 오전 8:0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주일 3부예배: 오후 1:30(청년) 주일 학교: 오전 11:00 새벽기도회: 오전 5:30(월-토) 성경대림회: 오후 7:20(금)</p> <p>Tel: (310)325-4020, www.junimchurch.com 17910 Prairie Ave., Torrance, CA 90504</p>	<p><b>주님의영광교회</b></p> <p>담임목사: 신승훈</p> <p>주일 1부예배: 오전 8:00 주일 2부예배: 오전 10:30 주일 3부예배: 오후 1:00 수요/금요일예배: 오후 7:30 새벽예배: 오전 6:00(월-금)</p> <p>Tel: (213)749-4500, www.gccic.org 1801 S. Grand Ave., L.A., CA 90015</p>
<p><b>좋은마음교회</b></p> <p>담임목사: 신원규</p> <p>주일 1부예배: 오전 7:30 주일 2부예배: 오전 10:00(영어) 주일 3부예배: 오전 11:45 주일학교: 오전 11:45 목요기도회: 저녁 8:00 새벽기도회: 오전 5:30(화-금), 오전 6:00(토)</p> <p>Tel: (714)646-9259 www.socalsamsungchchurch.org 111W Las Palms Dr., Fullerton, CA 92835</p>	<p><b>코너스톤 교회</b></p> <p>담임목사: 이종용</p> <p>주일 1부예배: 오전 9:0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수요예배: 오후 7:30 새벽기도회: 오전 5:30(화-토)</p> <p>Tel: (310)530-4040(CH), www.cornestonch.com 24428 S. Vermont Ave., Harbor City, CA 90710-2303</p>	<p><b>토렌스조은교회</b></p> <p>담임목사: 김우준</p> <p>주일 1부예배: 오전 9:00(분당) 주일 2부예배: 오전 9:45(분당) E.M. 예배: 오전 9:45(101호) 주일 3부예배: 오전 11:30(분당) K.M. 청년예배: 오후 2:00(분당) 수요예배: 오후 8:00(분당) 새벽예배: (월-토) 오전 5:30(분당)</p> <p>Tel: 310-370-5500, www.torancejoc.org 19650 Mariner Ave., Torrance, CA 90503</p>	<p><b>하늘사망교회</b></p> <p>담임목사: 김덕수</p> <p>주일예배: 오전 11:00 새벽예배: 오전 5:30(월-금) 오전 6:30(토)</p> <p>수요일: "어성경이 읽어지네" 오전 9:30 오후 7:00</p> <p>Tel: (213)500-2948, dockkim@biola.edu 3416 W. 1st St., L.A., CA 90004</p>	<p><b>미주크리스천신문 과 함께할 후원회회를 찾습니다</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L.A.: Tel: (323)665-0009 lachpress@gmail.com</li> <li>■ N.Y.: Tel: (718)886-4400 nychpress@gmail.com info@chpress.com</li> </ul> <p>세계로 뻗어가는 복음신문</p>	<p><b>미주크리스천신문 과 함께할 후원회회를 찾습니다</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L.A.: Tel: (323)665-0009 lachpress@gmail.com</li> <li>■ N.Y.: Tel: (718)886-4400 nychpress@gmail.com info@chpress.com</li> </ul> <p>세계로 뻗어가는 복음신문</p>

기독교 명저로의 초대



이윤석 목사 (NY 부르클린제일교회)



존 오웬(John Owen)의 기도에서 성령의 사역 (The Work of the Holy Spirit in Prayer)

명상기도의 형식의 본질과 사역에 대한 간단한 질문

[오웬의 머리말] (2)

4. 예배에 사용되는 형식화된 기도 문들에 포함된 여러서는 요소들(1)

1) 기도는 문예를 미신적으로 만드는 수단이 되었다.

교회에 의해 처음 예배에 받아들여진 기도문들은 시대를 거둬들이면서 미신적이고 타락한 이교도적이고 교리들이 더해졌다. 모든 개혁교회는 그런 이교도적이고 타락한 교리들이 점점 교회 안에 들어왔다는 것에 대해 충분히 알고 있었으며, 그런 인식이 바로 종교개혁의 기초가 되었다. 최초로 받아들여진 내용에 인위적으로 새로운 요소들이 더해지면서 그것들은 점점 교회의 예배 안으로 들어오게 되었으며, 사람들의 마음을 사로잡는 모습을 가지게 되었다. 그로써 가증스런 화체설(Transubstantiation)이나 미사의 희생(the sacrifice of mass)은 바로 이런 과정을 통해 교회의 예배 안으로 들어오게 되었으며, 여러서는 사람들의 마음을 사로잡게 되었다. 이로 인하여 미신적으로 교화하며 사변적인 사람들의 논쟁들은 그리스도인들의 마음을 오염시켰으며, 마침내 온 세계의 가시적인 교회에 널리 퍼져 있는 이상 숭배의 수단이 되었다. 그리고 이런 가증스런 것들이 표현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그림을 그리듯이 묘사된 형식적인 기도문들은 그들의 미신적이고 무지한 마음에 강력하게 영향을 미쳐서 그들로 하여금 이런 기도문을 받아들이도록 했으며, 점점 그리스도인들을 여러서는 완고함으로 굳어지게 만들었다. 왜냐하면 비록 그들이 교리적으로 화체설이나 미사에 믿을 만한 근거나 이유를 보지 못했고 그들이 보통 사람들과 그리스도인들의 모든 행동 일리들, 즉 믿음과 이성과 감각에 모순이 된다는 것을 쉽게 알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 스스로 현혹되어 받아들인 것들을 맹목적으로 믿고 있었기 때문이다. 이런 이상한 것들이 교회에 들어올 때, 자신의 이성이나 믿음, 감각을 사용하여 제대로 비판하지 못함으로, 오히려 이것들이 교회 안에 서서히 들어와 마침내 자리를 잡았고, 이와 더불어 형식적인 기도문들이 계속해서 예배에 사용되었다. 이것들은 그들의 모든 영혼을 오염시켰다.

2) 형식적인 기도문을 통해 마음이 이상숭배에 마비되어 갔다

성찬에 관한 교리들과 교회에서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는 서서히 부패되어, 그것들이 가진 진리나 오류를 객관적으로나 교리적으로 즉시 받아들이지도 거절하지도 않게 되었다. 오히려 형식적인 기도문들의 사용과 더불어 서서히 교회 안에 들어와 자리를 잡았다. 이것은 사람들의 신앙과 이성, 감각을 마비시켜, 진리가 아닌 것을 받아들이도록 하는 약을 먹은 것과 같았다. 이상숭배의 기초가 되는 것들, 곧 화체설과 미사의 희생은 그 내용이 잘 표현되어 있는 형식적인 기도문들을 통해 육신에 속한 사람들의 마음이 이상숭배에 완전히 마비될 때까지 크게 영향을 미쳤다. 왜냐하면 모든 종교의 신앙에 있어서 영혼이 환상과 상상에 의해 사로잡히고 외적인 의식에 의해 동요되면, 항상 그랬듯이 세상 사람들의 의식은 마비되고 결국 이상숭배로 끝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의도적으로 만들어진 형식적인 기도문들이 보편적으로 받아들여지지 않았더라면, 이상숭배와 같은 예배가 교회 안에 들어와 일반적이 되는 것은 전적으로 불가능했을 것이다. 또한 그것에 동의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피를 흘린 수많은 거룩한 사람들의 희생을 막을 수 있었을 것이다. 교회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사도들이 주었던 자유를 제대로 사용했다면, 교회 안에 잘못된 것들이 들어오는 것을 막을 수도 있었을 것이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의 영혼을 삼키고 피를 마신 이 미사리는 괴물은 오랜 세월 동안 세상에서 행위를 떨치면서 그 가장한 모습과 힘을 가지게 되었다.

3) 형식적인 기도문은 예배에 대해 인간적인 방법을 상상하게 만들었다

일반적으로 외적인 질서에 의해 진리가 변질되는 곳에는 왜곡된 진리들이 기도문의 형식을 빌려 빠르게 퍼져 나가게 된다. 그리고 몇몇 부류의 기독교인들이 오늘날 사용하는 다양한 예배 의식들은 그들이 신봉하는 오류가 포함된 신앙의 교리들을 성도들의 마음에 심어주는 것 외에 다른 용도가 없다. 그러나 하나님은 예배와 예배의 방법에 관해 사람들이 상상하는 것을 경멸하신다. 그들은 하나님께 주신

방법을 무시하고 마차에 실은 법계가 흔들릴 것 같으니 손으로 그것을 붙잡으려 했던 웃사와 동일하다. 화체설과 희생의 미사와 이와 더불어 행해지는 모든 가증스런 예배는 바로 이 방법으로 만들어졌다. 이런 예배는 의도적으로 만들어진 형식적인 기도문들을 사용하는 것에서부터 시작되었고, 이와 더불어 세상은 이런 가증스런 것들에 대해 저항한 성도들과 순교자들의 피로 물들게 되었다. 어떤 교회도 그리스도로부터 성경에 의해 보증되지 않은 그런 형식적인 예배를 만들어 강요할 권한을 부여받은 적이 없다는 사실이 좀 더 일찍 드러났다면, 수많은 악이 예방되었을 것이다. 왜냐하면 초대교회에서 오랫동안 어떤 예배의 식에도 만들지 않았으며, 그것들을 사용하도록 강요하지 않았다는 것은 그들이 미사와 예배에서 그 어떤 성상(image)들도 사용하지 않았음을 증명하기 때문이다.

4) 인위적이고 미신적인 요소를 가져오게 되었다

형식적인 기도문들과 함께 교회 안으로 들어온 또 다른 악은, 이것들을 사용하는 사람들이 인위적으로 만들어진 여러 의식들에 얽매게 한다는 것이다. 이것은 모든 개신교들에 의해 고백되었듯이 예배에서 미신적인 요소들을 증가시켜 결국 예배를 이상숭배로 전락시키는 것이다. 그러나 예배에서 자유롭게 기도하는 것은 계시나 자연스러운 예배의 정황이 허락하지 않는 어떤 의식도 받아들일 수 없도록 한다. 하나님에 의해 정해진 의식들과 자연적인 빛은 올바른 예배를 드리는 데 필요한 규칙들이다. 그러나 형식적인 기도문들이 교회 안에 들어오면서 이런 규칙들은 불필요한 걸치레들에 의해 대체되고 말았다. 그리고 점점 외적인 자세와 몸짓, 의복과 음악, 절하는 것과 굽실거리는 것, 십자가를 굿는 것과 분향, 재단, 향상, 십자가 등과 같은 수많은 의식들이 들어와 예배를 어렵고 미신적이 되도록 만들었다. 이런 온갖 종류의 걸치레들을 행하는 것이 미사의 핵심적인 내용들이 되었다.

younsuklee@hotmail.com



성경적 성 가치관 교육

이영숙 박사

(좋은나무성품학교 대표)

성책임이란 무엇일까요?

좋은나무성품학교는 2015년부터 창조적 세계관을 가르치는 숲성품창조교육을 진행해 왔습니다. 특허받은 12가지 주제성품에 따라 봄, 여름, 가을, 겨울을 주제로 숲에서 다양한 동식물을 관찰하며 영성을 키우는 창조론적 숲생태교육과정입니다. 그중 딱따구리의 생태적 특징이 참 재밌습니다.

보통은 사람도 뾰족한 것으로 나무에 구멍을 내려고 하면 상당한 힘이 들어갑니다. 그런데 딱따구리는 나무에 찔러 달라붙어서 마치 숙련공처럼 작은 부리로 나무 동지에 구멍을 뚫습니다. 이때의 속도를 측정해 보니, 초당 무려 20번의 빠른 속도였다고 합니다. 충격량은 더 놀랍습니다. 미식축구 선수들이 상대와 몸을 부딪칠 때 가해지는 충격이 80g이라면, 딱따구리가 부리로 나무를 때릴 때의 충격은 무려 15배나 센 1,200g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지요? 딱따구리는 이렇게 큰 충격에도 뇌진탕에 걸리거나 두통을 호소하는 일이 없습니다. 비밀은 딱따구리의 두개골 구조와 독특한 허뼈에 있습니다. 딱따구리는 다른 새들에게는 없는 특이한 충격 흡수 적응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두개골의 화학적 구성과 밀도가 다른 조류와 달라서 두개골이 더 단단하면서도 동시에 충격을 잘 견디도록 도와줍니다. 게다가 딱따구리의 허에는 독특한 뼈가 있어 용수철 역할을 하는데, 이를 통해 엄청난 진동을 최소한으로 줄여줍니다.

이런 딱따구리에게 앵무새처럼 말하도록 요구하는 것은 어떻습니까? 간절히 원한다는 이유로 오리처럼 물갈퀴를 달아주면 어떨까요? 또는 고정관념을 깨고 이 모든 것들을 잘할 수 있도록 딱따구리의 구조를 아예 바꿔놓는 것은 과연 존중받을 만한 시도입니까?

유네스코의 <국제 성교육 가이드>는 다른 사람의 젠더 정체성에 대해 편견 없이 존중을 표현하도록 가르칩니다. 성적 지향(Sexual orientation)에 대한 고정관념은 젠더 기반 폭력(GBV)을 유발하기 때문에 대항하여 공개적으로 도전하게끔 명시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말할지 모릅니다. "성(性)이 평등한 게 뭐가 나빠요?", "편견 없이 대하는 게 왜 나쁜 거예요?" 그러나 늘 문제는, 우리가 살펴보지 않은 사각지대에서 발생하는 법입니다.

유네스코에서 설명하는 성평등(Gender Equality)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해석하는 남성과 여성을 폭격있게 대하는 의미의 '평등'이 아닙니다. 젠더 정체성이라 불리는 남성이면서 여성, 여성이면서 남성, 또는 교차적 성(alternate gender), 혼합적 성을 모두 인정하도록 요구하는 '평등'입니다.

이러한 포괄적 성교육(CSE)의 초창점이나 다름없는 15~18세 이상 연령에는 더 노골적인 학습 목표를 제시합니다. '동성애와 성전환에 대한 적대감은 다양한 성적 지향과 젠더 정체성을 가진 사람에게 해롭다', '차별 없이 원하는 사랑을 할 수 있어야 한다'고 가르칩니다. 이것이 유네스코가 세계적 추세인 포괄적 성교육(CSE)으로 강조하는 성평등 개념입니다.

한 번 생각해 보세요. 생물학적 특성에도 불구하고, 차별 없이 원하는 '젠더'와 사랑을 하기 위해 남성이면서 여성, 여성이면서 남성, 또는 교차적 성, 혼합적 성으로 자기 신체를 바꾸는 것이 우리 삶에 글로벌하게 장려되어야 하는 필수적인 존중입니까? 아무리 아름다운 것도 창조 질서에 위배되면 실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남자와 여자에게는 생태학적 특성에 따른 분명한 책임과 역할이 있습니다.

성책임은 "나뭇잎을 책임감 있게 보존하는 것으로, 소중한 생명을 얻기 위해 나의 성(性)을 건강하게 가꾸며 성장시키는 것(좋은나무성품학교 정의)"입니다. 남자, 여자, 제3의 성, 무한대까지 성의 종류를 늘려가며 모든 형태의 성을 인정하는 것은 평등과 존중이 아닙니다. 나를 남자 또는 여자로 태어나게 하신 창조주의 계획에 따라 나의 성(性)을 인정하고 기뻐하며, 나뭇잎을 보존하는 것이 성책임입니다. 나의 성(性)을 아름답게 가꾸고 건강하게 성장시키는 것이야말로 다음 세대에 반드시 전수해야 할 우리 인생의 진정한 책임감입니다.

다음 세대 성품교육과 좋아성(BSE) 성경적 성 가치관 교육, 시니어 목회를 위한 문의/상담은 201-693-1976, goodtreeusa@gmail.com로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goodtreeusa@gmail.com

Worldwide Church Directory (세계로 뻗어가는 교회) listing various churches across NY, NJ, and Hawaii with contact information and service times.



목회서신



박성규 목사 (주님세운교회)

오직 여호와시니이다

우리 한민족의 역사 가운데 8·15해방만큼 감격스러운 날도 없을 것입니다. 일본제국의 36년 식민생활이 너무나 고통

스러웠기 때문에 해방의 기쁨도 그만큼 컸던 것입니다. 당시 일본의 힘이 얼마나 강했습니까? 중국과 싸워 이긴

일본은 러시아와의 전쟁에서도 승리하여 세계를 놀라게 했습니다. 그 일본이 아시아를 손에 넣고 세계를 제패하려고 미국 진주만을 일시에 습격했습니다. 독일과 이탈리아와 동맹하여 제2차 세계대전을 일으켰습니다. 우리 민족이 어떻게 그 막강한 일본을 대적하겠습니까?

사회의 지도자 될 만한 사람들은 일본의 계약에 넘어가 친일파가 되고 항거하는 지도자는 모두 투옥되거나 고문으로 죽었습니다. 법도 인권도 없는 세상이었습니다. 나라의 미래는 전혀 소망이 없었습니다. 해방과 자유는 꿈은 꿀 수도 없었습니다. 정말 시편 4:1의 다윗의 고백처럼 "곤란"중에 처한 민족이었습니다. "협곡에서 포위된 군대"처럼 민족의 지도자들이 몰살당할 위기에 처해 있었습니다. 2차대전 종전 직전 일본은

패색이 짙어 갈 때 한국에 있던 일본 지도자들이 자주 비밀 회의를 가졌습니다. 일본이 이 전쟁에서 질 수밖에 없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런데 이 사실을 조선인들이 알면 3.1운동 같은 봉기가 일어날 것이 분명하니 이런 봉기를 일으킬 만한 조선의 정치지도자들과 종교지도자들을 모두 학살하기로 했습니다. 그 중 대부분이 기독교인들이었습니다. 그래서 모두 20만명의 학살자 명단을 만들었습니다. 이들을 전국적으로 일제히 죽일 수 있는 거사일을 1945년 8월17일로 잡은 것입니다.

죽이는 방법은 비행기를 띄워서 적의 비행기로 보이게 한 다음 공습경보를 울리고 그들을 모두 방공호로 대피시켜 히틀러가 했던 것처럼 독개스를 주입해서 죽인다는 계획이었습니다. 얼마나 잔인한 계획이었습니까? 공의로운 하나님께

서 이 악한 계획을 그냥 두실리가 없었습니다.

8월6일 미국 B29기가 원자탄을 일본 히로시마와 나가사키에 차례로 투하했습니다. 그때 죽은 일본 사람의 수가 20만명이었다고 합니다. 하만이 모르드개를 죽이려고 세운 장대에 자기가 달려 죽듯이 일본은 자신들이 관 구렁이에 자신들이 빠지게 된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의로우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바로 역사의 심판자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원자탄이 투하되고 1945. 8. 15 미국 군함 미조리 함상에서 연합군 사령관앞에 일본 천황은 무조건 항복하였습니다. 그래서 우리 민족에게 해방의 기쁨이 찾아온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생각해보면 조국의 광복은 바로 하나님의 전적인 선물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을 애굽땅 바로의 폭정

에서 건져내사 출애굽 시키신 하나님이 바로 우리 민족의 하나님이셨습니다. 포로 된 자를 자유케 하시고, 눌린 자를 해방시키시는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을 자유롭게 하셨고 8.17 대 학살을 막아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많은 수난의 역사를 거쳐 지금 전세계 경제 10위권 국가로 세계에 우뚝 세워주셨습니다. 그것은 세계선교의 마지막 주자로 대한민국을 택하셨기 때문입니다. 8·15해방 78주년을 맞으면서 "우리 조국땅에 해방을 주신 분은 오직 여호와시니이다" "우리 민족을 높이는 분은 오직 여호와시니이다" "우리와 우리 자녀들을 훈련시켜 장차 세계선교의 항공모함에 탑건으로 쓰시는 분은 오직 여호와시니이다"라고 하나님을 찬양하시기 바랍니다.

songkpk@hotmail.com



OC기독교전도회연합회 주최 제4회 선교사자녀 장학기금마련 골프대회 참석자들

제 4회 선교사자녀 장학기금마련 골프대회 성료

OC기독교전도회연합회, "60명에게 장학금 전달할 것"

OC기독교전도회연합회(이하 연합회, 회장 신웅)는 7일(월) 로스 코요테 컨트리 클럽에서 "제 4회 선교사자녀 장학기금마련 골프대회"를 성공적으로 마쳤다"고 알렸다. 2019년 1회 때 15명, 2021년 2회 때 52명, 2022년 3회 때 50명의 선교사 자녀들에게 장학금을 지원한 바 있는 연합회는 올해는 60명의 선교사 자녀들에게 장학금을 줄 계획이다.

이번 골프대회에는 OC한인회 조봉남 회장을 비롯해 CBMC 직전 총회장 황선철 한솔보험 회장, OC교협회장 심상은 목사, OC장로협의회장 김용진 장로, 한미지도자협회 풀치 등 오렌지카운티 지역 각계각층의 지도자들도 참여해 성황을 이뤘다.

신웅 회장은 "차세대 인재양성과 선교사역에 힘이 되어 드리자는 취지로 시작한 골프대회가 매년 좋은 성과를 거둬 선교사님들께 힘이 되는 것 같아 기쁘다. 물심양면, 십시일반 후원해 주신 기업체와 단체, 개인 성도님들, 연합회 이사님들과 자문위원들께 감사드립니다"고 소감을 전했다.

이어 윤우경 이사장의 환영 인사가 있었으며 OC교협회장 심상은 목사는 식전 행사에서 "건강하고 즐겁게 운동하면서 마음 가는 분은 선교사 자녀를 위해 마음껏 후원에 참여하시라"고 권면했다. 가주40지구 영김 연방하원의원의 축하의 말도 이어졌다. 이번 대회는 18

홀 전체 Shot-Gun 방식으로 진행됐으며 영예의 대상 메달리스트는 피터 윤, 챔피언은 남자부 John Song, 여자부 Gina Son이 차지했다.

저녁 만찬에는 선수 130여명과 스태프, 밴드 참여자 등 총 200여명이 참석해 골프대회 밴드와 더불어 광복 78주년 기념 감사예배를 드렸다. 신웅 회장의 사회로 국민의례에 이어 연합회 이사 전홍 장로가 대표기도 했다. 설교는 전 미기총 대표회장과 OC교협 회장을 역임한 민승기 목사가 맡아 "더불어 사는 공동체(롬 12:3-13)"라는 주제로 설교했다. 이어 OC한인회 조봉남 회장의 축사와 OC교협 심상은 목사의 대한민국만세 삼창으로 광복78주년 기념 감사예배의 분위기는 한층 고조됐으며 모든 순서를 은혜가운데 마쳤다.

연합회는 10월, 11월에 장학생을 선발해 12월 초에 장학금 전달식을 가질 예정이다. 장학생은 연합회 홈페이지(www.ockca.org)에 지원한 학생과 연합회가 선정한 교회의 추천을 받은 선교사 자녀를 대상으로 선정할 예정이다. 다음 5회 대회는 2024년 10월 23일에 Los Coyote에서 열 계획으로 이미 예약을 마친 상태다. 연합회 홈페이지는 www.ockca.org이며 이메일은 info@ockca.org, 유튜브 채널 OC기독교전도회연합회에서 자세한 것을 볼 수 있다.

(기사제공: OC기독교전도회연합회)

'진보' 기독교는 내가 떠났던..

(2면에서 계속)

그런데 문제가 생겼다. 들으면 들을수록, 내게는 재건에 필요한 도구가 없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내가 가진 모든 신념이 정밀한 조사를 위해 깔끔하게 분해되어 바닥에 노출되었다. 그런데 그것을 다시 어떻게 조립하면 된다는 지침은 전무했다. 재건이 결여된 신앙 해체는 게으르고 무책임하며 위험하고 고통시키는 일이었다. 해체의 목표가 단순한 자기 발견이나 미덕 과시에서 끝나서는 안 된다. 언제나 예수님을 향한 더 큰 신실함이 되어야만 한다.

The Liturgists의 여정이 진행됨에 따라, 그들은 정치적 좌파가 추구하는 진보 플랫폼에 점점 더 가까워졌다. 내 눈에 공화당이 말하는 것은 무조건 믿으라고 소리치던 보수 그리스도인들과 별반 다르지 않았다. 2016년 대선이 끝났을 때 나는 이상한 경험을 했다. 나는 국가에 대한 진보주의자들의 우려를 공유했지만, 그들이 손에 들고 흔드는 것은 어린 시절 보수 복음주의자들이 사용했던 것과 동일한 리트머스 종이였다. 단지 반대편 통로에서 있다는 게 다를 뿐이었다. 당신이 역사적인 기독교 성 윤리를 고수한다면, 이제 당신은 시대에 역행하는 편협한 사람이다. 낙태가 도덕적으로 잘못되었다고 생각한다면, 이제 당신은 반여성적인 사람이다.

진보주의자들은 그들이 경멸하는 근본주의자들만큼이나 근본주의자가 되었다. 단지 리트머스 종이의 색깔을 결정하는 것이 전통적인 가치에서 깨어남(wokeness)의 여부로 바뀌었을 뿐이다. 진보 정통주의의 정당 노선을 정확하게 밟지 않는다면, 이제 당신은 버림받은 사람이다. 바로 이단자 말이다.

'진보'라는 브랜드, 똑같이 알뜰한 외침

이제는 미국인에게 일종의 기본 신앙이 되어버린 도덕적 치료 이신론(moralistic therapeutic deism, MTD)의 위험성에 대해서 들은 적이 있다. 여기에 따르면 하나님은 당신에게 바라는 것은 슬픔 없는 품위 있는 삶이다. 그리고 하나님은 절대로 당신의 삶에 간섭하지 않는다. 애초에 내가 진보 기독교를 향해서 달려간 이유가 다름 아니라 그런 식의 천박한 믿음에 맞서기 위해서였다. 그러나 내가 찾은 것은 몇몇 용어만 다를 뿐 MTD와 하나 다를 바 없었다.

깨어남은 새로운 도덕이 되었다. 치료는 행복으로 가는 새로운 길이고, 취소 문화(Cancel culture)는 새로운 교회 규율이

되었다. MTD와 마찬가지로, 의미 있는 방식으로 당신의 삶에 어떤 것을 요구하는 개인적인 하나님은 여기에 존재하지 않는다. 얼마나 편리한가? 이런 식의 "진보적" MTD에서 남은 것은 이제 엘리자베스 길버트의 비유뿐이다. "하나님도 이제 당신과 마찬가지로 당신 안에 거한다." 나 자신과 하나님을 구별할 방법이 사라졌다. 이 패러다임에서 우리는 이제 신이 되었다.

그렇다고 내가 반-깨어남(anti-woke) 또는 반-치료를

내 스승 중 한 사람이 말했다. "우리는 빛 속에서 신학을 한다. 그래야 어둠을 만났을 때 신학이라는 발판 위에 설 수 있다." 나는 처음으로 삼위일체 교리와 통일된 이야기로서의 성경, 그리고 성경을 성경님의 영감을 받은 책으로 읽는 방법을 배웠다. 형벌 대속과 승자 그리스도와 같이 상호 모순된다고 생각했던 교리들이 온전하고 아름다운 성경적 그림을 형성하기 위해 실제로 어떻게 서로를 필요로 하는지 알게 되었다. 나는 그리스

때문에 어려워진 게 아니라 도리어 더 가능해졌다. 의심과 질문이 반드시 믿음에서 불신앙으로 진행되는 추진력에 의해서 움직여야 할 이유가 없다. 건강하고 사려 깊은 기독교 공동체에서 발생하는 의심과 질문이 참 포도나무(요한복음 15장)이신 그리스도와 끊임없이 연결되어 제대로만 다뤄진다면, 도리어 믿음을 더 깊게 하고 신앙의 뿌리를 더 튼튼하게 만들어 열매 맺는 삶을 생산할 뿐 아니라 세속적인 세상의 맹렬한 바람까지도 견딜 수 있도



의자(anti-therapy)라는 건 아닙니다. 구조적 불의는 현실이며 깨어남이 가져다주는 대화는 필요하다. 나는 대학에서 거의 2년 동안 정신과 치료를 받았고, 치료가 거의 모든 사람에게 도움을 준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삼위일체 하나님이 주시는 영원한 사랑을 깨어남과 치료를 대체할 수는 없다.

마크 세이어즈는 세계의 진보적 비전을 "왕 없는 왕국"으로 묘사한다. 우리 모두 하나님의 사랑의 다스림과 통치에 굴복하지 않으면서 하나님의 모든 축복을 원한다. 우리는 하나님의 임재가 없는 진보를 원한다. 우리는 하나님의 정의가 실종된 정의를 원한다. 우리는 죄인과 하나님 사이의 수직적 화해 없는, 사회를 위한 복음의 수평적 혜택을 원한다. 우리는 개인의 거룩함에 대한 하나님의 표준 없이 이 사회가 도덕적 순결에 대한 우리의 표준에 순응하기를 원한다.

정통 기독교로의 복귀

2016년 선거 이후 나는 신앙을 재건해야 할 때임을 확신했다. 몇 달 후, 두 가지 일이 동시에 일어났다. 나는 정식으로 신학 교육을 시작했고, 나를 키워주신 할아버지를 비극적인 사고로 잃었다. 그 죽음은 다시 한번 나를 극심한 고통에 빠뜨렸지만, 이번에는 또 다른 의미가 추가되었다. 신학적으로 그 고통을 받아들이는 게 쉽지 않았다.

도와의 연합과 그것이 가져다주는 모든 축복에 관해서 배웠다. 영적 훈련과 훈련된 방법으로 하나님을 추구할 때 흘러 나오는 생명을 주는 자유를 알게 되었다. 그리고 그 지점에 서부터 내 눈 앞에는 역사적인 기독교 정통이 가져다주는 넓고도 풍부한 새로운 세계가 열렸다.

내 이야기는 특별한 게 아니다. 사실 이런 간증은 점점 더 많아지고 있다.

목회자를 향한 나의 간청은 다음과 같다.

1. 유다는 "의심을 하는 사람들을 동정하십시오"(1:22)라고 말한다. 거친 대답이나 무시 또는 얕은 수준의 답변으로 의심이나 질문 또는 고민을 처리하려고 하지 말라. 어려운 질문일수록 인내심을 갖고 다른 형제들과 협력하여 포괄적이고 분명한 답을 주기 위해서 노력하라.

2. 기독교 전통의 풍요로움을 가르쳐라. 더 나은 삶을 위한 지침으로 기본 좋게하는 MTD 수준의 진부함에 안주하지 말라. 복잡한 질문에는 복잡한 답변을 제공하라. 역사상 가장 뛰어난 본인 예수님이 연민과 사랑과 은혜로 삶과 사회의 모든 측면에 어떻게 대응하셨는지를 제대로 보여주라.

우리 교회에는 시간이 갈수록 더 많은 신학, 위앙스, 은혜, 연민, 이해가 필요하다. 그리고 이제 이 모든 것이 정통 교리

를 도울 것이다.

모든 사람의 신앙 여정은 굴곡지고 복잡하다. 그러나 하나님은 하나님이며 그의 길은 우리가 한동안 그 길에서 벗어났을 때도 여전히 변하지 않는다. 오늘날의 세상에는 그 어느 때보다 더 많은 길이 있다. 이 세상은 다양한 영적 "깨달음" 또는 스스로의 믿음을 큐레이팅하도록 돕는 다양한 옵션으로 가득하다. 그러나 "오직 예수"라는 길 외에는 참된 행복과 영생으로 인도하는 길이 없다(요 14:6). 그 길은 우리가 원하는 것보다 좁지만(마 7:13)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것보다 훨씬 더 큰 만족을 가져다준다(시 16:11).

믿음의 여행 중에 내가 베드로와 함께 발견한 것이 있다. "하나님께서서, 우리가 그를 앞으로 말미암아 생명과 경건에 이르게 하는 모든 것을, 그의 권능으로 우리에게 주셨습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셔서 그의 영광과 덕을 누리게 해주신 분이십니다"(벧후 1:3).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필요한 모든 것을 가지고 있다. 생명을 찾기 위해 왜 "성도에게 단번에 주신"(우 1:3) 믿음의 경계를 떠나야 하는가? 예수님에게는 생명의 말씀이 있다. 그는 생명이시다. 진리이시다. 그리고 길이시다. 그분 외에 갈 곳이 어디 있겠는가?

by Ian Harber, TGC

Advertisement for The Korean Christian Press subscription. Includes title '미주 크리스천신문 구독문의', a table with subscription rates for 1 year (USA \$100, Europe \$240, Canada \$130, South America \$240, Africa \$240), and contact information for Los Angeles and New York offices.

# 동부교계 게시판

**퀸즈장로교회, 킹스아카데미 한국학교 등록**  
 퀸즈장로교회(담임 김성국 목사) 킹스아카데미 한국학교가 9월9일(토) 개강한다. 대상은 PreK부터 고등학생이며 등록은 교회 홈페이지에서 8/25(금)까지 하면 된다.  
 ▲ 문의: 전진영 전도사 (267) 476-2042

**[MA] 보스턴장로교회, 한국학교 개강**  
 보스턴장로교회(담임 장성철 목사)는 2023-2024년 학기 한국학교 등록을 8월14일-8월27일까지 받는다. 등록은 Google form 또는 예배당 앞에 신청서를 통해 등록하면 된다. 등록대상은 Kinder부터 12학년이며, 일정은 1학기 2023년 9월17일-12월3일, 2학기 2024년 1월21일-6월2일, 시간은 오후 1시30분이다.  
 ▲ 문의: 김성희, 한은경 집사 (508) 435-4579

**[MD] 벨엘교회, 시니어아카데미 가을학기 개강 등록**  
 벨엘교회(담임 백진종목사)는 2023년 벨엘 시니어아카데미 가을학기를 9월1일-12월1일 매주 금요일 오전 9:30분-오후 4시 13주동안 개강한다. 등록기간은 9월1일 (금)까지이며 등록자격은 55세 이상, 등록비는 \$100이다.  
 ▲ 문의: 백영준 교장(410) 908-8949 김희식 교감(301) 672-1832 박성심 교부(443) 632-7057

**[VA] 와싱턴중앙장로교회, 한글성경교실 등록**  
 와싱턴중앙장로교회(담임 류응렬 목사)는 한글성경교실(KBC) 2023-2024 학년도 등록을 받는다. 개강은 9월10일(주일), 등록마감은 8월27일(주일)이다.  
 ▲ 문의: 703-328-0424

**[VA] 워싱턴메시아장로교회, 메시아한국학교 개강**  
 워싱턴메시아장로교회(담임 한세영 목사)는 2023 가을학기 메시아한국학교를 9월9일(토)-12월16일(토) 15주간(매주 토요일)동안 진행한다. 모집대상은 K-7학년이며 선착순 60명으로 제한한다.  
 ▲ 문의: 교장 김중순 권사(703) 473-9896, 교감 이민이 집사(703) 798-0737

**동부개혁장로회신학교 부설 평신도 음악원 개설**  
 동부개혁장로회신학교(학장 김성국 목사)에서 2023 가을학기부터 부설 평신도 음악원을 다음과 같이 개설하며 수강자를 모집한다. 강사: 신동기 목사(하모니카 반), 김정윤 권사(키보드 반) 모집인원: 하모니카 반 20명, 키보드 반 10명, 기타 반 10명 대상자: 모든 성도(목사추천서 필수) 수업시간: 1학기 12주(12시간) 수강료: 키보드 반, 기타 반(\$300), 하모니카 반(\$200) 수강신청 마감: 9월 1일(금)  
 ▲문의: 김진정 행정실장 646-708-1101

**한눈에 보는 성경세미나**  
 박태규 목사(뉴욕새침장로교회 담임)의 한눈에 보는 성경세미나가 8월 22일(화)-10월 3일(화) 매주 화요일 오후 5시에 뉴욕새침장로교회에서 열린다. 등록비: \$250, 특전: 수료증 취득 및 21 학점(미국 내 신학대 인정) 대상: 누구나 참여 가능  
 ▲문의: jtp615@gmail.com, 718-840-8931

**뉴저지실버선교회 40기 실버훈련 학생모집**  
 뉴저지실버선교회(대표 양춘길 목사)는 8월28일(월)부터 12주간 진행되는 40기 실버선교 훈련원 교육생을 모집한다. 장소는 뉴저지 프라미스교회(담임 허연행 목사)이며 비용은 개인 \$100, 부부 \$150, 등록 마감은 8월27일이다.  
 ▲문의: 본부 훈련원 총무 이호진 집사 201-957-9300



대뉴욕지구한인원로성직자회, 광복절 78주년 기념식 후 사진촬영 했다

## 대뉴욕지구한인원로성직자회, 광복절 78주년 기념식 “있어야 할 자리에서 제때 있다”

대뉴욕지구한인원로성직자회(회장 한문수 목사)는 8월9일(수) 오전 10시 뉴욕만나교회(담임 정관호 목사)에서 정기예배 및 광복절 78주년 기념식을 열었다. 김택용 목사(부회장) 사회로 시작된 1부 예배는 기도 한재홍 목사, 특송 김봉규 목사(감사), 설교 고성민 목사(뉴욕기독교교회), 헌금기도 이승진 목사(사회), 축도 방지각 목사(분회 이사) 순으로 진행됐다. 고성민 목사는 “어디 있느냐? (창세기 3:8-9)”라는 제목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네가 어디 있느냐’ 물으신 것은 지리적인 위치를 몰라서가 아니라 안타까워하는 마음으로 물으신 것이다. 이 질문은 오늘 우리에게 동일하게 던져지는 하나님의 질문이다. 여러분 지금 어디에 계십니까? 라는 이 말씀을 기초로 자신은 ‘있어야 할 자리에서 제때 있다’라는 죄우명을 정했다”고 말하며 “그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곳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시간에,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해 드리는 자리에 있어야 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고 목사는 “우리

는 늘 자신이 어디에 있는지 살펴야 하고 내가 무엇을 하고 있는지 유의해야 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파괴되는 잘못된 일을 저지르는 것은 아닌지 스스로 점검하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2부 한문수 목사(회장) 사회로 시작한 광복절 78주년 기념식은 기도 이병수 목사(부회장), 애국가제창 지정은 사모, 미국 국가 제창 김영환 전도사, 임관순 선생이 인도했다. 이어 광복 78주년 기념사 김광석 회장(뉴욕한인회), 경축사 윤세용 목사(직전회장, KCBN 이사장), 축가 김영환 전도사와 임관순 선생, 축사 이준성 목사(뉴욕교회회장)와 김홍석 목사(뉴욕목사회장), 격려사 하정민 목사(여성목협의 회장)가 전했다. 이어 광복절 노래 제창을 한 후 유혜경 사모(유관순 열사 오빠 장손녀) 인도로 따라 만세 삼창을 외쳤다. 본 기념식은 한재홍 목사(교육부장)의 마감, 오찬기도로 모든 순서를 마쳤다. 이날 친교 및 오찬준비는 뉴욕기독교교회(담임 고성민 목사)에서 준비했다. <홍현숙 기자>



이승만 업적을 재조명하는 뉴욕한인대회 후 사진촬영을 했다

## 이승만 업적을 재조명하는 뉴욕한인대회 “건국대통령 업적 다시 생각하고 느끼는 시간 되길...”

이승만 건국대통령 기념사업회 미주총회(총회장 김남수 목사)와 뉴욕지회(회장 남태현 장로)는 8월13일(주일) 오후 5시 KCS 한인봉사센터에서 대 한민국 건국대통령 이승만 업적을 재조명하는 뉴욕한인대회를 개최했다. 노기승 목사(수석부회장) 사회, 국민의례로 시작된 대한민국 건국대통령 이승만 업적을 재조명하는 뉴욕한인대회는 개회사 김남수 목사(미주총회장), 인사 남태현 장로(뉴욕지회장), 인사 남태현 장로(뉴욕지회장), 기도 이종명 목사, 특송 뉴욕장로성가단, 축사 김의환 총영사(주뉴욕총영사), 김광석 회장(뉴욕한인회회장) 순으로 진행됐다. 김남수 목사는 “이번 대회는 한국 건국대통령 이승만 박사 기념사업회를 위해서 미주 전체를 보며 뉴욕에서 시작해서 시애틀, 샌프란시스코 그리고 해외 여러 지역에 있는 지회들을 순회하면서 애국 동지들과 교민들이 함께 모여서 조국을 위해 기도하는 순회 첫 번째 행사”라고 말하며 “귀한 시간을 내주시 여러분을 환영하고 감사드리고 함께 뜻있는 시간이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남태현 장로는 “이승만 건국대통령 업적을 다시 한번 생각

하고 느끼는 시간이 되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또한 애국신문 창간을 알리며 월간지로 많은 구독을 요청했다. 애국신문은 진실된 역사를 전하며 미주동포들과 나아가 전세계 한인동포들을 연결시키고 진정한 애국이 무엇인지 나타내 주고자한다고 기록했다. 이규학 감독(이승만전집 발간위원장)의 ‘영웅 이승만’이라는 주제의 강연으로 이어졌다. 이 감독은 “우리는 이승만 대통령의 후예들이므로 우리로 하여금 영적으로 경제적으로 세계를 이끄는 국가를 만들어야 한다”며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살리라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으니 생명을 주신 하나님 앞에 나라를 위해 헌신하는 역사가 일어나길 바란다”고 전했다. 이어 전민정 대표(제주 4.3 사건 재정립시민연대 대표)는 제주 4.3 사건의 쟁점, 사건의 성격들을 강연했다. 이날 이승만 대통령 참미, 이승만 건국대통령 기념사업회, 대한민국을 위한 만세3강을 한 후 김용걸 신부 축도로 모든 순서를 마쳤다. <홍현숙 기자>

## 뉴욕목사회, 설교세미나

### 본문이 살아있는 설교 핵심 기법 제시

뉴욕목사회(회장 김홍석 목사)는 8월14일(월) 오전 9시-오후 3시까지 퀸즈한인교회 바울성전에서 설교세미나를 열었다. 합신동문회와 퀸즈한인교회가 후원한 이번 세미나는 권호 목사를 강사로 초청하여 ‘본문이 살아있는 설교 핵심 기법’이라는 주제로 그의 저서 『본문이 살아있는 설교』를 중심으로 강의를 진행했다. 회장 김홍석 목사는 “신실하고 열정적인 목사도 설교에 대해서는 갈증이 있고 큰 부담일 것”이라며 “이번에 따뜻한 목사님을 보내주셨으며 목사님의 강의를 통해서 사역에 큰 도움이 되고 유익이 되기를 바란다”고 전하며 기도로 시작했다. 권호 목사는 “본문이 이끄는 설교의 세 가지 요소는 본문, 연관성, 적용이며 그중에 현대 설교에서 가장 중요한 주제로 집중적으로 토의되고 있는 것은 연관성으로, 이는 오랜 시간을 거친 텍스트를 오늘날의 상황에 연결하는 단계이다. 좋은

설교는 현대를 사는 우리가 왜 몇 천년 전에 쓰여진 본문을 들여야 하고 그것이 우리의 삶과 어떻게 연관되는지를 보여주어야 한다”고 말했다. 권 목사는 본문이 이끄는 설교를 위한 다섯 단계 △본문을 묵상하고 연구하라 △중심메세지를 발견하라 △연관성을 놓으라 △적용점을 제시하라 △설교 전달 형태와 방법을 결정하고 설교문을 작성하라를 제시했다. 또한, 에베소서 6:1-4, 출애굽기 13:17-21, 사무엘하 11:1-5의 본문을 중심으로 중심메세지(CMT)를 발견하는 훈련을 했다. 서은성 목사(뉴욕 효신장로교회 부목사)는 세미나를 통해 “설교 때마다 기억하여 적용할 수 있는 핵심(본문, 연관성, 적용)을 깊이 있게 들여다볼 수 있는 시간이었다고 이론에 그치는 것이 아닌, 그에 따른 설교 예문을 바로 소개해주므로 높은 이해도로 참여할 수 있는 귀한 시간이었다”고 말했다. <홍현숙 기자>



설교세미나 중 사진촬영을 하고 있다



목회자 가족 수련회 참석자들이 다함께 사진 촬영을 했다

## KAPC 뉴욕노회 목회자 가족 수련회

### “말씀으로 충만하라”

미주 한인 예수교장로회(KAPC) 뉴욕노회(노회장 임병순 목사) 목회자 가족 수련회가 엘렌빌에 위치한 Honor's Haven에서 “말씀으로 충만하라(요한복음 6:68)”는 주제로 8월14일(월)-16일(수)까지 열렸다. 첫날 저녁 집회에서 김성국 목사(퀸즈장로교회 담임)는 “목적이 분명했던 바울(빌립보서 1:20-24)”라는 제목의 설교에서 “바울은 감옥에서의 상처와 같은 많은 상처가 있었고, 천국에 빨리 가기 원했으나 자기 뜻보다는 주님이 주신 사명을 더 귀하게 여겼다. 그의 사명은 오로지 죽으나 사나 그리스도를 존귀하게 하는 것이며 다른 사람들을 유익하게 하는 것이었는데 그것이 바로 복음이다. 말씀의 충만함을 통해 우리의 사명을 회복해야 한다”고 전했다. <김재상 기자>

2박 3일간 열린 본 수련회에서 뉴욕노회 목회자들과 사모들은 예배, 찬양, 기도, 사역과 목회에 대한 논의, 산책과 나눔, 친교의 시간을 통한 은혜의 회복과 나눔의 시간을 가졌다. <김재상 기자>



영생장학회 제7회 장학금 수여식 참석자들이 기념 촬영을 했다

## 영생장학회 제7회 장학금 수여식 및 감사예배

필라델피아 영생장로교회(담임 백운영 목사)는 8월9일(수)에 제7회 영생장학회 장학금 수여식 예배가 열렸다. 장학위원장 문희준 장로의 사회로 진행된 1부 감사예배는 제무로 봉사하는 염태선 집사의 기도와 김희수 집사의 성경봉독에 이어 고아람 교육 목사의 말씀 선포로 이어졌다. 2부 장학금 수여식은 장학회 회계 송홍창 집사의 사회로 진

행되었으며 집회일정으로 타주에서 보내온 이용길 원로목사의 축하 영상과 동부개혁장로회신학교 학감 정기태 목사의 축사에 이어서 송홍창 집사가 각 장학금을 소개한 후 수여자들의 감사 인사 영상과 장학금 수여식이 진행됐다. 특별히 이날 장학금 수여자들에게는 지속해서 장학금을 후원한 후원자들이 직접 장학금을 수여했다. <정리: 김재상 기자>

**피종진 목사 8월 부흥성회**

○ **총신대학교 56회 동문회 회장**  
 ○ **연세대학교 총동문회 상임이사**  
 ○ **서울대학교 총동창회 이사**  
 ○ **한국뉴욕주립대학교 영어 연구원 동문회 회장**  
 ○ **미국 Philadelphia Faith 대학 총장 Carl McIntire(D.Min)**  
 ○ **미국 Henderson Christian University 총장 Henderson Belk(Th.D)**

**010-5255-7777**  
**Godbless3377@gmail.com**

1(화) 오후 1(화)~2(수) 서울 강남순교교회 (오승준 목사) 010-3942-8434 인천 소망교회 (최승리 목사) 010-6414-3307 주회: 미라클국제선교회 (대표회장 김수아 목사) 세종평화회(원장 피종진 목사) 서울 강남반석교회 (강서광 목사) 010-8331-3431 마산 광원세움교회 (이경호 목사) 010-5692-3775 인천 행복로가는교회 (최규석 목사) 031-472-0065 안양 갈멜산기도원 (담임 조성근 목사) 031-472-7212 분당 주영광교회 (전옥란 목사) 010-2445-1691 주회: 대한예수교장로회 개혁 대표총회장 (남보석 목사) 서울 새생교회 (신규식 목사) 010-6725-7040 서울 한국기독교 연합회관 한영산기도원 (원장 이영금 목사) 주회: 예수사랑부흥협의회 (대표회장 조유식 목사) 010-9957-6669 한국기독교회관 2층 대강당, 주회: (사)대한예수교장로회 총연합회(대표회장 이평용 목사) 진안군 임마누엘 냉천수영관 (원장 이광순 목사, 행정목사 박복주 목사) 010-4132-1191 강남금식기도원 (원장 최종인 목사) 교무부장 김진성 목사 010-3790-2462 17(목) 오후-저녁 대구 글로벌 신유복성회 (원장 김은수 목사 담임 박종일 목사) 010-3670-8999 18(금) 오후-저녁 제천 열방교회 (최미나 목사) 010-2985-9077 19(토) 오전 KK, Blessing MT 서울축복교회 (김순복 목사) 주회: 지선협(이사장 강영준 목사) 010-9260-1091 저녁

**제 232차 해외성회 (232nd Overseas Assembly)**  
 20(주)~22(화) 필리핀 (Philippines) Baquio, 2009 교회 목회자 연합 영성 수련회 준비위원회 (윤성오 선교사) 010-7574-5164 주회: 노헤미야 부흥사회 (대표회장 피종진 목사, 대표회장 김승희 목사) 010-7522-0236 23(수)~25(금) 필리핀 (Philippines) Launion (북부 루손지역) 영성충만성회 주회: 노헤미야 부흥사회 (대표회장 김승희 목사) 010-7522-0236 주권: 세계선교전략사령부 (윤성오 선교사) 010-7574-5164 28(월)~29(화) 베트남 (Vietnam) Overseas Training Session (사)한국기독교부흥협의회 (대표회장 이종선 목사) (032) 219-9191 30(수)~9.1(금) 베트남 (Vietnam) Overseas MT

**대한예수교장로회 www.nscs.or.kr**  
**남서울중앙교회 Tel. 02)3411-9191**  
 서울시 강남구 삼성로 40(개포동) Fax. 02)401-7770



제78주년 8.15광복절 기념예배 및 기념식이 열렸다. 사진은 미주평안교회에서 열린 광복절 기념식 참석자들이 단체사진을 찍고있는 모습

### 제78주년 8.15광복절 기념예배 및 기념식

“세계선교의 대부흥을 위해 한국을 선교의 보병으로”

제78주년 8.15광복절 기념예배 및 기념식이 13일(주일) 오후 4시 미주평안교회(담임 임승진 목사)에서 열렸다. 이날 행사는 LA카운티교협, 남가주한인목사회, 남가주한인여성목사회, 주님세운교회 공동주관으로 열렸다. 정갑식 목사(한기총 미주총회 부회장/해돋는교회 담임) 인도로 열린 1부 예배는 에바다 찬양단(단장 김준 목사)의 경배와 찬양 인도로 시작, 진건호 목사(남가주한인목사회 직전회장)가 기도했으며 정중훈 목사(한기총미주총회 상임고문/남가주한인목사회 증경회장)가 성경봉독, 에버그린합창단(지휘 노혜숙) 찬양으로 이어졌다. 이어 박성규 목사(주님세운교회 담임)가 ‘오직 여호와시니이다(시 4:1-8)’라는 제목으로 “고국을 해방시키시고 고난의 연단을 거쳐 세계열강 중에 세우신 것은 마지막 세계선교의 대부흥에 한국을 선교의 보병으로 미국을 선교의 포병으로 세워 계시록 7장의 예언을 성취하시려는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이심을 믿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 찬양드립니다”고 설교했으며 주일업 교수(베데스다대학교)의 바이올린 특별연주, 소프라노 에스더 진 선교사(특공오페라 아카데미 원장)가 특송했다. 이어 특별기도 시간을 갖고 김경한 목사(남가주한인목사회회장)가 ‘복음적 통일을 위하여’, 성종정 목사(남가주한인목사회 증경회장)가 ‘이민교회와 한국교회, 세계교회를 위하여’, 김영대 목사(남가주한인목사회 증경회장)가 ‘차세

대를 위하여’, 서사라 목사(남가주한인여성목사회 이사장)가 ‘한국, 미국 대통령과 위정자들을 위하여’, 최재홍 목사(GLAM대표)가 ‘한국과 미국과 세계 복음화를 위하여’라는 제목으로 기도했다. 이태환 목사(남가주한인원로목사회 증경회장) 축도에 이어 열린 제78주년 광복절 기념식은 재미헌병전우회(회장 이근홍) 기수단 입장, 오위영 목사가 미국 국가와 애국가 불렀다. 이어 헤세디글로벌예술선교회(단장 헤세디 김 목사)가 축하공연을 했다. 이어 미셀 박 스틸 연방하원목사와 영길 연방하원의원의 기념사 영상으로 소개되었으며 이호우 목사(OC기독교교회협의회 증경회장)와 박형만 장로(남가주한국학원 이사장), 그리고 영길 목사(우정의종 보존재단 이사장), 이재학 장로(6.25참전용사 유공자협회 회장), 최만규 회장(대한육군협회)이 기념사를 전했다. 이어 LA목사총창단(지휘 서문욱 목사)가 특송했다. 이날 행사는 광복의 노래를 참석자들이 함께 부른 뒤 남가주교협 증경회장 흥영환 목사와 류당열 목사가 만세삼창을 인도한 뒤에 마쳤다.

한편 남가주교회협의회(회장 최영봉 목사)가 주최한 제78주년 8.15광복절 감사예배는 나성영락교회(담임 박은성 목사)에서 13일(주일) 오후 4시30분에 열렸다. 이날 행사에서 박은성 목사가 ‘능히 견져 내시리이다(단 3:14-18)’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했다. (박준호 기자)

### 자마중보기도컨퍼런스 2023

“미국 최악의 위기...하나님이 주시는 부흥만이 해결책”

자마중보기도컨퍼런스가 9일(수)부터 11일(금)까지 은혜한인교회(담임 한기총 목사)에서 열렸다. 9일(수) 첫 번째 시간에 강순영 목사(자마 전대표)가 ‘중보기도를 통해 이루어진 위대한 변화들(느 1:1-6)’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했다. 강순영 목사는 “이번 컨퍼런스에 많은 교회들이 참여했다. 기도를 통해 하나님이 쓰시고자 하는 인물과 교회들이 초대교회처럼 부흥을 통해 타오르고, 도시가 변화되고, 미국이 하나님의 부흥의 불길을 통해 하나님의 지상명령을 수행할 수 있는 국가가 되었으면 한다”고 말했다. 그는 “오늘날 미국은 건국 이래 최악의 위기를 맞고 있다”며 “사탄이 가정 제도를 무너뜨렸다. 부모와 자녀의 갈등, 공립학교에서 반성경적인 사상을 배워서 가정에 갈등이 생기고 성전환을 반대하면 아이들을 빼어가는 법안이 마련되었다. 캘리포니아 경우 ‘자녀들을 공립학교에서 빼내야 한다’고 하기도 하고, ‘캘리포니아를 떠나야 한다’고 할 정도로 타락한 성교육과 이념교육을 갖고 있다”며 “대학은 무신론과 사회주의자들이 장악했다. 문화는 동성애 영화를 만들어 보급하고 있으며 정부는 평등법이라는 이름으로 LGBTQ에 우호적이다”고 설명 하며 “하나님이 주시는 부흥만이 해결책”이라고 말했다. 그는 “부흥은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에게

성령으로 강하게 임하심으로 출발한다. 거기서 잡자던 영혼과 시들은 영혼이 살아나게 되고 성령의 거룩한 빛 앞에서 철저히 회개하게 된다. 회개를 하게 되면 기록을 회복하고 변화된 그들로 인해 가정과 사회가 변화되고 변화된 그들을 보고 수많은 불신자들이 하나님을 찾게 되고 사회는 범죄자가 크게 줄어 사랑과 정의가 넘쳐나는 그리스도의 계절이 오게 된다”고 말했다. 말씀을 마치면서 이번 컨퍼런스에 성령님께서 강력하게 임하소서, 모든 참가자들이 부흥을 체험하게 하소서, △절저한 회개를 통해 우리 모두가 이 시대를 위한 중보기도자로 세움받게 하소서, △하나님을 떠남으로 침몰하는 미국을 위해 느헤미야처럼 기도하는 중보 기도자가 되게 하소서, △우리의 기도를 통해 가정에는 하나님이 쓰시는 인물이, 교회는 사도행전 교회처럼, 도시도, 미국도 변화되게 하소서, △우리와 미국의 죄를 용서 하소서, 부흥을 통해 나라가 새로워지게 하소서, △이번 중보기도컨퍼런스에 오순절처럼, 평양대 부흥의 날과 같이 성령으로 임하소서 등의 기도제목을 나누고 참석한 모든 이들이 합심기도를 했다. 이어 위성교 목사가 ‘성경적 중보기도자들(사 62:1-7)’이라는 제목으로 두 번째 시간 말씀을 전했다. (박준호 기자)



강순영 목사가 말씀을 전하고 있다



한미동맹 70주년 기념 음악회에서 소프라노 조수미가 공연하고 있다

### 한국문화원과 뮤직센터 공동주최

‘한미동맹 70주년 기념음악회’ 성황리에 열려

LA한국문화원(원장 정상원)과 뮤직센터(대표 레이텔 무어)가 공동주최한 한미동맹 70주년 기념음악회가 11일(금) 오후 8시 월드디즈니콘서트홀에서 성황리에 열렸다. 월드디즈니홀을 가득메운 가운데 열린 이날 음악회는 국립전통예술고 사물놀이팀의 사물놀이로 신명나게 시작했으며 ABT 발레단 서희와 안주원이 아름다운

발레 공연을 했다. 이어 왕기철 명창(국립전통예술고 교장)이 ‘어머니’와 ‘홍보가의 박타는 대목’을 불러 관객들의 큰 호응을 이끌어냈다. 이어 소프라노 조수미가 무대에 올라 ‘The Gypsy and the Bird’, ‘강 건너 봄이 오듯’, ‘꽃구름 속에’ 등을 불렀으며 앵콜곡으로 ‘아리랑’을 불렀다. (박준호 기자)



월드미션대학교 설립자 임동선 목사 탄생 100주년 기념행사를 위한 기자회견이 열렸다. 기자회견에서 기념행사에 대해 설명하는 남중성 교수(왼쪽부터), 임성진 총장, 임선목 부총장, 윤임성 교수

### 서부교계 게시판

열린문교회 설립 42주년 원로목사 추대 및 담임목사 위임예배  
앵커리지 열린문교회 설립 42주년 감사예배와 유재일 원로목사 추대 및 함성주 담임목사 위임예배가 31일(목) 오후 6시에 열린다.

▲ 문의: (907)344-6446

KAPC개혁장로회대학 및 신학대학원 학생모집

KAPC개혁장로회대학 및 신학대학원(총장 이정현 박사) 2023학년도 가을학기 학생모집을 다음과 같이 실시한다. 모집과정은 신학사(B.Th), 기독교교육학석사(M.C.E), 목회학석사(M.Div), 편입생과정, 편목과정이며 본교 M.Div 과정을 졸업한 학생들은 미주한인예수교장로회(KAPC)에서 시행하는 목사고시에 응시하여 안수 받는 자격이 주어지며, 선교지에서 사역하는 선교사에게는 50% 장학금이 지급된다. 한편 2023학년도 가을학기는 8월 28일부터 12월 6일까지 진행되며 개강예배는 오는 28일(월) 오후 7시(서부시간) 줌으로 열린다.

▲ 문의: (310)749-0577, (626)675-8010

미주한인기독교실업인회, 서부총연합회 장학금 수여식

미주한인기독교실업인회 서부총연합회(KCBMC, 총회장 강승태)는 26일(토) 오후 4시 부에나파크에 소재한 예순 몬테소리 학교에서 9명의 학생들에게 제2회 장학금 수여식을 갖게 된다. 작년에 이어 두 번째로 장학 사업에 나선 미주한인 기독교실업인회는 지난 4월 3일 로스 코요테스 골프 코스에서 개최한 골프대회의 수익금으로 장학 기금을 마련했다. 골프대회는 한술보험, 서울메디칼 그룹이 특별후원 하였으며 200여명의 선수와 진행자들이 참석했다.

▲ 문의: (909)677-0028

엘피스가정사역원 주최 힐링캠프

엘피스가정사역원(대표 박운송 목사) 주최 3기 힐링캠프가 ‘나만의 마음근력 키우기’라는 주제로 21일(월)부터 23일(수)까지 Mater Dolorosa(700 N, Sunnyside Ave)에서 열린다. 참가대상은 목회자의 아내이며 회비는 100불. 엘피스 패밀리 3기 힐링캠프는: LA 복음 연합감리교회(김호용 목사), 하와이 그리스도 연합감리교회(한의준 목사), 하와이 감람교회(이영성 목사), 새생명 비전 교회(강준민 목사), 남가주믿음의 교회(정중환 목사), 밸리생명교회(변은광 목사), 엘리트 치과, 율가리노 후원으로 열린다.

▲ 문의: (213)700-9928

테너 오위영 독창회

테너 오위영 목사 독창회가 20일(주일) 오후 3시30분 파사데나장로교회에서 보나뮤직(대표 이해자) 주최로 열린다. 이날 음악회는 특수장애우 지원단체 ‘베스트 버디스’를 후원하기 위해 열린다.

▲ 문의: (213)300-7214



충현선교교회 설립38주년 기념부흥회에서 권준 목사가 말씀을 전하고 있다

### 충현선교교회 설립38주년 기념부흥회

“땅 끝까지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가는 교회되길”

충현선교교회(담임 국윤권 목사) 설립38주년 기념부흥회가 ‘교회여, 일어나라!’라는 주제로 10일(목)부터 13일(주일)까지 열렸다. 찬양팀의 찬양인도로 시작된 13일(주일) 오전 11시30분에 열린 마지막 날 집회는 할렐루야 성가대 찬양과 김광호 장로가 기도했다. 이어 유스오케스트라가 특별연주를 한 뒤 이번 부흥회 강사인 권준 목사(시애틀형제교회)가 ‘은혜위에 서자!(마20:1-16)’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했다. 권준 목사는 “예수님이 사역하실 때 처음 선포 하는 말씀이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는 것이었다. 마지막 순간까지 가르치신 것도 하나님 나라였다. 주기도문의 핵심역시 하나님 나라였다”고 말했다. 권 목사는 “하나님 나라를 구하면 모든 것이 해결된다. 하지만 우리가 기도하지만 정말 하나님 나라가 임하기를 원하는가? 내 나라가 임하는 걸 원하는지는 않는지? 나의 야망과 소원이 성취되는 것을 위해 구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라고 질문하며 “그것들은 우상숭배이고 사마니즘이다. 사마니즘은 신은 나의

소원성취를 위한 수단이고 방편이라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오늘 분문의 포도원주인은 일하는 자의 삶에 관심이 있었으며 일꾼들이 복을 받는데 관심이 있었다. 이것이 주인의 마음이고 하나님아버지의 마음이다. 낡은 한 영혼까지 구원하고 싶으신 하나님의 마음”이라 설명한 뒤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첫째, 하나님 나라는 불공평한 나라이다. 일한만큼 보상이란 것이 공평이란 천국은 공평하지 않다. 하나님이 공평하게 대하셨다면 나는 지옥에 갈수밖에 없다. 둘째, 부름을 받았다는 것 자체가 은혜이다. 천국은 하나님의 은혜로 들어가는 곳이다. 셋째,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한 가족이라는 것”이라고 강조하며 “교회본질은 은혜이고 은혜위에 공평과 정의가 세워져야 한다. 땅 끝까지 은혜가 흘러가는 교회,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가고 하나님의 역사가 세워지게 되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날 예배는 민종기 목사(본교회 원로)의 축도로 마쳤다. (박준호 기자)

### 월드미션대학교 설립자 임동선 목사 탄생 100주년 기념행사

기념논문집, 기념관 개관식, 학술세미나, 기념음악회, 비전넥스트

월드미션대학교 설립자 임동선 목사 탄생 100주년 기념행사가 열린다. 이에 대한 기자회견이 11일(금) 오전 11시 본교 디지털강의실에서 남중성 교수 사회로 열렸다.

임성진 총장은 “임동선 목사가 돌아가신지 7년, 탄생 100주년이 되어 특별하게 생각한다. 그분의 정신과 선교에 대한 열정을 되새기면서 후대에 전달할 수 있는 동력을 얻고 싶다. 학교차원이 아닌 교계와 교민사회 교인들이 협력해서 준비하게 되었다. 그분의 정신을 여러 방법을 통해 드러내려고 한다”고 말했다. 또한 “임동선 기념관이 동양선교교회에 있다. 월드미션대학교도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기념관을 준비하고 있다. 9월24일 개관식을 갖게 된다. 개관식 때 영상 유인물 사진을 통해 임 목사를 소개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이어 신선목 부총장이 기념 학술세미나에 대해 설명했다. 신 부총장은 “릴리재단에서 100만불을 후원받았다. 디지털 영상 프로젝트 13명 학생들이 영성에 대한 논문을 썼으며 2 권으로 출간되었다”며 “논문집은 프로젝트 일환으로 임 목사의 영성에 대해 썼으며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 연구가 되었다. 결론적으로 임 목사 영성은 선교적 영성이라고 정의를 내린다. 임 목사님 탄생 100주년을 준비하면서 임동선 목사의 영성은 선교적영성이며 그것이 그분의 삶에 어떻게 나타났고 우리들의 삶에 어떤 도전을 주는지 나누게 된다”고 설명했다.

오는 10월21일에 열리는 임동선 목사의 일대기를 다룬 오라토리오 공연에 대해 본교 음악과 윤임성 교수는 “이번 음악회는 학교와 외부활동을 통해 심혈을 기울여 준비하고 있으며 설립자의 바른 정신을 음악 통해서 보여주고 싶다”고 말했다. 이번 음악회는故 임동선 목사의 자서전 <지구촌은 나의 목장이다>를 기본 텍스트로 삼아, 임 목사의 선교를 향한 정신을 오라토리오와 뮤지컬 형식을 빌려 표현할 계획이다.故 임동선 목사역은 뮤지컬 도산에서 안창호 역을 맡았던 최원현 씨가 맡게 되며, 오케스트라 45명, 본교 재학생과 졸업생들로 구성된 콰이어 40명 정도가 참여할 계획이다. 뮤지컬 부분은 클라라 신(무대예술인 그룹 극단 시선 대표)의 도움을 받게 된다. (박준호 기자)



### 세계 기독교 실업·전문인 모인 '제12차 CBMC 세계대회'

5년 만에 재개...주제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되자'

한국을 포함해 세계 36개국에서 모여든 기독교 실업인과 전문인 2400여명이 대회장을 가득 메웠다. 행사의 개막을 알리는 폭죽 소리와 함께 각국의 기수들이 국기를 들고 무대에 올랐다. '제12차 CBMC 세계대회'가 15일 경기도 파주 오산리최자실기념금식기도원에서 개막했다.

기독교실업인회(CBMC·Connecting Business and Marketplace to Christ)는 '일터 사역'에 힘쓰는 국제적 사명 공동체다. 실업인들과 전문인들에게 복음을 전해 예수 그리스도가 구주이심을 경제 활동 속에서 증거하는 기관이다.

18일까지 진행되는 이번 대회는 명실공히 세계 기독교실업인들의 축제다. 영국 벨파스트

에서 2018년 제11차 대회가 열린 이후 코로나19로 연기되다 5년 만에 재개하게 됐다. 한국은 기존 4년마다 열리던 세계대회를 다시 주관함으로써 1977년 제1차 대회와 2005년 제8차 대회에 이어 올해까지 세 번의 세계대회를 주최한 국가가 됐다.

제12차 세계대회의 주제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되자(Unity in Christ)'다. 3박 4일 일정 동안 '우리는 CBMC' '하나의 사명' '하나의 사역' '그리스도 안에서 연합' 등 날짜별로 소주제를 나눠 간증과 특강, 세션 강의를 진행할 예정이다.

개회 예배를 맡은 대한예수교장로회(예장) 합동 총회장 권순웅 주다산교회 목사는 설교를 통해 "하나님의 사랑이 회복

되고 부흥돼야 한다"는 메시지를 전했다. 권 목사는 "CBMC는 특히 문화명령과 지상명령을 완수하기 위한 공동체이기 때문에, 그리스도 기업인으로 이 사명을 감당할 때 성령의 능력과 은사로 감당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폴 제닝스 국제CBMC 이사장은 이날 대회사에서 "2023년 세계대회의 주제는 하나됨, 즉 연합(Unity)이다"라며 "분열이 가속화되는 세상에서 우리의 소명은 연합을 이뤄 기업인과 전문인을 전도하고 양육해 일터 가운데 효과적인 그리스도의 대사가 되도록 복음을 전하는 것이다. 이번 세계대회를 통해 우리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다양한 사역 아이디어와 방법을 나누길 기도한다"고 바람을 전했다.

대회에는 피터 서 대만 평지시대 경영학 석좌교수, 모스토모에과 남아프리카공화국 선거관리위원장, 팀 필보 전 미국 캔터키주 가정 법원 판사, 인요한 연세대 세브란스병원 국제진료센터 소장, 마크 휘태커 코카콜라 콘솔리데이티드 Culture&Care 부사장, 크리스 심슨 국제CBMC 사무총장 등이 특강과 간증에 나선다.

이영훈(여의도순복음교회) 권순웅(주다산교회) 오정현(사랑교회) 박수광(푸른나무교회) 정귀석(주평강교회) 목사 등이 참석해 말씀을 나눌 예정이다.



### 출소자부터 직원까지...소망교도소의 특별한 축제

소망교도소 신우회 '제5회 소망 홈 어울림 축제' 열어

15일 오전 경기도 성남 선한목자교회(김다위 목사)에서 특별한 예배가 열렸다. 소망교도소 신우회와 출소자들이 함께하는 '소망 홈 어울림 축제'다. 2017년부터 시작된 행사는 출소자들의 고충을 나누고 이들의 삶을 응원하는 취지로 매년 열리고 있다.

예배당에는 출소자 25명을 포함해 총 64명이 원탁에 둘러앉았다. 전담 가석방된 '신입'도 축제에 참석했다. 이름표만 달고 있는 참석자들은 누가 신우

회 회원인지 출소자인지 구분할 수 없었다. 모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배를 사모하는 이들이었다.

오랜만에 만난 이들은 서로 부둥켜안으며 인사를 건넸다. 회포를 푸는 데 얼마의 시간이 흘렀을까. 찬양단이 예배의 시작을 알렸다. 축제에 참석한 이들은 머리 위로 손뼉을 치거나 손을 든 채 한목소리로 찬양했다.

설교를 전한 여재우 선한목자교회 부목사는 "형통은 대

부분 성공이라고 인식하지만 성경에는 요셉이 애굽의 총리였을 때 삶이 형통했다는 기록은 없고 오히려 그가 보디발의 집에 노예로 있을 때 형통했다고 말한다"며 "요셉이 고난과 어려움을 겪을 때 하나님께서 함께하신 것이 바로 형통이다. 우리와 함께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예배 후 식사 교제와 조별 나눔 시간에는 서로 출소 이후의 삶을 전하며 아픔을 토로했다. 취업에 실패하며 좌절했던 이야기, 주변의 끊임 없는 유혹을 신앙으로 이겨낸 이야기 등에 공감과 박수가 이어졌다. 마지막에는 서로 기도 제목을 나누며 함께 기도하는 시간도 가졌다.

행사를 준비한 정은혜 신우회장은 "소망교도소를 거쳐 간 형제들과 같이 어울리는 자리를 가질 수 있어 하나님께 감사드린다"며 "출소 이후 과거 사람들을 만나는 게 부담스러울 수도 있는데 하나님을 향한 마음을 잊지 않고 많은 분이 참석해 감격했다. 앞으로도 재소자들을 위한 기도와 헌신을 이어갈 것"이라고 말했다.



### 1만 4000명의 '산 기도' 주여 이 땅을 회복해 주소서

사랑의교회 지남 13일, 광복 78주년 · 교회 창립 45주년 청계산 구국기도회

서울 서초구 사랑의교회(오정현 목사)가 78주년 광복절을 앞둔 지난 13일 '사랑의교회 45주년 기념 청계산 산상 구국기도회'를 열고 나라와 민족을 위

해 기도했다. 교인들은 광복절 주일에배를 드린 뒤 청계산에 올라 기도의 제단을 쌓았다. '한국교회 산상 기도의 영성을 재점화하게 하

옵소서'라는 주제로 오후 4시부터 2시간이 넘도록 이어진 구국기도회에는 1만 4000여명의 교인이 참여했다.

청계산 산상기도회는 2015년 시작된 뒤 해마다 광복절을 앞둔 주일 진행되고 있다.

이날 오정현 목사는 "청계산에 모인 교인들이 천둥소리 같은 기도와 천국의 물소리 같은 기도, 천사가 금항로를 올려드리는 것 같은 기도로 부르짖으며 기도하자"면서 "간절한 기도가 이 땅과 민족에 심겨 받드시 기쁨으로 단을 거두는 은혜와 새판을 짜는 놀라운 역사로 이어지는 은혜를 채워주소서 믿고 바라자"는 메시지를 전했다.

태극기와 '기도의 지팡이'를 들고 기도를 시작한 교인들은 태풍으로 큰 피해를 본 수재민을 위해서도 마음을 모았다.



### "북한 마음에 품고 기도하는 기독교인의 역할 중요"

새문안교회 광복절 구국기도회 개최

한국교회 성도들이 광복절을 맞아 한반도의 평화를 위해 기도하고 나라 사랑 정신을 되새겼다. 새문안교회(이상학 목사)는 15일 서울 종로구 교회에서 '나라와 민족을 위한

8·15 구국기도회'를 열고 남북 정세를 진단했다.

이날 특강을 맡은 박원근 이화여대 교수는 "북한은 김일성이 시작한 국방력 건설이 김정

주장하고 핵 능력 확장을 주요 성과로 내세우고 있다"며 "올해 북한은 한국과 미국을 특정해 군사도발을 하고 있다. 이는 북한의 '생존권'과 '발전권'에 부정적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박 교수는 이렇게 한반도 전쟁 위기가 높아지는 가운데 기독교인의 역할을 강조했다. 그는 "남한이 북한을 식민지화한다고 생각한다면 통일도 축복이 될 수 없다. 우리는 북한에 대한 평가나 정치 판단을 하지 말고 있는 그대로의 모습을 받아들이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특강 후 성도들은 북한 동포들이 억압과 고통에서 벗어나고 하나님의 때에 복음 평화통일을 이뤄달라고 간절히 기도했다. 장석현 부목사는 "우리 나라가 일제의 어두운 폭압에서 광복의 기쁨을 찾았듯이 우리 삶을 짓누르는 갈등과 혼돈을 회개를 통해 치유 받자"고 권면했다.



### 무더위 잊은 채... 국내외 성도 한데 어우러져 복음통일 노래

통일콘서트 '성령으로 남북한이 하나로'

14일 오후 서울시청광장. 각종 시위와 농성 등으로 갈등과 대립의 현장으로 오르내리던 이곳에서 낯선 광경이 펼쳐지고 있었다.

'ONE KOREA(원코리아)' 문구가 새겨진 흰 옷을 입은 내외국인이 한데 어우러져 손을 들고 찬양하고 있었다. 한 손에는 다양한 국기를 쥐고 있었다.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싱가포르 러시아 대만 인도네시아 미국 독일 일본 필리핀 인도 우간다 등 국적은 다양했다.

33도에 달하는 폭염으로 참가자들의 옷은 땀으로 흠뻑 젖었고, 이들 눈가에는 땀방울이 송글송글 맺혔지만 찬양에 여념이 없었다. 광장을 지나가는

행인들도 호기심에 광장에서 벌어지는 일들을 지켜보기도 했다.

찬양 뒤에는 기도와 하프 공연 등이 이어졌다. 참가자들은 한반도 평화와 통일을 놓고 한목소리로 기도했다. 하프 공연 때엔 국내외의 연합 하프 연주자들이 성경 구절에 나름의 곡조를 붙여 만든 자작곡들로 광장을 물들였다.

이날 행사는 송도주사랑교회(장상길 목사)가 주관한 '통일콘서트'였다. 송도주사랑교회는 정전 70주년을 맞아 '성령으로 남북한이 하나로'를 주제로 지난 10일부터 열을 일정으로 서울롯데호텔과 서울시청광장에서 '시온대회'를 이

어가고 있다. 통일콘서트는 이번 대회의 하이라이트로 꼽힌다.

통일콘서트에는 해외 30개국에서 방한한 300여명이 참석했다. 특히 이스라엘 유대인이 전체 인원의 33%인 100명에 달했다. 행사에서 유대인과 연합이 중시되는 데는 그만한 이유가 있다. 창세기 12장 3절 말씀에 근거해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모든 민족의 축복의 통로로 사용하는 만큼 남북 간 복음통일의 열쇠도 유대인이 갖고 있다는 믿음 때문이다.

이스라엘에서 온 데이비즈(48)씨는 "사전에 행사 취지를 듣고 나서 꼭 현장에 참석해 성령의 힘을 보태고 싶다는 마음을 품게 됐다"며 "행사 주제처럼 남북한이 성령으로 하나 되는 역사가 임하기를 간구한다"고 말했다. 이 자리에서는 그동안 분열과 갈등으로 얼룩졌던 서울시청광장이 연합과 화해의 장소로 변화되기를 바라는 소망도 제시됐다.

장상길 목사는 말씀 선포식에서 "서울광장은 그동안 개인과 집단이 서로를 적대시하며 충돌했던 장소였다"면서 "하지만 이제 연합을 통해 화해와 협력이 이뤄지는 희망의 광장으로 거듭날 것이다. 온 세대와 온 지역, 온 열방이 함께 예배로 나아가는 자리야말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FAMILI STUDY** Food And Microbiome Longitudinal Investigation

**NYU 의과대학 웨밀리 연구 참여자 모집 안내**

- 미국 국립보건원(NIH)과 NYU 의대 웨밀리 연구팀(총책임자: 안지영 교수)은 세계 최초로, 여러 민족의 식습관, 환경, 박테리아와 만성 질병에 대한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 특히 미국에 거주하시는 한국인의 질병 발생 및 위험요인을 연구하여, 질병예방 및 보건증진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 의료보험이나 신분분에 관계없이, 40세 이상인 미국내 거주자는 한번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 성명, 생년월일, 전화번호, 주소, 이메일을 보내 주시면, 연구에 필요한 자료를 우송해 드립니다.
- 집에서 완료하신 후, NYU의대로 무료 우송해 주시면, 25불 기프트카드를 보내 드립니다.

**NYU 의과대학 웨밀리 연구 연락처**

FAMILI Study (Hee Choi, MS, RD) NYU School of Medicine 180 Madison Avenue # 3-23 New York, NY 10016

전화: 646-501-3673 | 646-501-3674  
문자: 929-410-4475  
이메일: hee.choi@nyulangone.org  
웹사이트: http://www.nyufamili.org/kor/index.php

한편 한분의 참여는 우리의 2세에게 보다 건강한 사회를 남겨 줍니다.  
여러 분의 많은 참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 mission 선교의 창 (221)



송종록 목사  
(크로스선교전략 연구소)

## 미주 한인의 이민 역사(歷史)와 나아갈 방향

2023년은 한인 미국이민 120주년이 되는 해이다. 짧은 역사 가운데 한인인 양(量)과 질(質)적으로 괄목할만한 성장을 해 왔다. 한국 외교부가 2년마다 발간한 “2021년 외교백서”에 따르면 미국 내에 거주하는 한인은 총 263만 3,777명으로 집계했다. 이는 전 세계에 퍼져 있는 디아스포라 한인 중 1/3에 해당된다. 그렇다면 COVID19로 인하여 닫힌 문들이 열린 지금은 얼마나 될까? 여행객 등 이동 인구까지 합산하면 적어도 3백만 명은 넘을 것이다. 미주 한인 공동체는 그 시작부터 한인교회와 뗄 수 없는 관계 속에 있었다. 이민교회들은 정신적 힘의 근원으로서뿐만 아니라 이민자들에게 동질성을 찾게 하고, 사회 문화적 상호작용의 중심지로서 역할을 했기 때문이다. 퓨 포럼(Pew Forum) 홈페이지에 의하면 재미 한인의 종교 실태는 개신교 61%, 가톨릭 10%, 불교 6%, 무종교 23%의 순으로 나와 있다. 기타 통계 등을 종합해보면 미주 한인 중 70% 이상이 개신교도들이라고 한다. 하지만 현실은 그렇게 녹록치 않다. 이민교회들을 포함한 미주 한인 사회는 산적한 난제들을 떠안고 있다. 따라서 우리는 지나온 발자취를 돌아보며 나아갈 방향을 모색함이 마땅하다 아니 할 수 없다.

### 1. 미주 한인 이민 역사

제1기 이민그룹은 1903~1944

사이에 일어났다. 최초의 공식적 한인 이민은 1903년 1월 13일 증기선 갈릭호를 타고 102명이 하와이 호놀룰루에 도착하면서 시작하였다. 이렇게 노동자, 사진 신부, 유학생들로 구성된 미국의 한인 사회는 1945년 한국이 광복되기까지 하와이에 6,500명가량, 그리고 미국 본토에 3,000명가량이 있었으며, 이들은 미국 주류사회로부터 고립된 생활을 하였다. 제2

기 이민그룹은 1945~1964 사이에 일어났다. 이때는 광복과 한국전쟁의 영향이 컸다. 주로 미군 병사와 결혼한 한인 여성, 전쟁고아, 입양아, 유학생 등 총 14,352명의 한인이 미국으로 왔다. 이러한 상황은 1970년대부터 한인 이민자들이 대거 증가하게 되는 기반이 되었다. 제3기 이민그룹은 1965~1991 사이에 일어났다. 1965년에는 미국 “이민법”이 국적별 쿼터 제도를 폐지하고 대신에 전문직 종사자 우선과 가족 재결합이라는 두 개의 축을 중심으로 개정되었다. 이로써 아메리칸 드림을 꿈꾸던 한국인의 집단 이민이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다. 주로 유학생, 객원 간호사와 의사들이 주류를 이루었다. 1970년대에 들어서 이들은 국제결혼을 한

한인 여성들과 함께 한국의 가족을 초청하면서 한인 수는 급격하게 증가하기 시작했다. 제4기 이민그룹은 1992년 이후 현재까지이다. 이 시기는 1992년 LA 4.29 폭동과 1998년 한국의 외환위기(IMF)의 영향이 컸다. LA폭동으로 말미암아 한인들은 “아메리칸 드림(American dream)”에 대한 환상에서 깨어나면서 이민 수가 줄게 되었다. 1998년에

는 한국이 외환위기를 겪으면서 고용 불안정과 발생한 실업으로 인해 2000년부터 다시 이민이 증가하는 추세가 되었다. 전문직종과 투자 이민이 대체를 이루었다.

### 2. 미주 한인교회의 역사

1903년 11월 10일, 하와이 오아후섬에서 미국 최초의 한인 이민교회가 탄생했다. 현재 그리스도 연합감리교회의 효시인 한인감리교회(Korean Methodist Church)가 이날 첫 주일 예배를 드렸다. 그 후 꼭 4개월만인 1904년 3월 11일 미국 본토에 최초의 한인교회인 나성한인 감리교회(현재의 LA연합감리교회)가 세워졌다. 그다음 해인 1905년에

는 샌프란시스코에 상항 한국인연합감리교회가 설립됐고, 1906년에는 제퍼슨장로교회로 불리는 나성한인연합장로교회, 1914년에는 오클랜드한인 감리교회, 1919년 시카고한인 감리교회, 1921년 뉴욕감리교회 순으로 세워졌다. 1960년 중반에 미주 한인이민교회의 역사를 바꾸어 놓은 새로운 변화가 일어나게 되었다. 이민연구센터(Center for Immigration Studies)와 퓨 리서치센터(Pew Research Center)에 따르면 새 이민법이 1968년부터 완전히 시행됨에 따라 1970년 초부터 한국에서 많은 이민자들이 왔는데 바로 그 시기 한인교회가 본격적으로 생겨나게 된 것이다. 당시 교회만이 유일하게 모일 수 있는 공간이었기에 기독교인이 아니더라도 많은 사람이 교회를 찾아오게 된 것이다. 따라서 1970년대는 교회를 개척하며 이식하는(implantation) 시기, 1980년대는 교회가 계속 성장하며 정착한(settlement)시기, 1990년대는 교회가 안정된

갖춘 실력자들로 키우는 일이다. 재미 한인 공동체는 이민 1세의 비율이 감소하고 미국에서 출생하고 성장한 2세, 3세의 비율이 증가하고 있다. 저들은 이민자인 부모 세대의 불리함과 제약이 뛰어넘어 미국 주류사회로 빠르게 진입하고 있다. 하지만 타 인종·민족과의 족외혼의 비율이 50%를 넘고, 교육 배경과 문화적 요인으로 인하여 한인으로서의 정체성이 약해지는 측면이 있다. 둘째 한인교회들과 공동체는 우리만의 경계선(Korean line)을 넘어서 지역사회를 섬기고, 다민족·다문화 사역에 관심을 갖고 선을 행하는 데 인색하지 않게 체질화되어 있는 단일민족 특유의 폐쇄적이고 배타적인 문화를 과감히 타파하는 것이다. 우리가 결코 북미라는 바다에 외롭게 떠 있는 섬의 모습으로 전락해서는 아니 된다. 셋째로 절대적 성경 말씀에서 상대적 세속화로 물들어 가고 있는 미국 교회와 사회를

세계적 선교 센터 역할이다. 문명사를 보면 언제나 여러 문명이 서로 충돌하고 융합하는 곳에서 새로운 운동이 일어났다. 그런 점에서 이곳 LA와 미국은 너무나 중요한 곳이다. 미주 한인교회의 사명이 크다.

### 맺음 말

“중국인은 가는 데마다 식당을 차리고 일본인은 회사를 설립하며 한국인은 교회를 세운다.”라는 말이 있다. 미주 한인 공동체는 시작부터 한인교회와 맥을 같이 했다. 1903년, 하와이에 첫발을 딛은 102명 가운데 거의 절반 이상이 기독교인들이었다. 그들은 비록 노동자 신분으로 입국했지만, 첫걸음부터 주일에는 일하지 않는 원칙 속에서 교회와 학교를 세웠다. 나아가 이민 사회가 미국 본토로 확장되는 곳마다 한인교회가 들어섰다. 이는 무엇을 의미하는가? 1620년 메이플라워(Mayflower) 호를 타고 플리머스(Plymouth Rock)에

1620년, 미국을 개척한 최초 청교도들은 102명이었다.  
1903년, 미국에 처음 발을 딛은 한인의 숫자도 102명이었다.  
재미 한인들은 미국이 청교도적 가치로 서도록 마중물 역할을 해야 한다.

(stabilization)시기, 2000년대 이후는 이민인구가 감소되고 교회가 고령화되면서 성장과 쇠퇴(growth and decline)를 반복한 시기라고 볼 수 있다. 기독교 비영리재단인 “재미한인기독교선교재단(KCMUSA)”은 최근 발간한 2022 미주 한인교회 주소록에 의하면 2021년 10월 기준 미주에 총 2,798개의 한인교회가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지난 2019년의 3,456개와 비교하면 658개, 곧 약 20%가 감소한 것이다.

### 3. 미주 한인교회와 한인 공동체의 나아갈 방향

첫째는 다음 세대들을 신앙적 토대 위에서 Korean American으로서 소명하고 은사 따라 정체성을

다시 청교도적 가치로 회복되게 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한인교회가 가지고 있는 뜨거운 영성과 열정으로 신선한 충격을 주어야 한다. 그것은 “영적화로”이자 마중물 역할을 하는 것이다. 넷째로 조국 통일을 위한 디딤돌 역할을 하는 것이다. 조국 대한민국의 융성 없이는 이민 사회도 힘을 쓸 수 없다. 우리 민족의 숙원은 평화통일이다. 분단 고착화는 민족적 불행의 씨앗이 된다. 3억 아랍권에 둘러싸인 이스라엘을 보라. 만일 저 나라에 원군 세력인 미국 내의 유대인 동족이 없다면 어떻게 되었는가? 이제 한반도보다 이념적 갈등에서 자유로운 미주에서 통일의 물꼬가 트이도록 뭔가 역할을 감당해야 한다. 다섯째로

도착한 청교도들 102명이 했던 것과 궤를 같이한다. 그들은 신대륙 미국을 말씀 위에 건설했다. 하지만 불행하게도 미국은 사상적 혼돈과 쾌락적 사고와 끝없는 소유욕으로 사회는 갈수록 불안해지고 있다. 이때 우리 한인들은 무엇을 해야 하는가? 소수 민족으로서 “어떻게 하면 좀 더 도움을 받을까?”라는 소극적 사고에서 벗어나 믿음의 시각으로 나아가도록 사명을 다해야 한다. 그것은 바닷물이 썩지 않고 생물이 살 수 있도록 3% 염분의 역할이 아닐까 싶다.

jrson007@hanmail.net

## C. S. 루이스의 생애 산책 (8)

### 루이스에게 영향을 준 작가 2 G. K. 체스터턴

C. S. 루이스가 20세기 최고의 기독교 신앙 변증가라는 것은 잘 알려진 사실입니다. 루이스는 다양한 저술 활동을 통해 많은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였고 기독교 신앙을 변증하였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그의 작품은 많은 신앙인에게 신앙의 깊이와 넓이를 더하고 있습니다. 루이스는 현재에도 베스트 셀러 작가입니다. 이런 루이스가 신앙인과 저술가로 성장하는 과정에 G. K. 체스터턴(Gilbert Keith Chesterton) 영향을 받은 것은 주목해야 할 사실입니다. 영국은 20세기에 걸출한 기독교 변증가를 배출했습니다. 20C 후반은 세계 복음주의 운동(Evangelical Movement)을 이끈 존 스타트가 활동했습니다. 중반에는 C. S. 루이스가 활동했고 20세기 초반은 두 사람에게 기독교 문학과 저술에 강력한 영향력을 끼친 길버트 체스터턴(Gilbert Keith Chesterton)이 활동했습니다. 한국 기독교계에서는 잘 알려지지 않은 체스터턴은 C. S. 루

이스의 회심에 결정적인 역할을 한 사람일 뿐만 아니라 당대에 유명한 기독교 변증가였습니다. 체스터턴은 1874년 런던에서 태어났습니다. 슬레이드 예술학교와 런던 유니버시티 칼리지에서 각각 미술과 문학을 전공하고 젊은 나이에 작가가 되었고 문학 경력을 쌓았습니다. 체스터턴의 필력은 기자로 빛을 보았습니다. 그는 스스로 저널리스트로 성공하기를 희망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문학적으로 두각을 나타냈습니다. 그는 걸출한 시인이자 수필가, 희곡 작가, 소설가였고 사회와 문학을 날카롭게 비판했던 탁월한 비평가였습니다. 그는 수백 편의 시, 다섯 편의 희곡, 다섯 권의 장편 소설, 환상소설을 비롯해 단편소설 200편을 발표했던 걸출한 작가였습니다. 체스터턴은 당대에 영국 사회의 유명인이었습니다. 그는 20세기 전반 영국의 공론장을 쥐락펴락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유능한 진행자였고 탁월한

언론인이었던 체스터턴은 시사 토론으로 명성이 높았던 논객이었습니다. 역설의 대가로 불릴 만큼 재기 넘치는 경구를 잘 구사했다고 알려집니다. 체스터턴은 자신의 변증적 전략을 귀류법이라고 불렀습니다. 귀류법은 자신의 명제에 반대 명제를 전제로 추론을 전개합니다. 그리고, 그 추론의 결과가 오류임을 밝히면서 자신의 명제가 옳다는 것을 입증하는 방식입니다. 이것은 체스터턴이 반기독교적인 서적을 탐독하다가 그들 논리의 허점을 발견하고 기독교 신앙을 받아들이고 돌아온 경험을 반영한 것입니다. 필립 안시에 따르면 무인도에 표류하면 무슨 책을 가져갈지 바라는나는 질문에 체스터턴은 ‘배 만들기 안내서’라고 대답했다고 합니다. 체스터턴을 생각할 때 그의 대표적인 라이벌은 노벨문학상 수상자 조지 버나드 쇼입니다. 버나드 쇼와 비슷한 영향력을 가지고 기독교 입장을 대변하는 변증가였습니다. 그는 버나드 쇼의

진보적이고 반기독교적인 입장을 비판했습니다. 체스터턴은 정통신앙에 대한 오해를 정리하면서 기독교를 변증합니다. 흔히 정통주의라는 단어로 엄격하고 딱딱한 교리를 강조하는 듯합니다. 정통을 고루한 것으로 여기는 대중적 견해에 대해 체스터턴은 정통신앙을 인생의 모험과 로 맨스의 원천으로 제시합니다. 체스터턴이 지금 주목을 받는 이유는 C. S. 루이스 회심에 강력한 영향을 주었기 때문입니다. 루이스가 영향을 받게 된 체스터턴의 책은 “정통”과 “영원한 사람”으로 둘다 기독교 변증서입니다. 방황하던 C. S. 루이스가 자신의 영적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길을 체스터턴이 안내한 것으로 보입니다. 체스터턴은 루이스와 비슷한 신앙의 여정을 가졌습니다. 체스터턴은 루이스처럼 어린 시절에 신앙을 잃었다가 신앙을 회복하였습니다. 체스터턴 스스로 밝히기를 열두 살 때 이방인이었고 열여섯 살에 이르러는 완전한 불가지론자가



강태광 목사  
(월드케어USA대표)

많은 작가가 체스터턴을 따르고 칭송했습니다. T.S.엘리엇은 “체스터턴은 영원토록 후대의 존경을 받아야 마땅한 사람”이라고 칭송했고, 버나드 쇼는 “세상이 체스터턴에 대한 감사의 말에 인색하다”라고 했습니다. 20세기 위대한 소설가인 호르헤 루이스 보르헤스는 체스터턴을, “에드거 앨런 포보다 더 훌륭한 추리 소설가”라 했습니다.

체스터턴은 기독교 신앙을 갖기 전에 다양한 종교와 이단을 섭렵했습니다. 강신술(Spiritualism), 신지학(Theosophy), 그리고 20세기에 유행했던 대부분의 이단을 거쳤습니다. 그 와중에 기독교를 반대하는 서적들을 탐독하다 그들의 논리에 허점을 발견하고 신앙의 자리로 돌아왔습니다. 이 과정에서 신실한 성공회 신자 프랜스 브록(Frances Brogg)을 만난 것은 축복이었습니다.

체스터턴은 신앙인이 된 후 클라리온(Clarion)이라는 신문의 요청으로 자신의 신앙을 소개하는 글을 쓰게 되었습니다. 당시 클라리온의 편집장 로버트 블랫츠포드(Robert Blatchford)는 매주 다양한 사람의 신앙소개 글을 실었습니다. 체스터턴은 세 개의 칼럼으로 기독교 세계관을 소개하며 기독교의 합리성을 논증했습니다. 이 글을 계기로 그는 기독교 변증가로 활동하게 되었습니다.

Kangtg1207@gmail.com

# 매일가정예배

전화령(캄보디아 선교사)  
whiteyou11@yahoo.com

## 월 사회적 권세의 이해 (롬 13:1-3) 찬 23장

사도는 신앙생활을 이웃 관계까지 포함합니다. 이것은 본래 하나님이 기대하신 경륜이었습니다. 이웃 관계가 발전하여 사회와 국가에 대한 책임까지 그리스도인에게 속한 것이라 뜻입니다. 그래서 집의 뼈대와 같은 사회구조에 관해 본문은 무엇을 가르칩니까? 첫째, 세상의 권세: 각 사람에게 있는 권세에 대한 복종은 하나님께 복종하는 연장선에 있습니다. (1) 주님에 대한 복종이 사회의 권위에 대한 복종으

로 나가는 것은 창조의 질서이며 하나님 나라의 기초이기 때문입니다. 둘째, 권세의 출처: 모든 권세를 대적하는 것은 하나님의 권위에 대한 도전이 되는 것이니 두려운 일입니다. 청교도들은 세상의 모든 일을 성직으로 생각하고 저 언덕에 그 나라를 세우려 했습니다. 하나님은 그림자 형태이지만 하나님 나라의 질서를 보여주시므로 주께로 돌아와 이 땅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채우시길 원하신 것입니다.

## 화 그리스도인의 국가관 (롬 13:4-7) 찬 502장

사도는 계속 그리스도인의 사회 참여에 관해 무엇을 가르칩니까? 첫째, 관원은 무엇인가? 사도는 사회적 보호를 위해 만들어진 한 국가의 모든 권위를 하나님의 사역자로 규정합니다. (4) 왕에서 말단 공무원까지 하나님이 둔 권위이기에 하나님의 뜻을 이를 책임이 따릅니다. 어느 권세도 하나님의 주권의 손을 벗어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둘째, 왜 권위를 세우셨나요? 이것은 악을 막기 위한 것입니다. 죄로 인해 온갖 악이

신속히 피짐을 제재하여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데 있습니다. 세상의 소금과 빛의 사명은 이것을 이해함으로 나타냅니다. 셋째, 두려움이 필요하다. 사회의 악을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손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악을 제재합니다. 이 두려움은 하나님의 간섭하심을 증거합니다. 일반은총 속에서도 성령의 역사는 너무나 자상하십니다. 하나님의 광대하시고 자상한 질서를 바라보고 건전한 시민으로 살아갑시다.

## 수 사랑의 빛을 지라 (롬 13:8) 찬 337장

개인, 사회 그리고 국가와 관련된 그리스도인의 삶은 마침내 사랑의 삶에 이르러야 합니다. 그래서 사도는 다시 모든 생활의 원점인 하나님 사랑으로 돌아왔습니다. 첫째, 사랑의 빛만을 지라 했습니다. 특권을 가지면 의무와 책임이 따라야 합니다. 그러나 자기 자랑으로 마치는 일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입니다. 이는 사랑의 부채의식을 잃었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사랑의 강권함으로 복음을 위해 살았고 이웃

에 대한 사랑의 부채 의식을 가지고 살았습니다. 둘째, 먼저 하나님께 사랑의 빛을 진 자각을 가질 때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게 됩니다. 이는 하나님의 사랑 반응이 우리의 사랑 생활이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갚을까요? 하나는 하나님의 은혜에 보답함으로써 갚을 수 있습니다. 다른 하나는, 복음을 전함으로 나타냅니다. 누구에게나 복음의 빛진 자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 길을 갑시다.

## 목 율법의 완성 (롬 13:9-10) 찬 220장

사도는 율법과 복음과의 관계에서 복음 안에서 율법의 요구가 어떻게 성취되는가를 설명합니다. 마태복음 23:23 (의, 인, 신)과 누가복음 11:42 (정의와 사랑) 절에 나온 율법의 기초는 하나님 성품의 표현 곧 하나님의 형상을 가리킵니다. 첫째, 의가 세워져야 합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옳은 것은 하나님의 의 곧 성경뿐입니다. 둘째, 인으로 충만해야 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가 지배하는 생활을 가리

킵니다. 의는 긍휼을 부르고 긍휼은 의와 입맞춤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불러옵니다. 이것은 경건한 신자에게 넘쳐야 합니다. 셋째, 신이 기초입니다. 앞선 의와 인은 모두 신 위에 서야 합니다. 진실이 없는 의와 인은 가짜입니다. 이 진실을 알리면 진리인 성경에 근거를 두어야만 합니다. 그래서 성경을 묵상하는 자가 복됩니다. 이 세 요소가 사랑의 주축입니다. 율법의 완성은 사랑입니다.

## 금 완성될 구원 (롬 13:11) 찬 521장

또다시 사도는 시작된 우리의 구원의 완성될 자화상을 그려줍니다. 그 완성이 때가 지금 곧 신약시대이기 때문에 그에 합당한 삶을 요구합니다. 첫째, 구원이 완성된 때입니다. 구약시대부터 계속 그림자 곧 상징주의와 모형주의로 말하던 것이 실제로 나타난 때란 것입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면 구원받는 불연속성 시대입니다. 둘째, 깨어날 시기입니다. 이 큰 구원의 날은 마지막 기회가 주어진 때입니다.

누구든지 이때를 놓치면 기회가 없습니다. 그래서 신자는 날로 새로움을 사모해야 하며 교회는 부흥을 갈구하고 온 창조물을 향하여 복음을 전파해야 합니다. (막 16:15)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깨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음이라" 세속에 빠지기 쉬운 이 시대에 사도의 외침에 주목하십시오.

## 토 빛의 갑옷 (롬 13:12-14) 찬 502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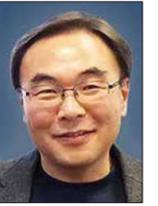
사도는 사역보다 더 중요한 것이 개인의 삶인 것을 암시합니다. 자기를 잘 지키는 사람이 사역을 잘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자기를 잘 지킬까요? 첫째, 죄를 짓지 않으려고 힘써야 합니다. 여기 나오는 빛의 갑옷이란 비유는 신자의 삶이 빛의 열매인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이 충만한 것을 가리킵니다. (엡 5:9) 그리고 옷으로 비유함은 주님이 마련하신 은혜를 취하여 입을 수고를 요구합니다. 한마디로 죄를 짓지 않기 위하여 빛의 삶

을 살라는 것입니다. 둘째, 그리스도를 닮는 일을 힘써야 합니다. 여기 나온 방탕, 술취함, 호색, 다툼 그리고 시기는 모든 죄의 특징입니다. 두드러진 죄를 경계하기 위하여 우리가 할 일은 그리스도도 못 입는 것 곧 그리스도를 닮는 삶입니다. 이것은 주님의 일에 몰두하고 성령의 사역에 헌신하라는 것입니다. 눅 9:23절에 자아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를 따르는 일인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는 완전한 구원의 자리로 나가야 할 자입니다.

# 기독교교육 (32)

## 기독교교육과 실행(2)과 평가

김종환 목사  
(달라스침례대학교 교수)



계획을 바탕으로 한 조직을 실행하는데 있어 중요한 요소는 홍보와 감독과 기록입니다. 이번에는 감독과 기록의 위치와 역할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또한 행정의 마지막 단계인 평가에 대해서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홍보와 마찬가지로 감독에 대해서도 좋지 않은 견해를 가지고 있습니다. 감독을 생각하면 때로 계급체계, 권력행사, 갑질 등 부정적인 개념들이 떠오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사실 감독은 매우 긍정적인 개념을 가지고 있습니다. 감독은 사람들이 맡은 일을 유능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보살피고 지원하고 지휘하는 행위이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서 감독은 봉사자들이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돕고 지도하는 것입니다.

감독은 개인과 교회 전체의 실행에 있어 중요한 영향을 끼치는 행정기능입니다. 감독은 다음과 같은 분야에서 필수적인 역할을 담당합니다: 목적과 목표의 소통과 실행, 계획과 조직과 실행의 구체화, 문제해결, 활동의 질 향상, 동역자들에 대한 반응과 격려와 조언, 그리고 목표와 기준의 달성.

감독활동의 초점은 사역을 성취하는 것에 있습니다. 그에 더하여 훌륭한 감독은 사람들의 개인적인 성장과 발전에 도움을 줍니다. 계획과 조직과 실행을 관찰함으로써 프로젝트의 진척을 돕습니다. 감독은 프로젝트에 동참하는 봉사자들이 의미있는 기여를 할 수 있도록 임무와 목표와 기대치를 소통합니다. 봉사자들에게 계속적인 반응과 격려를 제공합니다.

교회의 교육사역에 있어 감독의 책임을 맡은 사람들은 다음과 같은 일을 합니다:

1. 모집 - 좋은 자세를 가진 봉사자를 모집한다. 유능하나 자세가 바르지 않은 사람보다 능력이 부족해도 자세가 바른 사람을 모집하는 것이 중요하다.
2. 소통 - 분명한 목표와 과정을 설정하고, 기대치를 분명하게 소통한다.
3. 훈련 - 성장과 발전의 기회를 제공한다.
4. 인정 - 봉사자가 달성한 일에 대해 긍정적인 외적 자극을 제공한다.
5. 수용 - 생각과 느낀점을 경청하고 제안을 수용한다.
6. 공유 - 봉사자들과 정보를 나누고 대화할 수 있는 시간을 정기적으로 계획한다.
7. 문제 처리 - 문제가 생기면 지체없이 해결한다. 문제를 해결할 때는 사람의 잘못을 지적하는 것이 아니라 문제를 공략한다.
8. 문서화 - 후임자의 적응을 돕고 새로운 봉사자를 쉽게 훈련할 수 있도록 기록을 남긴다.
9. 유대관계 - 인사규정을 개발하여 모든 사람을 공평하게 대할 수 있도록 한다.

기록과 보고 역시 실행 단계에 있어 필수적인 요소입니다. 훌륭한 감독자는 실행과정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지속적으로 기록하는 시스템을 사용합니다. 기록한 내용을 보고하는 목적은 사역의 진보를 리더들에게 알리기 위한 것입니다. 리더들

은 정보를 바탕으로 방향을 조정하고 활동을 결정하여 사역이 더 잘 진행될 수 있도록 합니다. 따라서 사역의 모든 분야에 대해 세심한 기록을 남겨야 합니다. 기록물은 추후에 참고할 수 있도록 사역에 관련된 주요 문서들과 함께 보관해야 합니다.

효과적인 기록을 위하여 다음과 같은 제안을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1. 정보를 수집하는데 가장 자연스러운 시간과 장소를 찾는다. 정보의 진원지와 가장 가까운 곳이 바람직하다. 예를 들어, 예배참석자의 수에 관한 정보를 수집하려면, 예배 다음날 기록을 더듬기보다는 예배시간에 수집하는 것이 이상적이다.
2. 동일한 정보가 중복 수집되지 않도록 확인한다.
3. 양식을 사용할 때는 언제 어떻게 사용할 것을 표시하여, 정보가 차후에 빠르게 사용될 수 있도록 한다.
4. 모든 봉사자에게 정보 수집에 관해 분명하고 일관적인 지침을 제시한다.
5. 정보를 수집하는 봉사자들이 그 정보의 용도를 분명히 이해하도록 해야 한다. 정보의 용도를 이해하면 정보를 더욱 바르게 수집하게 된다.
6. 정보를 수집한 봉사자들에게 전체적인 결과를 알려준다.
7. 정보를 안전하게 보관한다.

평가는 기독교교육의 행정에 있어 마지막 단계입니다. 동시에 계속적인 과정이기도 합니다. 행정의 때 단계마다 평가가 따르기 때문입니다. 계획, 조직, 실행은 순차적으로 이루어지지만, 단계별로 교회의 교육사역에 대한 기여도와 지역상황에 대한 적합도를 평가해야 합니다. 계획을 세울 때, 계획을 바탕으로 조직을 구성할 때, 조직에 따라 계획을 실행할 때, 관련된 모두가 평가에 임합니다. 어떤 개인이 자원봉사자로 참여할 것인지를 결정하는 것조차 평가에 속합니다. 모든 단계의 진행과 동시에 평가는 계속 이루어져야 하고, 이루어집니다. 평가에 참여하는 사람이 많을수록 목표 달성의 가능성이 커집니다.

계획, 조직, 실행의 단계와 병행하는 평가와 더불어 실행을 마무리하는 시점에 독립적인 평가의 단계가 있습니다. 모든 단계를 완수한 후 전반적인 평가가 이루어집니다. 이 단계에서는 무엇보다 진솔함이 필요합니다. 자세한 기록을 남겨 보관하는 것은 평가를 위한 것입니다. 평가 단계를 통해 모든 참여자들이 은혜 가운데 성장할 수 있습니다.

효과적인 사역을 위해서는 평가의 단계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평가에는 진솔함, 진행과정의 분석, 결과와 목표의 비교, 의도와 활동의 차이점 관찰, 향상을 위한 제안, 성취에 대한 축하가 포함되어야 합니다.

기독교교육은 계획, 조직, 실행, 평가의 과정을 거쳐 교회의 사명을 달성하는데 기여합니다. 그 과정을 기독교교육행정이라고 부릅니다.

jonk@dbu.edu



"사람은 가도 사랑은 남습니다"

가슴으로 쓴 이야기는  
세월이 가도 잊혀지지 않습니다

열심히 한 생애를 살아온  
당신이 남긴 사랑의 이야기들

기억은 추억이 되어  
더욱 소중한입니다

최고의 예를 드리는  
하늘 가족, 중앙 장의사

머리카락 한올까지  
마지막 정성을 다하겠습니다

당신의 이야기  
.... 사랑의 꽃이 됩니다



마지막 정성속에 함께 보낸 31년  
Since 1988, 최초의 한인 공인장례사

모든지점 - 대형 파킹장 완비

Central Funeral Home: BongHo Ha F.D. NJ LIC 4569 | Gina Chong F.D. NJ LIC. 4504 | John Chong F.D. NJ LIC 5079

NY: 샌프란시스코 162-14 Sanford Ave., Flushing, NY NJ: 워싱턴 809 Broad Ave, Ridgefield, NJ NJ: 잉글우드 129 Engle St, Englewood, NJ

장례사전계획 | 장례식 코디네이터 | 성직자 초빙 | 묘지구입 상담 | 운구 한국소환 | 이장 | 기타 장례의 모든 것

뉴욕 | 718. 353.2424 뉴저지 | 201.945. 2009

가정선교

이재근 목사 (미주가정선교회 대표)



70. 아버지의 정의

가정문제의 근본적인 해결은 아버지의 권위(父權)회복에 있음은 주지의 사실입니다. 좋은 아버지를 보지도 못했고, 배우지도 못했음입니다. 아버지의 남성상, 아버지의 영향력, 아버지의 영성, 아버지의 사명을 배우고 깨달아야 합니다. 이보다 더 중요한 것은 아버지가 무엇인지?, 그 정의부터 아는 것이 아버지됨의 첫 걸음입니다.

1. 아버지는 가정의 삼위일체이다. 성적으로 남자이고, 아내에게는 남편이며, 자녀에게는 아버지가 되는 가정의 삼위일체입니다.

2. 아버지는 축복의 위임자이다. 아버지의 입술은 축복의 통로입니다. 아버지의 손은 축복의 도구입니다. 아버지는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으로 자녀들을 축복하도록 위임받은 사람입니다(민 6:22-27).

3. 아버지는 거울이다. 자녀들은 아버지가 비춰주는 거울로 자신의 모습을 보면서, 자신의 자화상을 형성해 갑니다.

4. 아버지는 가정예배의 제사장이다. 아버지는 가정에서의 영적 성장을 위하여 가정예배를 인도하는 제사장입니다.

5. 아버지는 자녀들의 영적 스승이다. 유대인이 우수한 민족이 된 것은 어머니 교육인 줄 알지만, 말씀을 가르치는 사역과 회당에 데리고 가는 것은 아버지 몫입니다. 그들의 IQ교육은 아버지, EQ교육은 어머니 몫입니다.

6. 아버지는 가정의 대표자이다. 아버지는 가정의 머리(Headship), 대표자(Leader)로 세움 받았습니니다. 이는 특권, 권위, 권리의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가정의 모든 문제를 책임져야 함을 말합니다.

7. 아버지는 가정의 분위기 메이커이다. 가정의 분위기는 아버지들에 의해서 좌우됩니다. 가정이 화목한 천국

이 되기도 하고, 폭력과 투쟁의 전쟁터, 지옥이 되기도 합니다.

8. 아버지는 이 세상에서 특별한 존재다. 아버지는 항상 바쁘다. 하루도 쉬지 못합니다. 눈을 떠 보면 안 개실 때가 많다. 투명인간과 같습니다.

9. 아버지는 먹칠한 유리 같다. 아버지는 유리같이 잘 깨지기듯 하지만, 먹칠한 유리 같아서 속은 잘 보이지 않습니다.

10. 아버지는 비바람을 피할 수 있는 집과 같은 존재이다. 아버지와 함께라면, 어떤 문제와 고난에도 두려움이 없는 든든한 존재입니다.

11. 아버지는 뒷동산의 바위, 시골의 느티나무 같은 존재다. 어떠한 시련과 환난에도 요동하거나 흔들림이 없고, 늘 쉽고 안식처와 같은 분입니다.

12. 아버지는 감정을 가진 인간이다. 아버지는 강해야 한다는 강박관념에 매이지 말아야 합니다. 슬플 때 울고, 기쁠 때 웃을 수 있는 인간입니다. 가족들의 따뜻한 지지와 격려가 필요한 존재입니다.

13. 아버지는 가시고기와 같다. 가시고기는 지구상에서 가장 부성애가 큰 물고기입니다. 암컷의 산란을 위해 외부 침입자들과 싸우다 죽으면, 어린 새끼들이 아버지의 시체를 뜯어먹고, 양상한 가시만 남습니다.

14. 아버지는 자녀교육의 살아있는 교과서이다. 아버지가 자녀교육에 참여하지 않는 가정은 구조적 결손가정입니다. 아버지의 자녀교육에 대한 역할의 중요함을 강조하는 말입니다.

15. 아버지는 자녀들의 백과사전이다. 자녀들은 아버지는 뭐든지 다 알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녀들의 끝

없는 질문에 가능하면 많은 답을 들려주는 것이 아버지의 의무입니다.

16. 아버지는 가정의 목자이다. 아버지는 자녀들을 보호, 인도, 풍요, 안식케 할 의무가 있습니다(시 23편).

17. 아버지는 가정의 지휘자이다. 아내를 사랑하고, 자녀들을 보살피고 양육하며, 노인들에 효행하므로 가정의 하모니를 잘 이루어 가는 지휘자입니다.

18. 아버지는 방향을 일러주는 나침반이다. 아버지는 자식들이 험난한 세상을 살아갈 때, 거리낌 없이 살아갈 수 있도록 정확한 방향을 일러주는 나침반입니다.

19. 아버지는 인생전장의 사령관이다. 아버지는 자식들이 인생전장의 전쟁에서 살아남을 수 있도록 강하게 훈련시키는 사령관입니다.

20. 아버지는 자비와 용서 그리고 사랑을 베푸는 친근한 존재이다. 아버지는 두려움과 무서움의 대상이 아니라, 자비와 용서, 그리고 사랑을 베푸는 부드럽고 친근한 존재입니다.

21. 아버지는 가정의 공급자, 보호자, 인도자, 교육자이다. 히브리어로 아버지를 '아바'라고 합니다. 이 단어에는 '공급자, 보호자, 인도자, 교육자'라는 네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역할과 동일합니다. 하나님 아버지도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공급해 주시고, 사탄으로부터 보호해 주시고, 푸른 초장으로 인도해 주시고, 말씀으로 양육하시는 분이십니다.

22. 아버지는 사상, 힘, 권위의 상징이다. 가정에서 어머니가 '사랑, 정서, 눈물'의 상징이고, 자녀는 '희망'의 상징이라면, 아버지는 '사상, 힘, 권위'의 상징입니다.

23. 아버지의 사상은 바로 '토라'에 근거한 신본주의 사상이다. 아버지의 사상, 즉 생각, 사고, 이념, 주의 등의 정신적 바탕은 '토라', 즉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한 신본주의 사상이어야 합니다.

jaekunlee00@hotmail.com

베드로 진서 5

설교 만들기2



김경진 목사 (빌라델비아교회 은퇴목사)

설교를 만드는 기쁨을 누가 알죠? 나는 은근히 자랑한다. 누군가 나에게 나의 기쁨 즐거움이 무엇이냐고 묻는다면 나는 설교 준비할 때와 설교하는 바로 그 시간이라고 한다. 설교 준비하는 그 자체는 힘이 들지만 그럼에도 나는 준비의 시간에 흥분을 느낀다. 스펠전 목사님의 아내 내 남편은 설교 준비하다가 불에 타 죽었다고 했다지만 나는 불에 타 죽을 만한 그런 열정까지는 되지 못한다 해도 내게도 그런 기쁨은 언제나 있다.

그래서 은퇴 후에도 설교를 만든다. 언제 이 설교들을 할 수 있을지 몰라도 하나님이 그의 마음에 드실 때는 이것이 아까워 꼭 어느 곳에서 설교하게 하시리라는 것을 나는 믿는다. 그러나 앞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이렇게 산고를 겪으면서 만든 설교를 은퇴 후에 버릴 때 참으로 가슴이 아팠다.

사람들은 말했다. 그럼 책으로 내

시지. 예전 착각한 것이 몇 개 있다. 은퇴하면 숲속의 작은 집에서 글이나 쓰며 지내겠다 했지만 은퇴하면 외로워서 오히려 도시에 나와 살아야 하고 글을 쓰겠다고 한 것도 착각이다. 현대는 인터넷 시대가 돼서 거의 책을 읽지 않는다. 그런데 설교집을 읽어? 인터넷을 통해서도 얼마든지 설교를 보고 들을 수 있는데 눈이 아프게 책을 읽을 성도가 과연 얼마나 있을까? 성경도 안 읽는데.

revpeterk@hotmail.com

세계 곳곳에 있는 소수민족을 위해 기도해 주세요

▲ 국가명 중동

▲ 종족명 비 종족

▲ 인구 약 35,000명

▲ 종족의 종교 상황 슬람 99.9%, 알려진 신자 없음

▲ 기타 학교에 다닌 사람이 거의 없어 문맹률이 높음

▲ 프로젝트 소개 2007년 시작된 이후 시편 23편, 신약 성경의 동방 박사과 목자, 탕자, 부자와 나사로 등의 이야기와 요한복음 일부를 공용어로 번역했고 비 종족어로 번역과 녹음을 준비하고 있다.

▲ 프로젝트 진행 2018년부터 요한복음 공용어 번역을 시작했고 2020년까지 공용어와 비 종족어로 사복음서를 완성한 후

종족어로 녹음을 계획이다.

▲ 기도제목

- 1. 번역 조력자를 만나서 공용어로 번역된 복음서가 종족어로 녹음되도록
2. 비 종족에 주님의 말씀을 자신들의 말로 듣고 예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이 생기도록
3. 이들을 통해 믿음의 공동체가 세워지도록

(GBT 성경번역선교회)



비즈니스세계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라! 제2회 미주한인 기독교실업인회 서부총연합회 장학금 수여식



장학생 명단 : Lauren Ahn, Eunsung Choo, Samuel Kim, Sungmin Kim, Johnson Lee, Ryley Park, Chong Lim, David Shin, Joshua Suh

일시: 2023년 8월 26일 토요일 오후4시
장소: Jesus' Hands Montessori School (5621 Beach Blvd, Buena Park, CA 90621)
행사문의: 장학위원장 안신기목사 (909)677-0028

주최: 미주한인 기독교실업인회 서부총연합회

주관: 미주한인 기독교실업인회 남가주연합회

## 제24회

## 미주 한인기독교 총연합회 총회

Korean Christian Council in America Annual Conference

할렐루야

미국, 캐나다와 남미의 개신교 교회 중심의  
미주 한인 기독교 총연합회는  
제 24회 총회를 샬럿에서 개최합니다.  
존경하는 교계 지도자들께서는 오셔서 축하해 주시고  
동참하심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려주시기 바랍니다.

주제: 모든 일에 전심전력하자

“이 모든일에 전심전력하여 너의 진보를  
모든 사람에게 나타나게 하라”  
(딤펴전 4:15)

일 시: 2023년 8월 28일(월) 오후 6시부터  
30일(수) 오전 11시까지

장 소: 샬럿 장로교회

Charlotte Presbyterian Church  
701 Scaleybark Rd. Charlotte, NC 28209  
(704)877-6642(C) (704)529-0900(O)

대표회장: 장석민 목사(678)469-5303  
준비위원장: 나성균 목사(704)877-6642  
사무총장: 이제선 목사(404)915-4717

www.ikcca.org



미주 한인기독교 총연합회  
Korean Christian Council in America